

#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85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6.25.

발행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김창보 · 최재필

홈페이지 [www.seoulhealth.kr](http://www.seoulhealth.kr) · [www.scdc.or.kr](http://www.scdc.or.kr)

- 코로나19 국내 28명 추가 확진으로 총 12,563명, 서울시 신규 확진자 7명 발생으로 총 1,257명
- 세계 확진자수 9,329,262명(치명률 5.15%), 전일대비 1.81% 증가(필리핀 3.73%, 인도네시아 2.24% 등)
- 리치웨이 폐 누적확진 205명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방판업체 관련 모임 또 7명 코로나 확진자 나와
- 대전 방판관련 열흘만에 50명 감염, 확진자 100명 넘어, 충청권 시도간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하기로
- 러 선박 하역 항원노조원 124명 해당 선원 국내 접촉자 152명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2주간 자가격리 조치
- 서울시, 만65세 모든 어르신에게 1인 5매씩 총765만개 덴탈마스크 지원, 순차 배송 및 직접 전달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대부지원 유언제재면제 승인, 박원순, 남북 긴장완화 위해 북에 방역물품 지원의사 밝혀
- 중대본 코로나 재유행 대비 확진자 5,500여 명 임상역학정보(동반질환 및 과거력, 임상중등도 등) 공개
- 대전 거점병원인 충남대병원, 입원 앞둔 모든 환자 진단검사 실시, 음성 나와야 입원수속 밟도록 할 계획
- 일본, '19 감염병 감시 연보 발간, 국내 감염병 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지속 증가 추세
- 국민 90% 코로나19는 독감수준 '치명적'이지 않다 인식, 정부 대응(76.3%) 및 의료진 신뢰(90.7%) 비율 높아
- WHO, 코로나 재확산, 다음주 세계 확진자 천만 명 전망, 미국, 브라질, 유럽, 인도 등 확진자 급증 상황

### 1. 발생 현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sup>4)</sup>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sup>1)</sup>	1,257	7	843	273,470	8,486	264,984	103,017	10,881	92,136
전 국 <sup>2)</sup>	12,563	282	10,974	1,207,915	18,900	1,189,015	-	-	-
전세계 <sup>3)</sup>	9,431,973	482,752	4,746,836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6.25. 18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6.25.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20.06.25. 15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7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57명

- 입원(격리)환자 407명, 격리해제 843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1,250명(6.25.0시 기준)
- 6월 25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282명으로 치명률은 2.24%이며, 서울시 사망자 7명

● 서울시 확진환자 구성 (2020.6.25. 18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일자	계	해외 접촉 추정	이태원 클럽 관련	부천시 쿠팡 관련	KB보험 관련	리치웨이 관련	양천구 운동시설	양양 시설 관련	종교시설 관련 <sup>1)</sup>	금천구 도정기화사	확진자 접촉	조식중	기타 <sup>2)</sup>
6월 25일(목)	7	1	-	-	-	1	-	-	-	-	4	1	-
6월 24일(수)	9	1	-	-	-	-	-	1	-	-	3	4	-
6월 23일(화)	11	1	-	-	-	1	-	3	-	-	2	4	-
6월 22일(월)	3	-	-	-	-	2	-	-	-	-	1	-	-
6월 21일(일)	8	1	-	-	-	3	-	1	-	-	1	2	-
6월 20일(토)	15	1	-	-	-	3	-	2	-	2	-	2	5
6월 19일(금)	16	1	-	-	-	3	2	2	-	1	2	2	3
6월 18일(목)	18	1	-	-	-	5	-	3	1	-	2	6	-
6월 17일(수)	24	1	-	-	-	2	1	11	4	-	1	4	-
6월 16일(화)	14	2	-	-	-	3	2	2	2	-	1	2	-
6월 15일(월)	11	-	-	-	-	3	-	1	5	-	-	2	-
6월 14일(일)	7	2	-	-	-	-	-	1	-	-	-	4	-
6월 13일(토)	12	-	-	-	-	5	2	-	1	-	-	3	1
6월 12일(금)	30	-	-	-	-	6	1	14	2	-	-	7	-
6월 11일(목)	25	1	-	1	1	17	1	1	-	-	-	3	-
6월 10일(수)	19	1	-	1	-	12	1	1	-	-	-	3	-
6월 9일(화)	14	-	-	1	-	7	3	-	-	-	-	3	-
6월 8일(월)	17	1	-	-	1	9	3	-	1	-	-	2	-
6월 7일(일)	17	-	-	-	-	2	8	-	2	-	-	5	-
6월 6일(토)	29	-	3	-	-	5	12	-	2	-	1	4	2
6월 5일(금)	27	-	2	-	-	12	6	-	2	-	1	2	2

1) 종교시설관련: 수도권 개척교회, 강남구 동인교회, 원어성경연구회, 한국대학생 선교회, 안양군포 목회자, 대전 꿈꾸는교회 등 관련  
 2) 기타: 삼성서울병원 관련, 서초구 가족 관련, 용인형제 관련, 삼성화재 관련, 학원 관련, 대전 다단계, 오렌지라이프, 시청역, 의왕물류센터 관련 등

● 서울시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 (2020.6.25. 18시 기준)

(단위: 명)

소계	해외 접촉 관련	이태원 클럽 관련	도봉구 양양시설 관련	리치웨이 관련	부천시 쿠팡 관련	KB생명 보험 관련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금천구 도정기화사관련	대자연 코리아	시청역 안전요원 관련	구로구 콜센터 관련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기타	경로 확인중
1,257	298	139	44	117	24	13	37	43	6	3	3	98	39	281	112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된 것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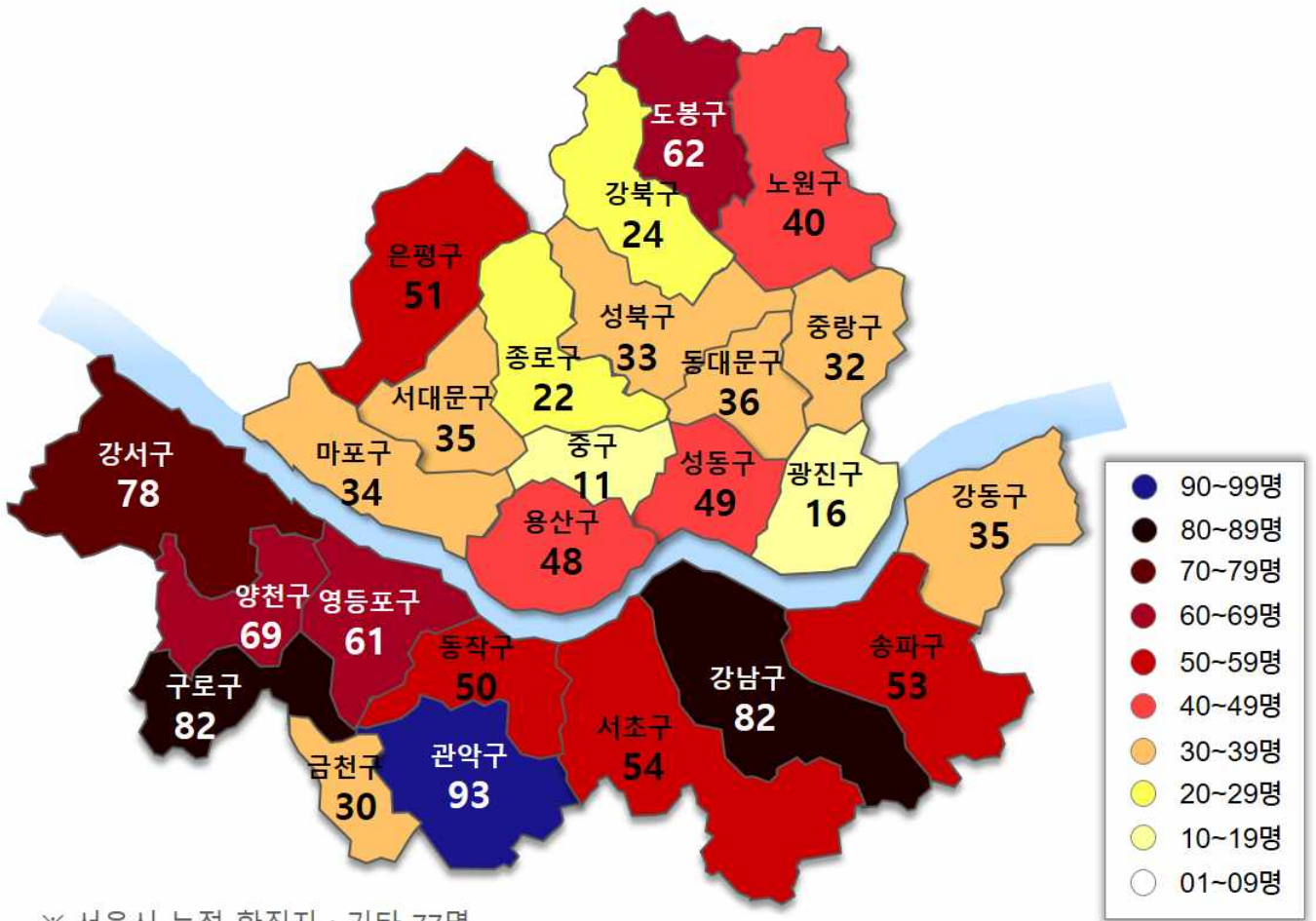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환자 발생 현황

- 6월 25일 18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1,257명임(거주지 기준으로 관악93, 구로82, 강남82, 강서78, 양천69, 도봉62, 영등포61, 서초54, 송파53, 은평51, 동작50, 성동49, 용산48, 노원40, 동대문36, 서대문35, 강동35, 마포34, 성북33, 중랑32, 금천30, 강북24, 종로22, 광진16, 중구11, 기타77(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환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22	11	48	49	16	36	32	33	24	62	40	51	35	34	69	78	82	30	61	50	93	54	82	53	35	77	1,257
6/25							1				1					1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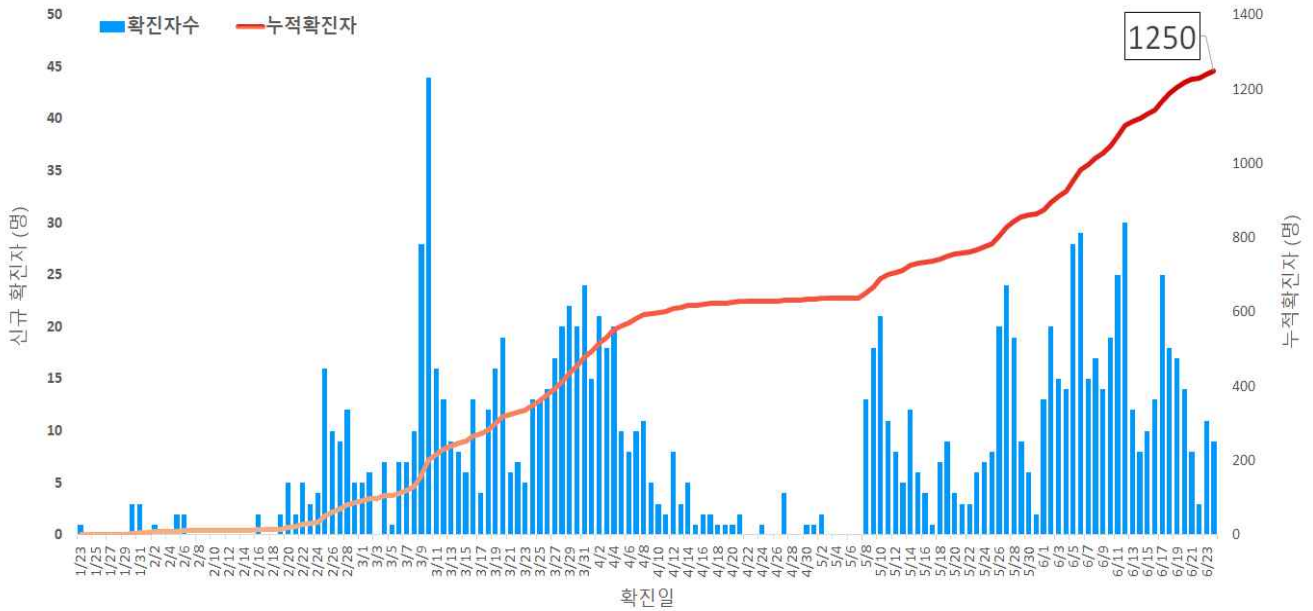
※ 서울시 누적 확진자 : 기타 77명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발생 현황(6.25. 0시 기준)

○ 확진자 일별 발생 추이 및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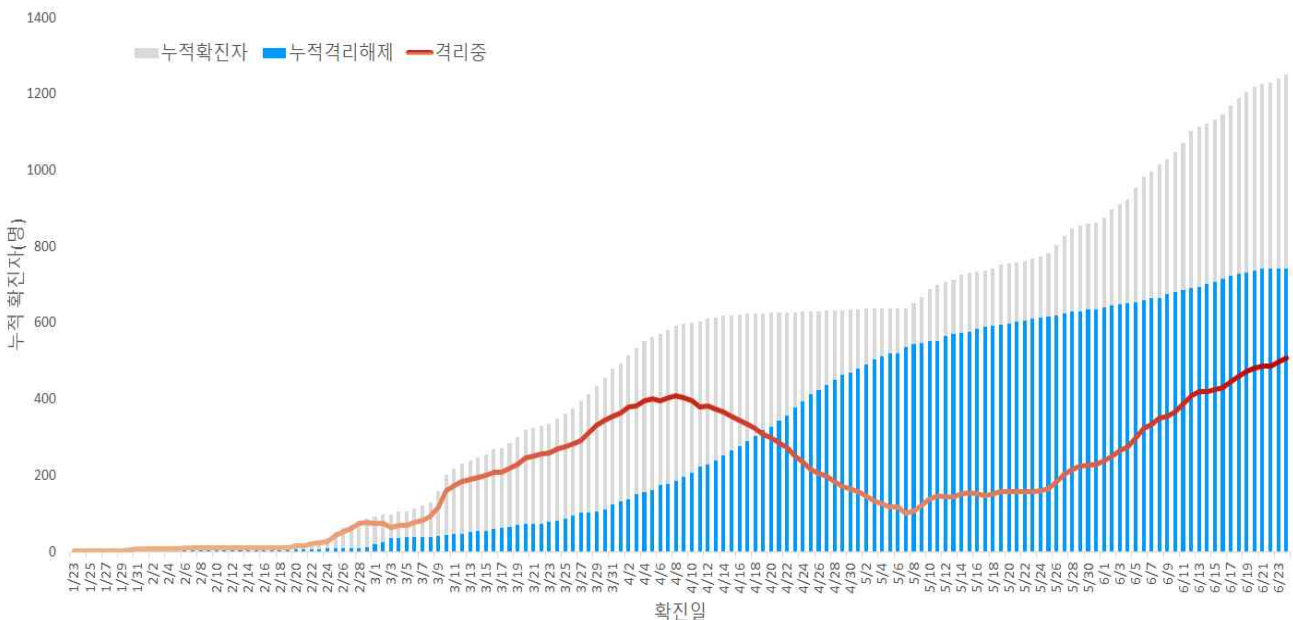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누적환자 총 1,250명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별 발생추이 및 누적 현황(명, 확진일 기준)

○ 확진자 격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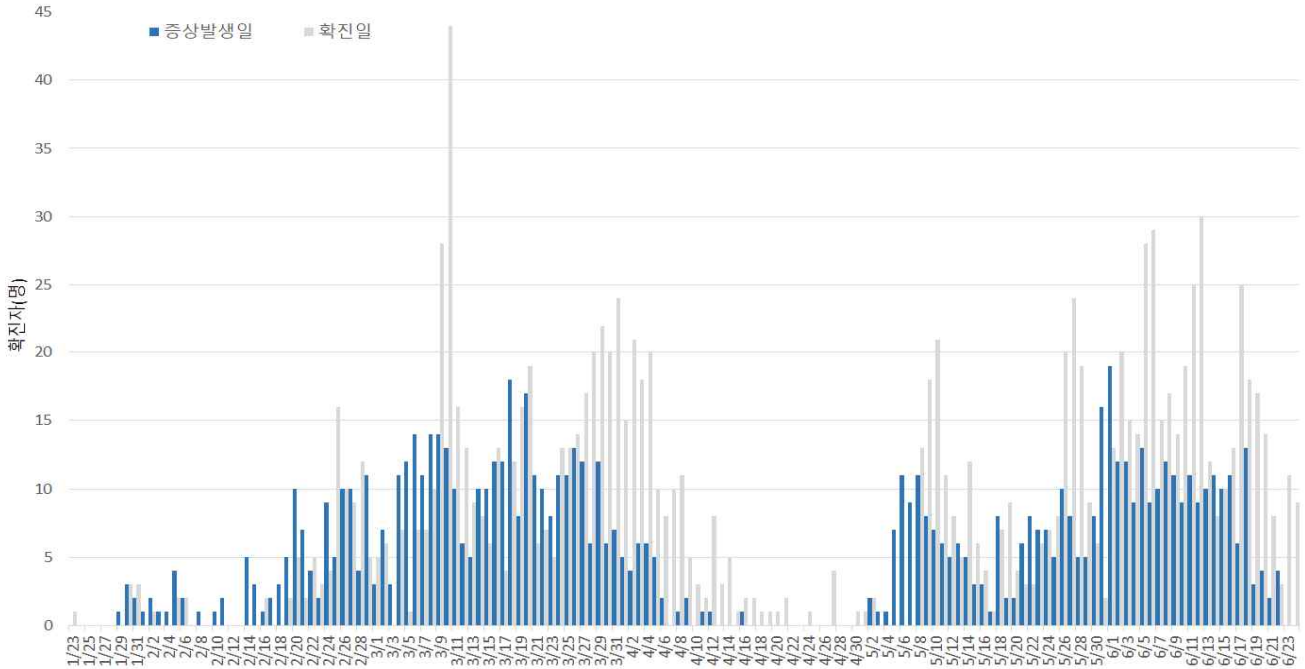
- 총 확진자 1,250명 중 격리해제 743명(59.4%)로 4.8일(405명) 이후 격리 중인 환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5.7일 이후 다시 증가세(현재 격리 중 507명)



서울시 코로나19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 증상발생일 및 확진일 기준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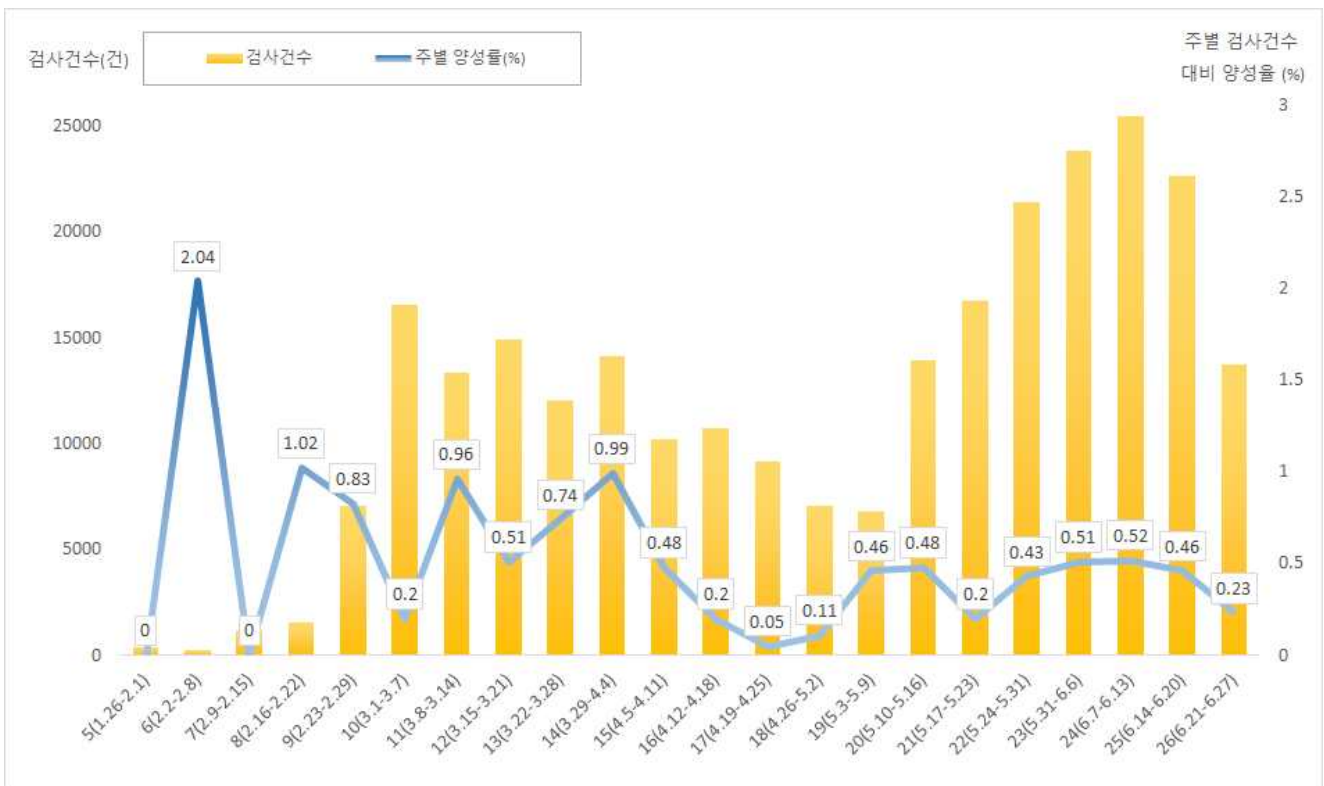
- 분석대상 발병일과 확진일이 모두 확인된 866명 (무증상, 증상발생일 알 수 없음 등 384명 제외)



서울시 코로나19 일별 분포 현황

### ○ 주별 검사건수 및 확진환자 양성률

- 총 검사건수 261,515건(금주 13,720건)중 1,250명 확진, 검사 대비 양성률 0.48%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주별 검사현황 및 양성률

□ 인적 특성별 발생현황(6.25. 0시 기준)

- (성별) 남성이 50.8%로 여성보다 높음
- (연령별)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44.5세(중위연령 44세, 범위 0-99세)로 20-50대가 69.2%이며, 사망 6명(44세, 62세, 82세(2명), 87세, 91세 남성)임
  - 치명률은 전체 0.5%이고,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8.9%임

서울시 성별, 연령별 확진환자 퇴원, 입원, 사망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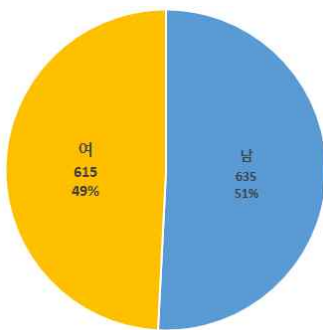
구분	확진자 (%)	퇴원자 (%)	장기입원자 (%)	퇴원자 평균입원일(일)	사망자	치명률(%)
계	1,250 (100.0)	256 (34.5)	743 (59.4)	27.6	6	0.5
성별	남성 635 (50.8)	132 (34.5)	383 (60.3)	26.8	6	0.9
	여성 615 (49.2)	124 (34.4)	360 (58.5)	28.4	0	0
연령	0-9 16 (1.3)	1 (8.3)	12 (75.0)	22.3	0	0
	10-19 56 (4.5)	13 (32.5)	40 (71.4)	25.9	0	0
	20-29 312 (25.0)	90 (37.5)	240 (76.9)	27.7	0	0
	30-39 181 (14.5)	50 (39.4)	127 (70.2)	26.5	0	0
	40-49 161 (12.9)	35 (31.5)	111 (68.9)	27.6	1	0.6
	50-59 209 (16.7)	42 (35.3)	119 (56.9)	29.2	0	0
	60-69 167 (13.4)	13 (25.5)	51 (30.5)	30.0	1	0.6
	70-79 103 (8.2)	10 (31.3)	32 (31.1)	26.4	0	0
80이상 45 (3.6)	2 (18.2)	11 (24.4)	25.9	4	8.9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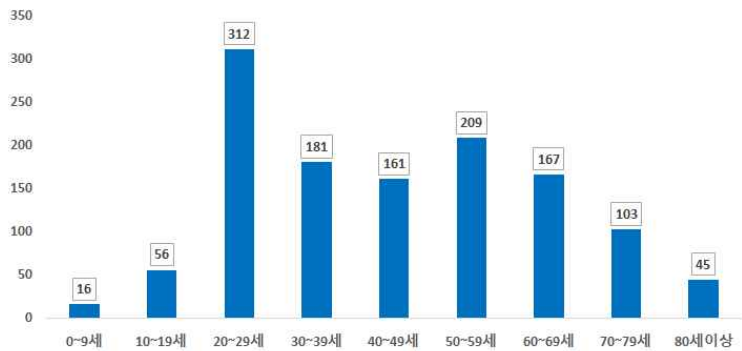
※ 평균 입원일수(전체)= (퇴원자, 비퇴원자 입원일의 합계)/(전체 확진자수)

※ 장기입원자=입원일수 35일 이상

○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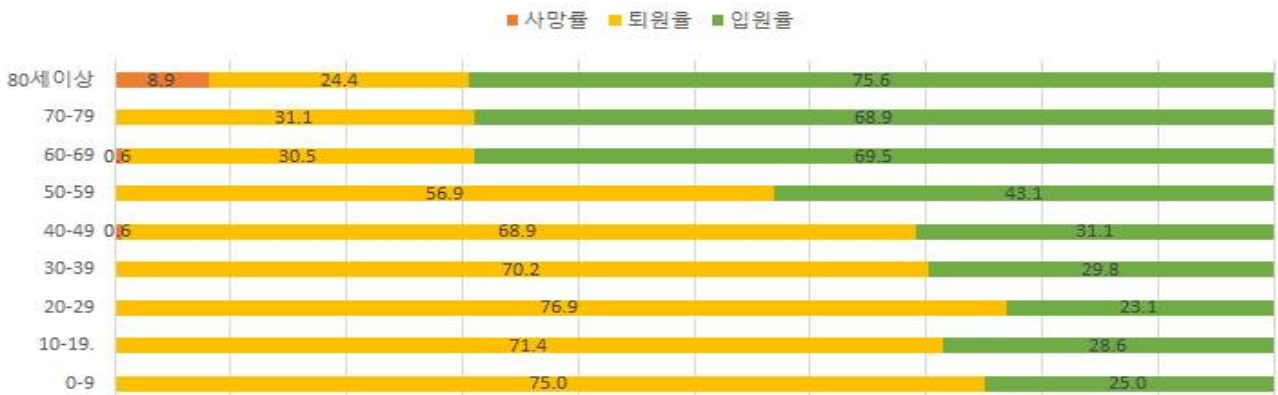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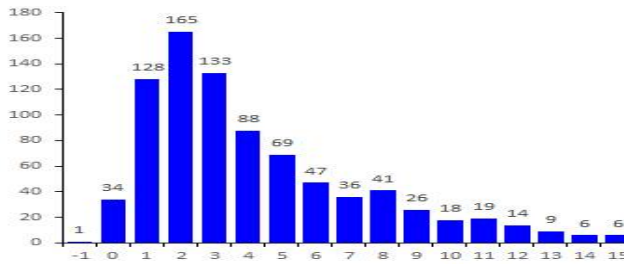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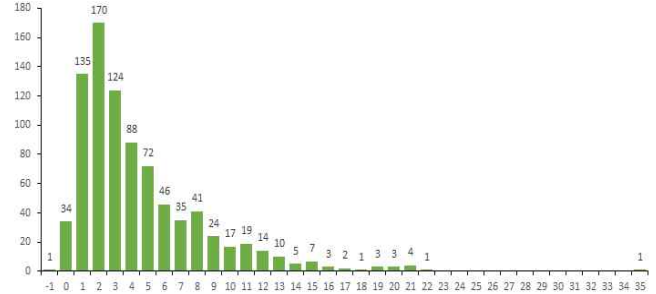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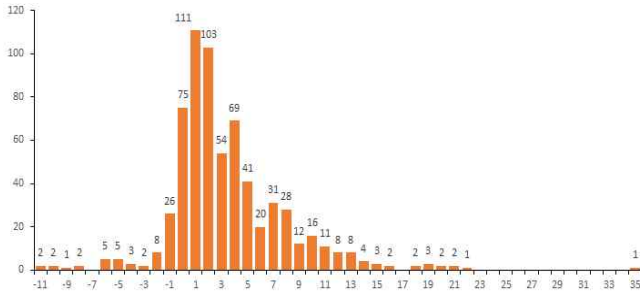
연령별

○ 연령별 확진자 치료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확진자 치료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진단소요일) 발병-격리까지 평균 3.5일(중앙값 2일)소요, 발병-확진까지 평균 4.5일(중앙값 3일), 발병-입원까지 평균 4.6일(중앙값 3일)



발병일-입원일 소요기간\*

※ 분석대상 발병일-확진일-입원일 이 모두 확인된 663명 (무증상, 증상발생일 알 수 없음 등 587명 제외)

□ 자치구별 발생현황(신고 구 기준)(6.25. 0시 기준)

- 구로구 발생이 7.7%(9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7.6%(95명), 관악구 7.3%(91명), 강서구 5.9%(74명) 순이었음
- 10만명당 발생률은 구로구가 23.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용산구 23.31명, 종로구 21.83명, 영등포구 18.04명 순이었음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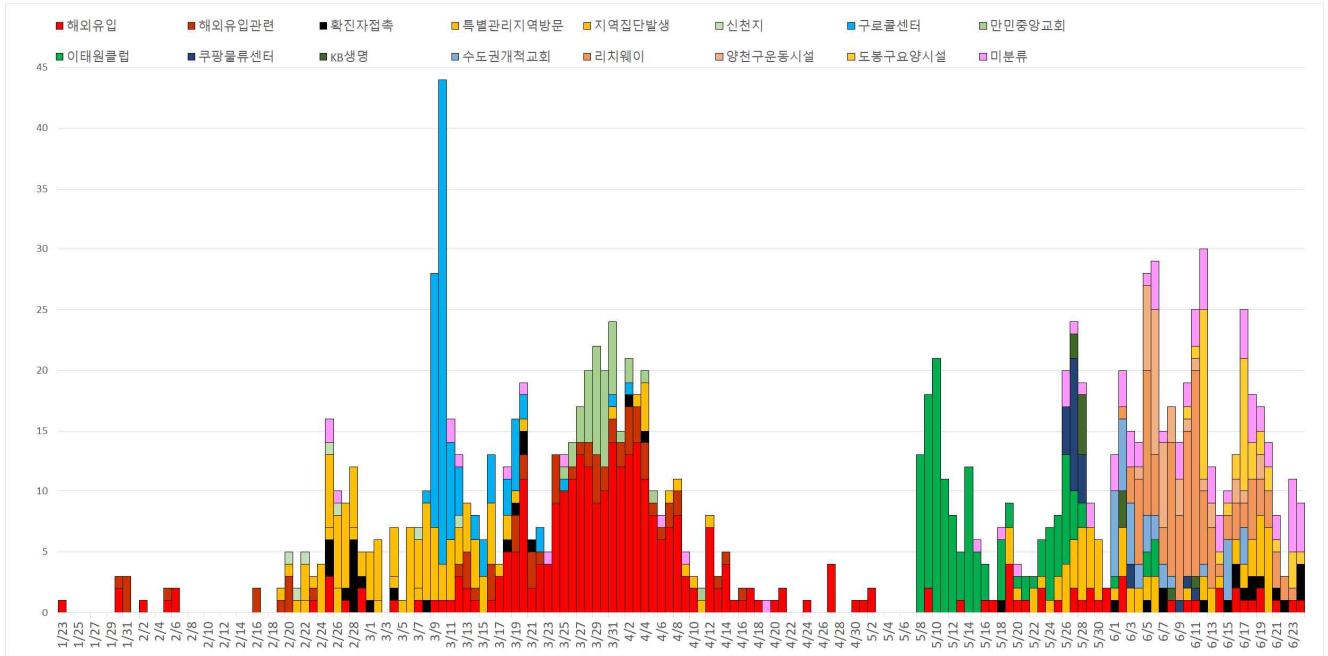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누계		증가현황	발생률 (10만명당)
	(명)	(%)		
합계	1,250	100.0	▲(+9)	13.05
서울특별시	1,241	99.3	▲(+9)	12.96
종로구	32	2.6	▲(+1)	21.83
중구	21	1.7	-	17.26
용산구	51	4.1	-	23.31
성동구	50	4.0	-	16.72
광진구	20	1.6	-	5.75
동대문구	38	3.0	-	11.17
종랑구	31	2.5	-	7.86
성북구	31	2.5	-	7.19
강북구	20	1.6	-	6.43
도봉구	61	4.9	▲(+1)	18.37
노원구	39	3.1	▲(+1)	7.32
은평구	51	4.1	-	10.77
서대문구	45	3.6	-	14.85
마포구	32	2.6	-	8.72
양천구 <sup>5)</sup>	72	5.8	-	15.80
강서구 <sup>4)</sup>	74	5.9	-	12.60
구로구 <sup>1)</sup>	96	7.7	▲(+1)	23.95
금천구	36	2.9	▲(+2)	15.70
영등포구	65	5.2	-	18.04
동작구	53	4.2	-	13.58
관악구 <sup>3)</sup>	91	7.3	▲(+2)	18.46
서초구	48	3.8	-	11.32
강남구 <sup>2)</sup>	95	7.6	▲(+1)	17.87
송파구	54	4.3	-	8.16
강동구	35	2.8	-	8.23
타시도	9	0.7	-	-

1) 구로구: 구로콜센터 26명, 만민중앙교회 22명, 리치웨이 13명, 수도권개척교회 9명, 쿠팡물류센터 5명 등  
 2) 강남구: 해외유입관련 56명, 이태원클럽 8명, 리치웨이 7명, 삼성서울병원 3명 등  
 3) 관악구: 리치웨이 21명, 해외유입관련 17명, 만민중앙교회 13명, 이태원클럽 12명, 구로콜센터 9명, 수도권개척교회 2명 등  
 4) 강서구: 해외유입관련 14명, 구로콜센터 12명, 쿠팡물류센터관련 11명, 이태원클럽관련 6명, 수도권개척교회관련 6명, 양천구운동시설 5명 등  
 5) 양천구: 양천구운동시설 25명, 구로콜센터 13명, 수도권 개척교회 11명, 이태원 클럽 4명, 리치웨이 4명 등

□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 (6.25. 0시 기준)

- 5월 이태원 클럽 내 전파를 통한 지역집단발생 환자 증가, 최근에는 다단계 회사인 리치웨이를 중심으로 환자 증가(114명)
-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은 해외유입 24.1%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집단발생 15.4%, 이태원클럽 11.1%, 리치웨이 9.1% 순이었음



서울시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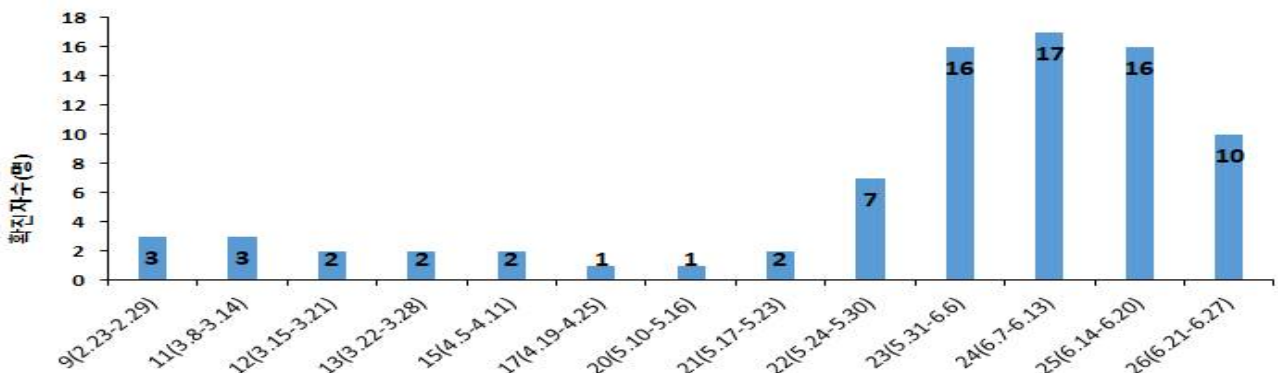
○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서울시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접촉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확진자 전체	경로불분명												
		소계	성별		연령(세)									
			남	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경로 불분명 환자(%)	1,250 (100.0)	82 (6.6)	46 (3.7)	36 (2.9)	0 (0.0)	1 (0.1)	7 (0.6)	12 (1.0)	10 (0.8)	12 (1.0)	14 (1.1)	16 (1.3)	10 (0.8)	

※ 강북·도봉·동대문·마포 각 1건, 강남·광진·금천·송파·양천·용산·은평·타시도 각 2건, 노원·성동 3건, 동작·서초·성북·중랑 4건, 강동·강서·관악·서대문 5건, 종로 6건, 구로·영등포 7건



서울시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주별 분포 현황(명, 확진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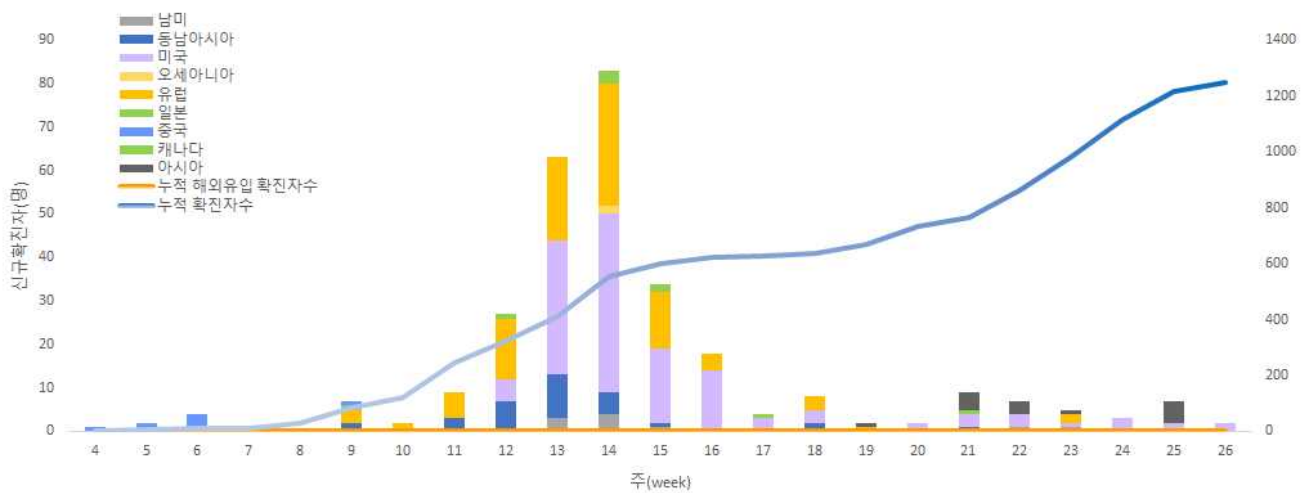
□ 국외 유입 현황(6.25. 0시 기준)

- 국외유입 사례 추정되는 누적 확진자 수는 301명(전체의 24.1%)임
- 주요 국외유입 감염국가는 미국 43.2%, 유럽 31.6%, 동남아시아 10.6%순임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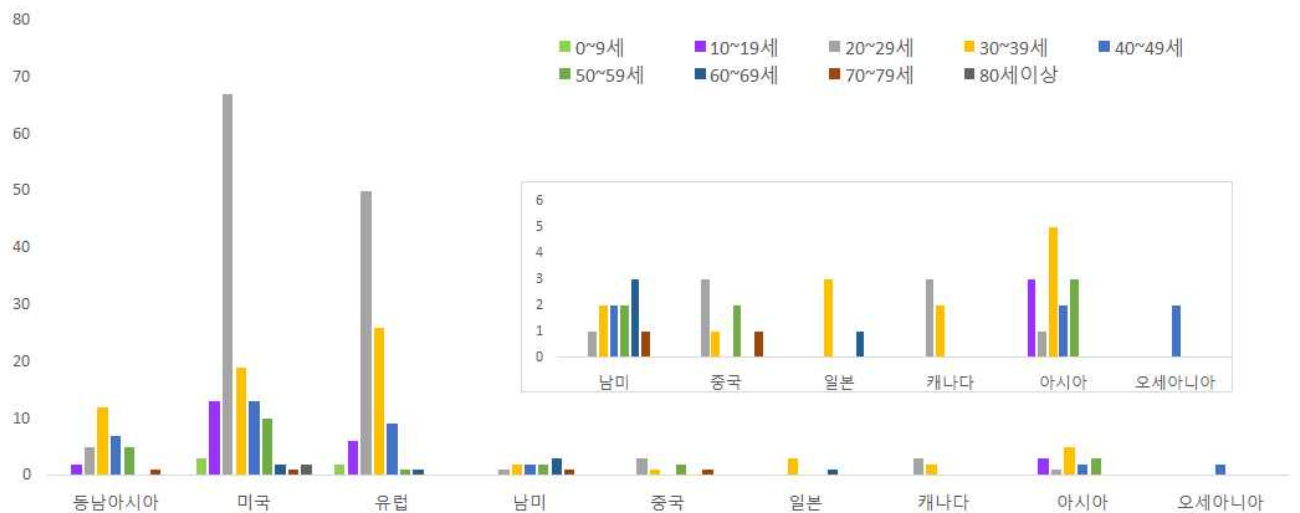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합계
누계	130	95	32	7	4	5	11	2	15	301
증가현황	▲(+3)	-	-	-	-	-	▲(+1)	-	▲(+1)	▲(+5)
백분율(%)	43.2	31.6	10.6	2.3	1.3	1.7	3.7	0.7	4.7	100.0



서울시 코로나19 신규·누적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연령별 해외유입 연령 분포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 접촉자 관리 현황(6.25. 0시 기준)

○ 서울시 관리 누적 접촉자는 32,942명으로, 그중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0.8%(27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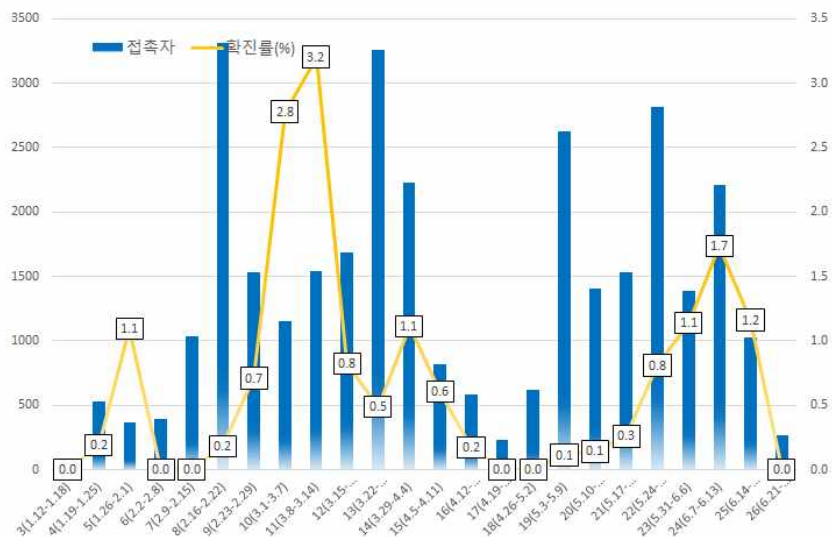
### 서울시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접촉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성별		연령(세)										확진불가
		남	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누계	32,942	17,553	15,389	948	1,701	10,372	6,400	4,443	4,166	2,785	1,478	583	66	
(%)	(100.0)	(53.3)	(46.7)	(2.9)	(5.2)	(31.5)	(19.4)	(13.5)	(12.6)	(8.5)	(4.5)	(1.8)	(0.2)	
확진자	277	135	142	9	15	46	31	34	59	41	20	22	-	
(%)	(0.8)	(0.8)	(0.9)	(0.9)	(0.9)	(0.4)	(0.5)	(0.8)	(1.4)	(1.5)	(1.4)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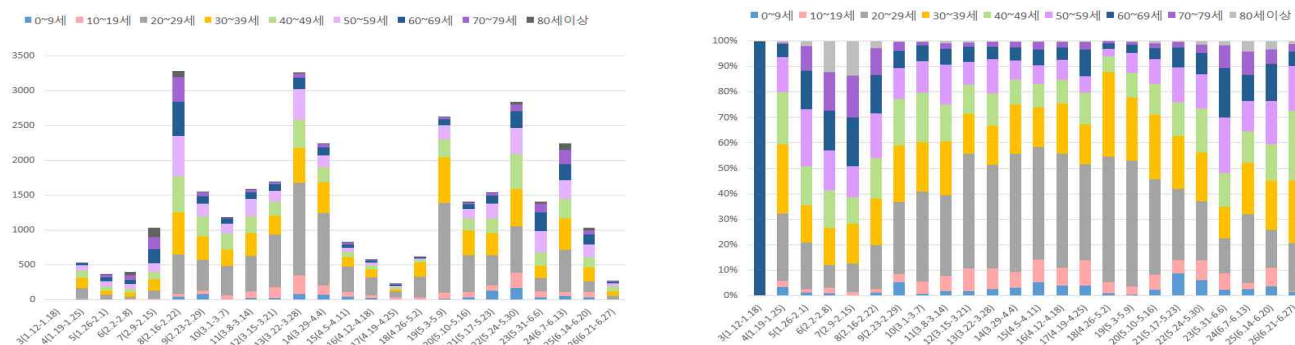
※ 접촉자 중 확진자수(명, %)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등록된 접촉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 주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주별 접촉자 현황 및 확진율 (명, %, 최종접촉일 기준)

### ○ 연령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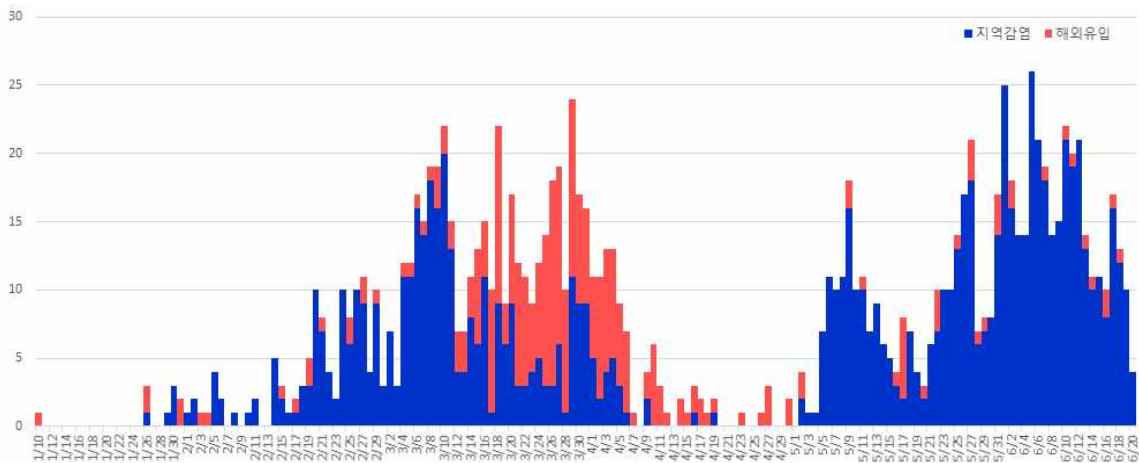
### ○ 성별 접촉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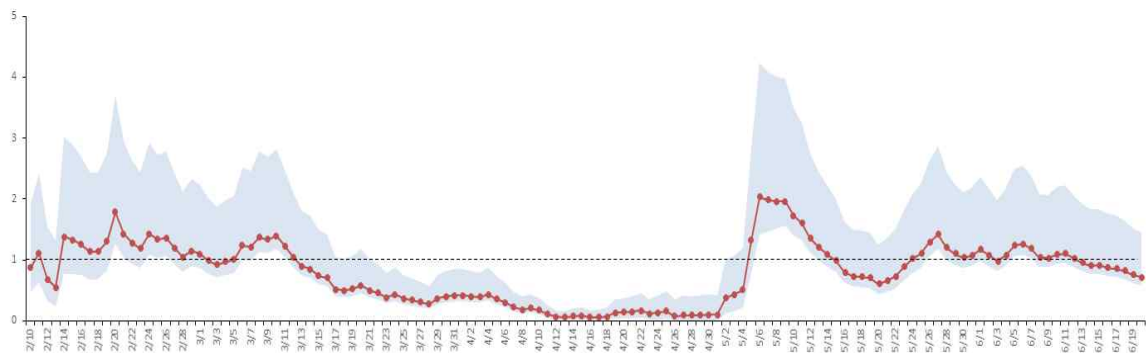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성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감염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추이;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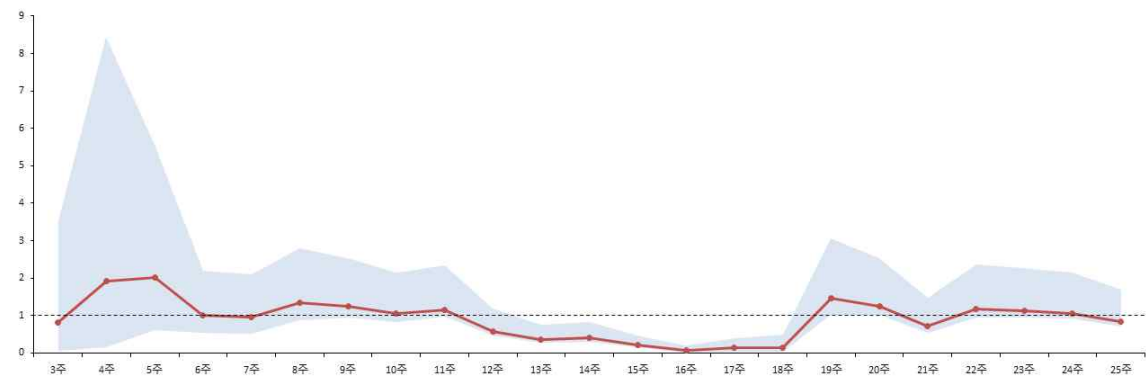
- '20.6.21. 00시 기준 1,219명에 대해 증상발생일기준 산출하였으며, 무증상자 399명의 증발생일은 검사일 및 확진일로 대체하여 분석
- 5월 클럽,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방문판매업체 등 지역감염확산으로, 지역감염 유효재상산수는 22주 증가 후 소폭 감소경향
  - 감염재생산수 주별 변화; 19주(05.03-05.09) 1.46 → 20주(05.10-05.16) 1.25 → 21주(05.17-05.23) 0.72 → 22주(05.24-05.30) 1.17 → 23주(05.31-06.06) 1.13 → 24주(06.07-06.13) 1.06 → 25주(06.14-06.20) 0.83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명, 증상발생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일별 Rt (Cori 방법 이용, 각 점은 1일을 의미함)



서울시 코로나19 주별 Rt (주별 중앙값 평균)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6.25.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차량 이동식
	소계	보건소 내	보건소 외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선별진료소	상담소						
83	38	35	1	2	44	5	6	8	25	1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6.25.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B)	상담소(C)
38	36	35	1	2

\*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10개구(중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은평·양천·금천·강남·강동구)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15개구(종로·용산·광진·도봉·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송파구)

\* 코로나19 상담소 2개소 : 금천구, 광진구(자양보건지소)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1개소 설치: 구로구(동아유치원 앞)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6.25.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 건)

날 짜	진 료		검 체		X-ray	
	계	누 계	계	누 계	계	누 계
6. 24.(수)	2,334	294,234	1,971	251,209	0	1,227
6. 23.(화)	2,940	291,900	2,547	249,238	0	1,227
6. 22.(월)	2,925	288,960	2,451	246,691	0	1,227
6. 21.(일)	1,573	286,035	1,497	244,240	0	1,227
6. 20.(토)	1,909	284,462	1,827	242,743	0	1,227
6. 19.(금)	2,927	282,553	2,498	240,916	0	1,227
6. 18.(목)	3,153	279,626	2,651	238,418	0	1,227
전일대비 증감	△606	2,334	△576	1,971	0	0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6.25.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 료		검체 검사		비고
	6.24.(수)	누계	6.24.(수)	누계	
계	767	170,543	745	130,907	
국가지정	106	22,324	85	14,732	
지역거점	96	26,962	96	23,526	
국공립병원	94	13,726	93	12,560	
민간병원	471	107,531	471	80,089	

● 일반시민 대상 선제검사(홈페이지신청) (2020.6.25.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구분	총누계	어린이	은평	서북	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서남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누계	878	98	72	84	106	129	137	107	145
6.24.	118	8	9	4	11	10	27	4	45
6.23.	141	5	10	22	6	17	11	10	60
6.22.	195	20	23	27	21	19	16	29	40
6.19.	66	14	0	2	10	14	20	6	0
6.18.	79	13	0	3	16	20	16	11	0
6.17.	88	11	11	10	10	17	14	15	0
6.16.	87	14	5	8	16	16	15	13	0
6.15.	104	13	14	8	16	16	18	19	0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6.25.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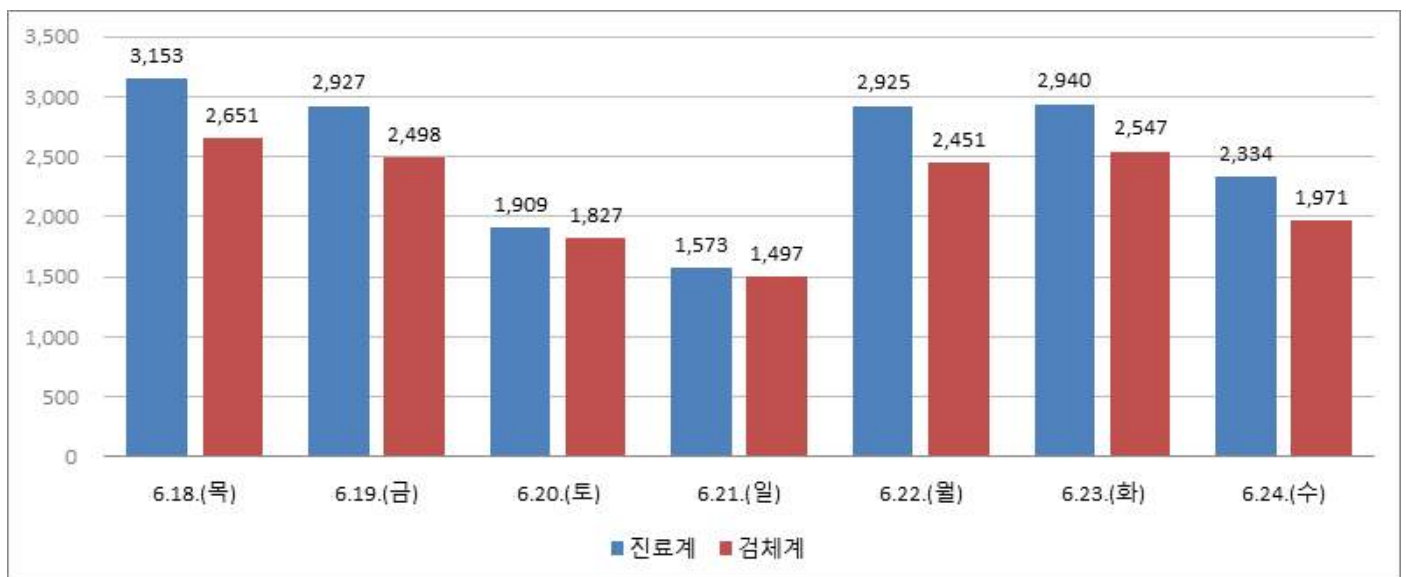
구분	6.24.(수)			누계			비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계	33	33	-	9,322	7,897	8	
이대서울병원	33	33	-	4,106	4,092	5	주말미운영
구 소방학교	-	-	-	1,814	1,379	2	운영중단
은평병원	-	-	-	896	782	0	
잠실주경기장	-	-	-	2,506	1,644	1	

※ 은평병원, 잠실주경기장 4.27.(월)부터 운영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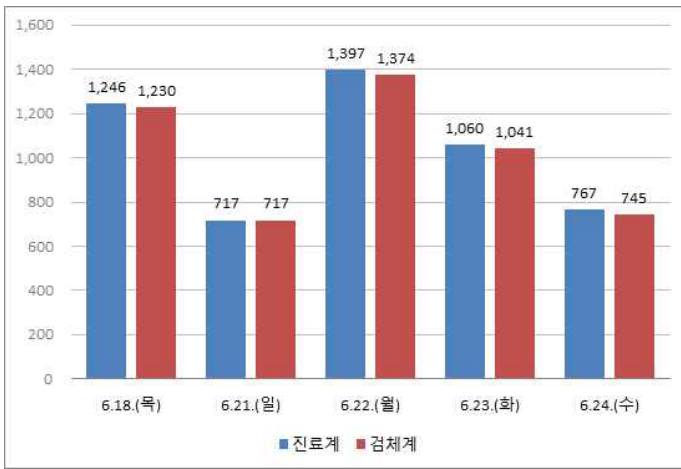
※ 구 소방학교 '20.5.8.(금)부터 운영 중단 ⇒ '20.5.15.(금) 운영 재개 ⇒ '20.5.22.(금) 운영 중단

● 일자별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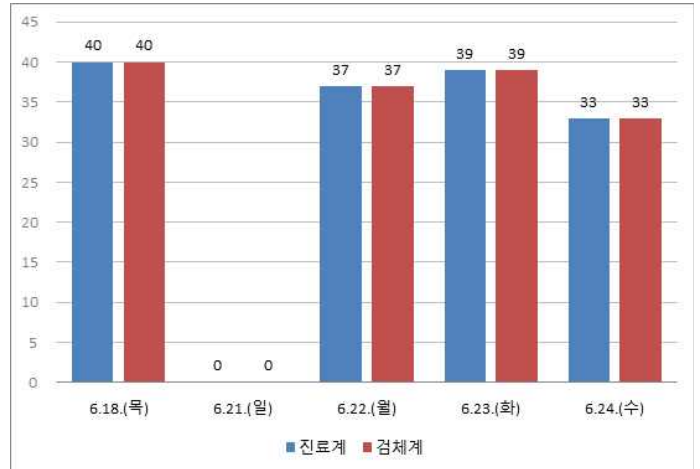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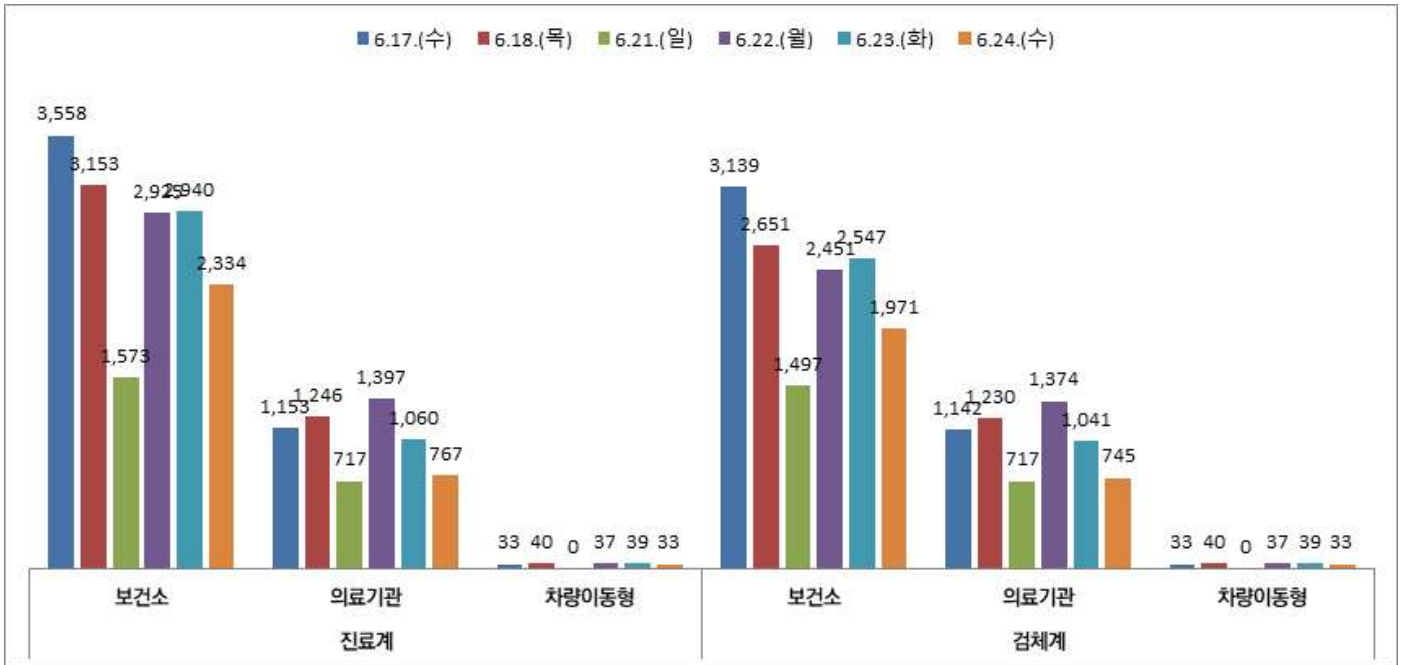
보건의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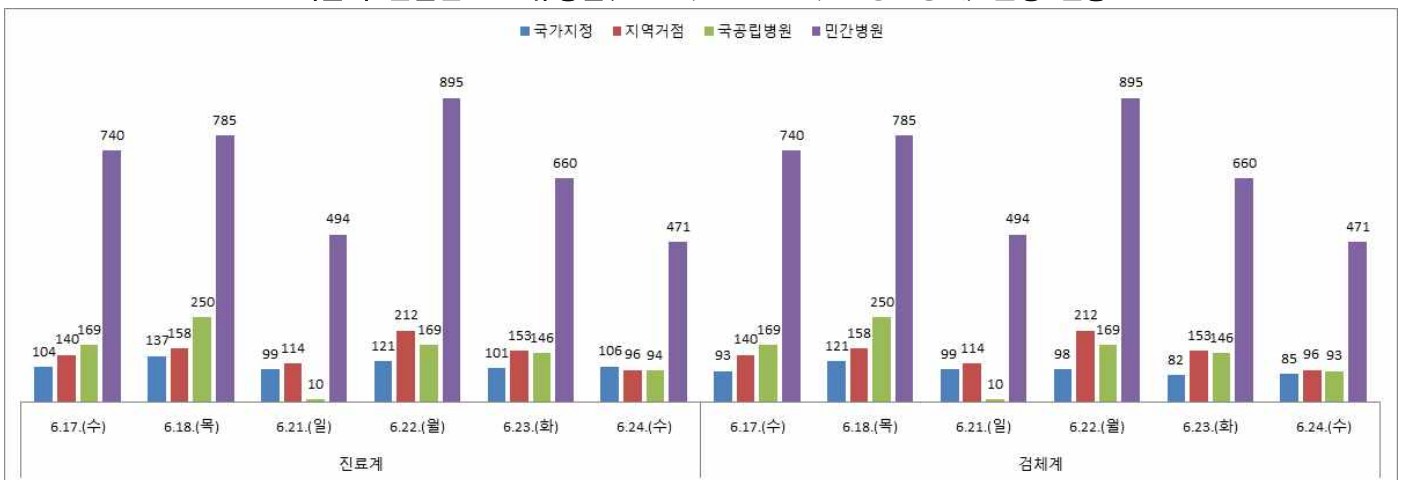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서울시 선별진료소 유형별(보건소, 의료기관, 차량이동식) 운영 현황



서울시 의료기관 유형별(국가지정, 지역거점, 국립병원, 민간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12,563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28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10,974명(전일 대비 44명 증가)으로 현재 1,307명이 격리 중임
- 사망자는 282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1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2.24%로 확인됨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6.25.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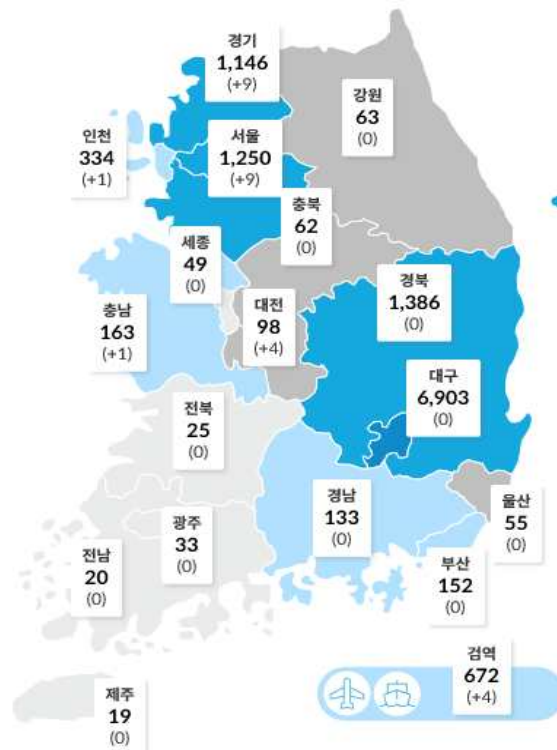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6.24.(수) 0시 기준	1,208,597	12,535	10,930	1,324	281	1,196,062	20,245	1,175,817
6.25.(목) 0시 기준	1,220,478	12,563	10,974	1,307	282	1,207,915	18,900	1,189,015
증감	11,881 (1.0%)	28 (0.2%)	44 (0.4%)	△17 (△1.3%)	1 (0.4%)	11,853 (1.0%)	△1,345 (△6.6%)	13,198 (1.1%)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8명의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1,307	482	7	25	151	1	53	6	2	346	8	5	17	5	2	11	8	3	175
격리 해제	10,974	761	142	6,689	182	32	44	48	47	777	52	57	146	20	18	1,321	125	16	497
사망	282	7	3	189	1	-	1	1	-	23	3	-	-	-	-	54	-	-	-
합계	12,563	1,250	152	6,903	334	33	98	55	49	1,146	63	62	163	25	20	1,386	133	19	672
증감	28	9	-	-	1	-	4	-	-	9	-	-	1	-	-	-	-	-	4
해외 유입 발생	5	1	-	-	-	-	-	-	-	-	-	-	-	-	-	-	-	-	4
지역 발생	23	8	-	-	1	-	4	-	-	9	-	-	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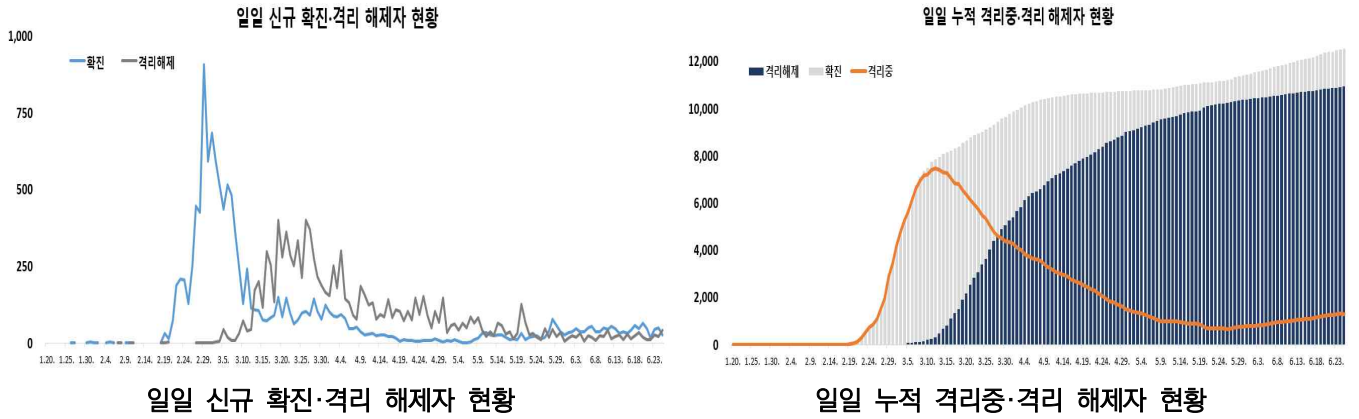
\* 6월 24일 0시부터 6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6.25. 00:00 기준)



- 금일 신규 확진자 28명 중 해외유입은 5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23명임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해외 유입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2020.6.25. 00:00 기준)

구분	합계	유입 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5	0	4	1	0	0	0	4	1	0	5
누계	1,496	19	368	506	584	18	1	672	824	1,198	298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유럽 1명, 중국 외 아시아 4명(파키스탄 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임
- \* 누적 확진자 12,563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1,496명(11.9%)으로 확인됨
- \*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6.21일) 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냉동어선)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음
- \*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분류되었던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것으로 재분류됨

-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2020.6.25. 12시 기준)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어제 3명이 확진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7명임. 이 모임은 방문판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집단감염사례와의 연관성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임
  - (지역) 서울 3명, 경기 3명, 울산 1명
- \* 경기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련하여 직원 1명 및 그의 가족 1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음. 현재 물류센터는 폐쇄한 상황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현재까지 접촉자 189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임
- \* 대전시 서구 방문판매 관련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 (구분) 방문자 35명, 접촉자 36명 / (지역) 대전 51명, 충남 9명, 서울 5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추가 전파 현황

구분	힐링랜드 23	자연건강힐링센터	가거라 통증아	홈닥터	가족 및 기타 직장	누계
확진자 수	7	4	4	21	35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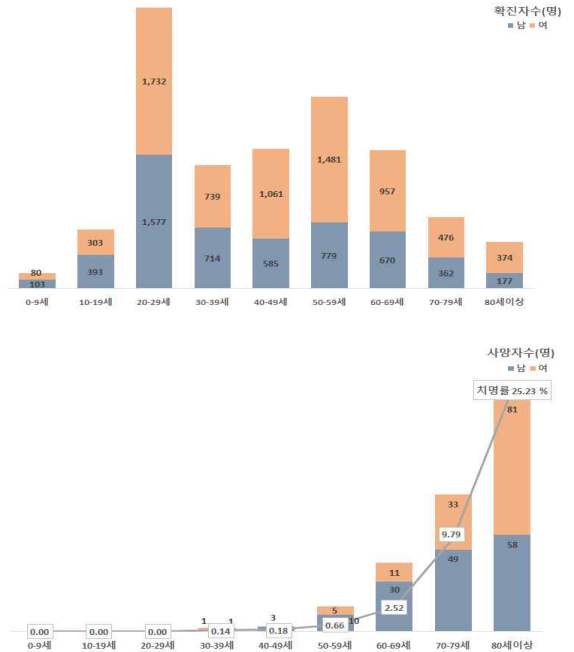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자동차 모임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초 증상 발생일은 6월 12일로 한강모임(6.15일) 이전(6.8일~)에 식당, 주점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감염은 한강 모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6.25.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2,563 (100.0)	282 (100.0)	2.24
성별	남성 5,360 (42.66)	151 (53.55)	2.82
	여성 7,203 (57.34)	131 (46.45)	1.82
연령	80세 이상 551 (4.39)	139 (49.29)	25.23
	70-79 838 (6.67)	82 (29.08)	9.79
	60-69 1,627 (12.95)	41 (14.54)	2.52
	50-59 2,260 (17.99)	15 (5.32)	0.66
	40-49 1,646 (13.10)	3 (1.06)	0.18
	30-39 1,453 (11.57)	2 (0.71)	0.14
	20-29 3,309 (26.34)	0 (0.00)	-
	10-19 696 (5.54)	0 (0.00)	-
	0-9 183 (1.46)	0 (0.00)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국내 확진자는 12,563명, 사망자는 282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2.24%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7,203명(57.34%)으로 남성 5,360명(42.66%)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151명(53.55%)으로 여성 131명(46.45%)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5,360명의 확진자 중 151명이 숨진 남성에서 2.82%로 여성 1.82%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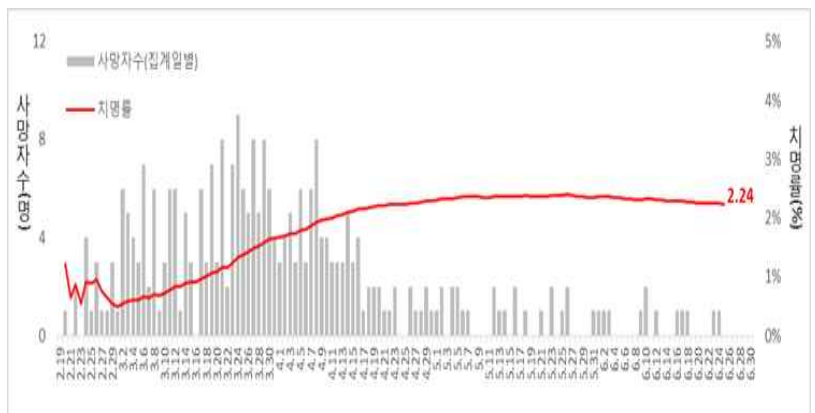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3,309명(26.3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2,260명(17.99%), 40대 1,646명(13.10%), 60대 1,627명(12.95%)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62명(92.91%)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551명의 확진자 중 139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25.23%, 70대가 9.79%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위중·중증환자 현황

전체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계	18	22	22	20	24	25	27	33	33	34	34	37	38	37
중증	6	11	10	10	15	15	16	21	17	17	17	18	17	19
위중	12	11	12	10	9	10	11	12	16	17	17	19	21	18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37	19 (100.0)	18 (100.0)
80세 이상	8	2 (10.5)	6 (33.3)
70-79세	11	6 (31.6)	5 (27.8)
60-69세	10	7 (36.8)	3 (16.7)
50-59세	5	1 (5.3)	4 (22.2)
40-49세	1	1 (5.3)	0 (0.0)
30-39세	2	2 (10.5)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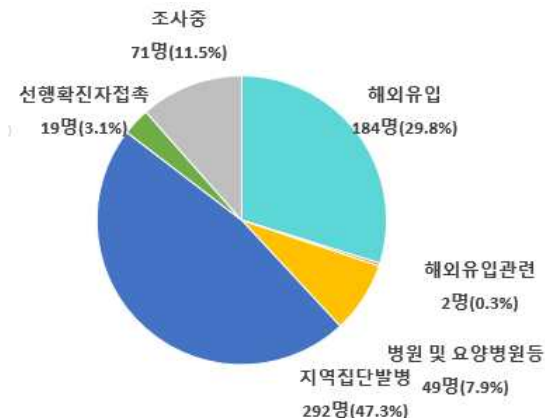


일별 사망자 현황

●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2020.6.25. 00:00 기준)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 구분	신규환자	(%)
계	617	(100.0)
해외유입	184	(29.8)
해외유입 관련	2	(0.3)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9	(7.9)
지역집단발병	292	(47.3)
선행 확진자 접촉	19	(3.1)
조사중	71	(11.5)



\* 6월 10일 0시부터 6월 24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현황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분포

\*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617명 중 지역집단발병이 292명(4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해외유입이 184명으로 29.8%의 비율을 차지함

지역별 주요 감염경로

지역	확진환자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련				
서울	1,250	294	857	8	754	26	69	99	9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6),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대전 방문판매 관련(5) 등	
부산	152	34	88	12	57	18	1	30	0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 등	
대구	6,903	37	6,121	4,511	689	917	4	745	0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 등	
인천	334	54	269	2	253	6	8	11	1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3) 등	
광주	33	16	17	9	1	1	6	0	0		
대전	98	15	72	2	62	8	0	11	4	대전방문판매 관련(48), 꿈꾸는교회 관련(4) 등	
울산	55	22	26	16	4	3	3	7	0		
세종	49	4	44	1	40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경기	1,146	229	840	29	686	62	63	77	9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복지자모임 관련(22),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행복한요양원 관련(10),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6) 군사인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 등	
강원	63	16	40	17	23	0	0	7	0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2) 등	
충북	62	10	42	6	27	7	2	10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 등	
충남	163	14	137	0	134	2	1	12	1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9),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3) 등	
전북	25	12	8	1	7	0	0	5	0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전남	20	12	5	1	1	2	1	3	0		
경북	1,386	19	1,234	566	478	190	0	133	0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등	
경남	133	23	90	32	50	6	2	20	0	거창교회 관련(10), 왕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3), 클럽 관련(2) 등	
제주	19	13	2	0	1	0	1	4	0		
검역	672	672	0	0	0	0	0	0	4		
합계	12,563 (%)	1,496 (11.9)	9,892 (78.7)	5,213 (41.5)	3,267 (26.0)	1,251 (10.0)	161 (1.3)	1,175 (9.4)	28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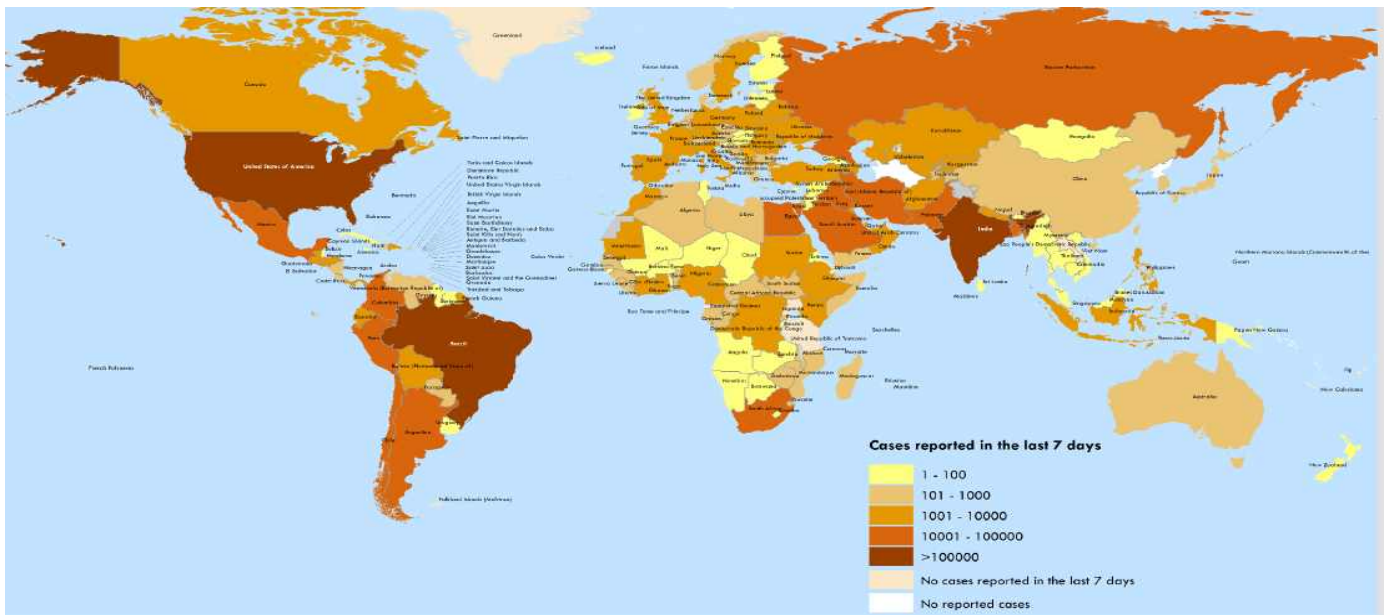
● 국외 발생 현황

- 6.25.까지 보고된 국외 총 확진자수는 **9,329,262명**으로 전일 대비 **1.81% 증가**(165,733명 신규환자)
- 이 중 **480,816명(5,269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5.15%(전일 5.19%)**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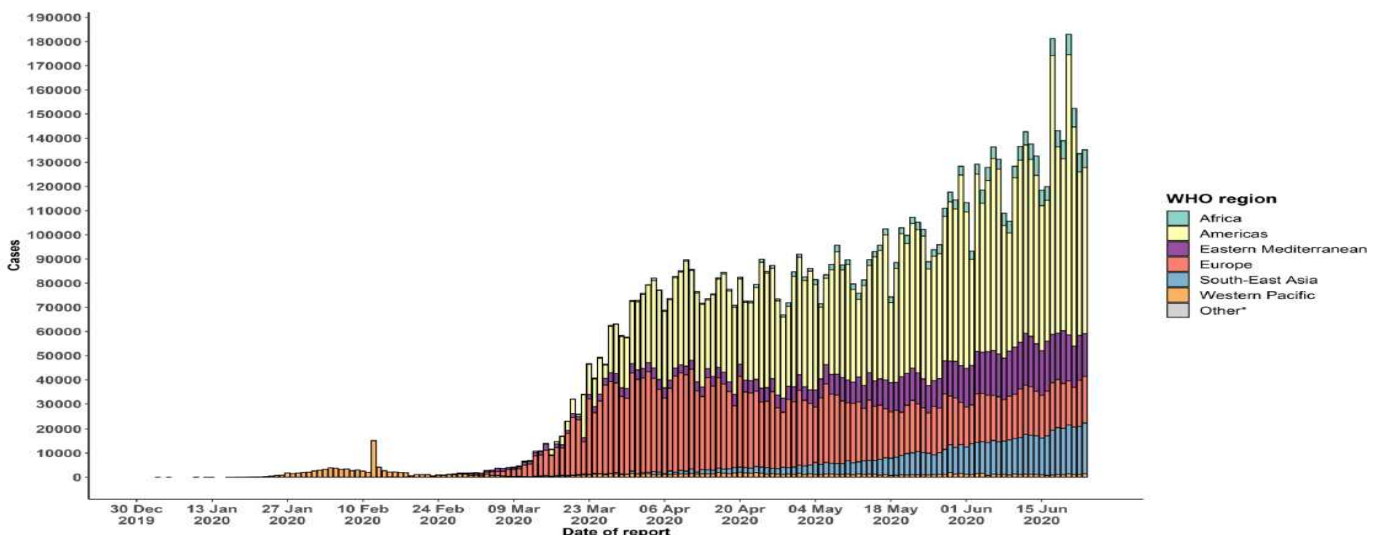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치명률(%)	증가율(%) *전일 대비
아시아	1,688,529	<b>18.10%</b>	38,767	8.06%	2.30%	<b>2.10%</b>
중동	760,103	8.15%	17,795	3.70%	2.34%	<b>1.91%</b>
아메리카	4,682,967	<b>50.20%</b>	232,945	<b>48.45%</b>	4.97%	<b>2.14%</b>
유럽	1,930,811	<b>20.70%</b>	185,749	<b>38.63%</b>	9.62%	0.55%
오세아니아	8,685	0.09%	124	0.03%	1.43%	0.22%
아프리카	240,892	2.58%	5,086	1.06%	2.11%	<b>3.16%</b>
기타*(섬, 영토 등)	17,275	0.19%	350	0.07%	2.03%	<b>3.58%</b>
전세계	9,329,262	100.0%	480,816	100.0%	5.15%	1.81%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기타 영토는 WHO situation report 기준, \*증가율=(당일확진자- 전일확진자)/전일확진자\*100

국외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6. 25. 0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가별 지난 7일간 확진자 발생현황 (2020. 6. 24.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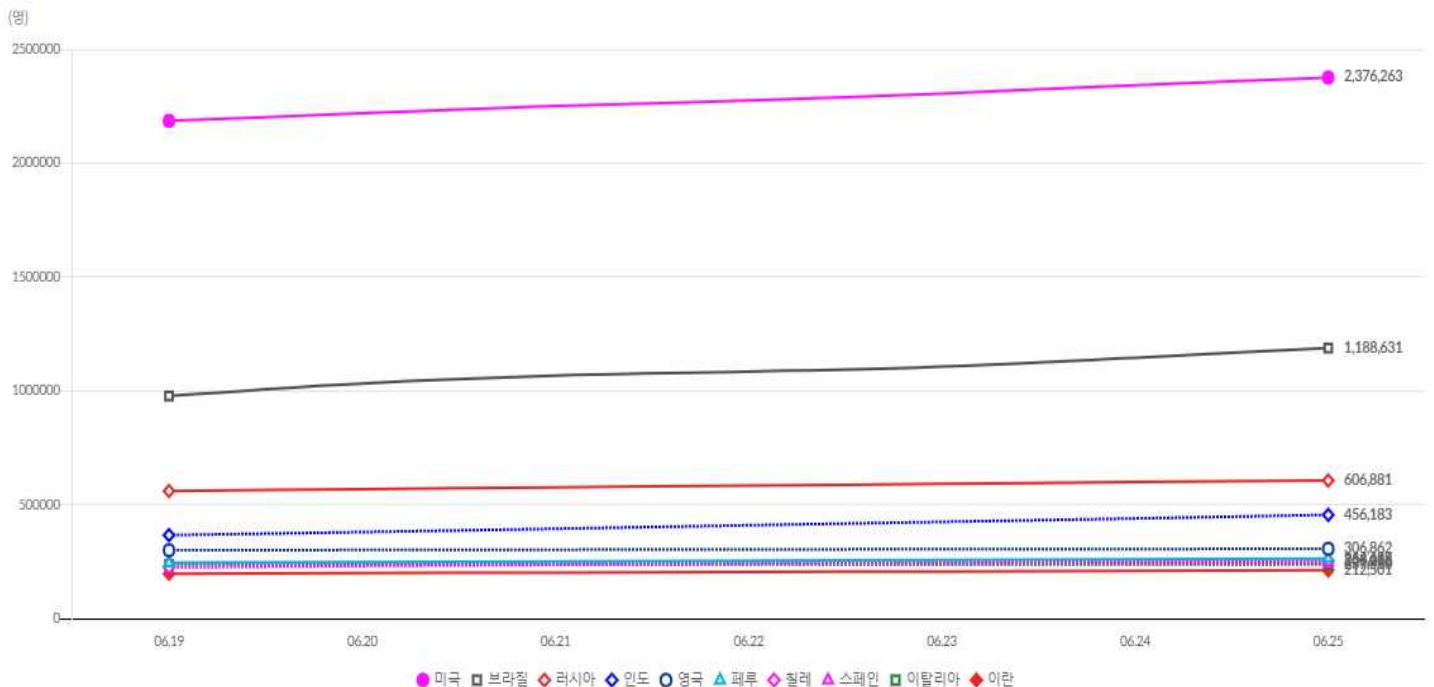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6. 24.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주요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6. 25. 0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치명률은 프랑스 18.43%, 벨기에 15.96%, 이탈리아 14.47%, 영국 14.04%, 네덜란드 12.24%, 스페인 11.46%, 캐나다 8.30%, 중국 5.55%, 스위스 5.36%, 일본 5.35%, 인도네시아 5.29%, 미국 5.13%, 이란 4.70%, 독일 4.63%, 필리핀 3.73%, 터키 2.62%, 한국 2.24%, 태국 1.84% 순으로 높았음
- 전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필리핀 3.73%, 인도네시아 2.24%, 미국 1.43%, 이란 1.21%, 터키 0.78%, 일본 0.48%, 캐나다 0.27%, 이탈리아 0.24%, 한국 0.22%, 영국 0.21%, 독일 0.20%, 네덜란드 0.16%, 벨기에 0.14%, 스위스 0.14%, 스페인 0.14%, 프랑스 0.05%, 태국 0.03%, 중국 0.02% 순으로 높았음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명)	전일 대비 확진자 증가율(%)	치명률(%)
	6.19.	6.20.	6.21.	6.22.	6.23.	6.24.	6.25.			
미국	2,110,791	2,219,119	2,251,205	2,275,319	2,306,247	2,342,739	2,376,263	121902	1.43	5.13
영국	296,857	301,815	303,110	304,331	305,289	306,210	306,862	43081	0.21	14.04
스페인	244,109	245,575	245,938	246,272	246,504	246,752	247,086	28327	0.14	11.46
이탈리아	237,290	238,011	238,275	238,499	238,720	238,833	239,410	34644	0.24	14.47
독일	187,682	200,262	202,584	204,952	207,525	209,970	212,501	9996	1.21	4.70
이란	189,876	190,299	190,670	191,272	191,768	192,480	192,871	8928	0.20	4.63
터키	179,831	185,245	186,493	187,685	188,685	190,165	191,657	5025	0.78	2.62
프랑스	157,372	159,452	160,093	160,377	160,750	161,267	161,348	29731	0.05	18.43
캐나다	99,147	100,629	101,019	101,337	101,637	101,963	102,242	8484	0.27	8.30
중국	83,221	83,352	83,378	83,396	83,418	83,430	83,449	4634	0.02	5.55
벨기에	60,100	60,478	60,550	60,550	60,550	60,810	60,898	9722	0.14	15.96
네덜란드	48,948	49,426	49,502	49,593	49,658	49,722	49,804	6097	0.16	12.24
인도네시아	38,277	42,762	43,803	45,029	45,891	46,845	47,896	2535	2.24	5.29
스위스	31,131	31,217	31,243	31,292	31,310	31,332	31,376	1682	0.14	5.36
필리핀	25,930	27,799	28,459	29,400	30,052	30,682	31,825	1186	3.73	3.73
일본	17,587	17,799	17,864	17,916	17,968	18,024	18,110	968	0.48	5.35
한국	12,155	12,373	12,421	12,438	12,484	12,535	12,563	282	0.22	2.24
태국	3,135	3,146	3,147	3,148	3,151	3,156	3,157	58	0.03	1.84
베트남	334	342	349	349	349	349	349	0	0.00	0.00
<b>전세계 총환자수</b>	<b>8,394,321</b>	<b>8,568,664</b>	<b>8,727,986</b>	<b>8,859,584</b>	<b>8,999,280</b>	<b>9,163,529</b>	<b>9,329,262</b>			
<b>전세계 총사망자수</b>	<b>452,175</b>	<b>458,320</b>	<b>462,737</b>	<b>466,700</b>	<b>470,411</b>	<b>475,547</b>	<b>480,816</b>		<b>1.81%</b>	<b>5.15%</b>

주요 발생국가 주간 동향



● 해외유입 현황 (2020. 6. 25. 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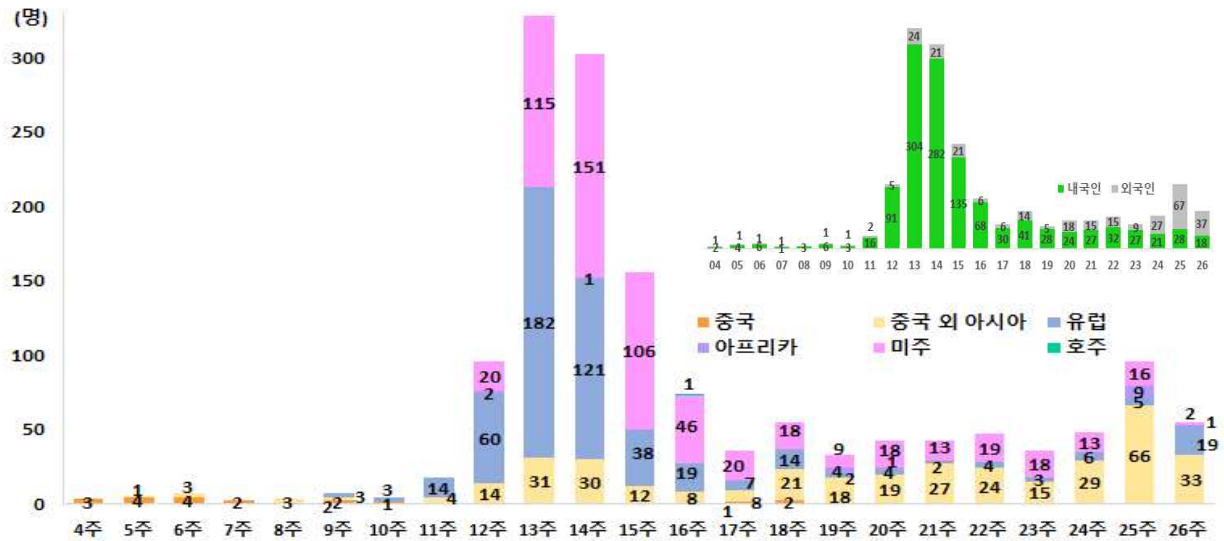
- 어제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5명 발생, 추정 유입국가는 유럽 1명, 중국 외 아시아 4명(파키스탄 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임

해외유입 현황 6.25.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5	0	4	1	0	0	0	4	1	0
누계	1,496	19	368	506	584	18	1	672	824	1,198
		(1.3%)	(24.6%)	(33.8%)	(39.0%)	(1.2%)	(0.1%)	(44.9%)	(55.1%)	(80.1%)
확진자수(명)		여행국								
중국		-								
중국외아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유럽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벨라루스 등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호주		호주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해외유입 추정현황(6.25. 0시 기준)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서울시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 (4.1일 이후)



## 2. 정책 동향

###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장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사항

#####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현황(6.24.기준) : 총 10,289명 (해외 8,812 국내 1,477)

구분		6.18	6.19	6.20	6.21	6.22	6.23	6.24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9,539	9,577	9,173	8,926	8,873	8,983	8,812
	신규	534	841	513	538	838	728	449
	해제	791	803	917	785	891	618	620
국내	자가격리자	2,129	2,224	2,274	2,181	2,047	1,709	1,477

- 자치구별 무단이탈자 현황(6.24.기준) : 총 129명(해외 86, 국내 43)

\* 신고 29건, 불시점검 52건, 모니터링 36건, 기타(자진신고 등) 12건 / 안심밴드 :총 39명(누계)

- 안전보호앱 설치율 93.2%(해외입국자 94%, 국내 88%) \* 미설치: 고령, 어린이, 거부 등

- 임시생활시설 운영(6.24.기준) : 총 3개소 561실 중 327(+2)명 입소 중

\* 호텔스카이파크 동대문1호점 254실 중 160실, 더리센트호텔 207실 중 167실 입소

#####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 등 사업장에 대한 점검]

- 물류시설 방역 이행상황 점검

\* (점검대상) 30개소(물류단지 1, 화물터미널 2, 물류창고 27) 사업주, 종사자 및 외부이용자

물류단지(1)	동남권 유통단지(물류창고 6개동, 26개사 입주)
화물터미널(2)	한국화물터미널(택배 분류장 2개소), 서부트럭터미널(일반 창고 2동)
물류창고(27)	택배·보관창고업, 택배업, 보관창고업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실태점검 ('20.6.24~)

·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설치, 소독 대장 관리, 단기근로자 총별 근무대장 작성, 위생물품 비치 등

\* (행정조치) 최초 적발 시 방역미비사항에 대한 경고·시정 조치

· 시정조치 이후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명령 실시

- 특수판매분야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점검

\* (점 검 반) 2개소 8명 (누계 1,915명, 서울시 812명, 자치구 1,103명)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명령, 집합금지명령 및 실태점검('20.6.8~)

\* (점검대상) 5,962개소(다단계판매 111, 후원방문판매 580, 방문판매 5,271)

\* (점검결과) 행정명령 3,679, 행정지도 1,673, 고발 4

· (6.23.) 10개 업체 점검, 집합금지명령 3개소(다단계1, 후원방판 2)

※ 특별기동 점검반 점검(~6.23) : 27개소(행정지도 4건, 고발 1건)

※ 특수판매업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시민제보(~6.23) 2건

- 유흥주점, 유사유흥업소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 점검

\* (점 검 반) 민·관 합동 61반 121명(공무원 88명, 경찰 14명, 기타 19명)

\* (점검실적)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위반 40개소(고발 38, 고발예정 2)

· (6.24.) 유흥시설 87개소(준수), 고위험시설 647개소(준수 576, 휴업 71), 음식점 390개소(준수)

구분 (개소)	유흥시설			음식점		고위험시설			
	감성	클럽	콜라텍	일반	휴게	헌팅포차	단란주점	룸싸롱	뷔페
점검대상	90	41	60	121,247	35,682	26	2,526	1,883	-
점	44	18	19	302	88	15	285	328	19
검	2,411	993	405	20,163	4,996	506	12,271	3,291	19

● 서울시,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덴탈마스크 지원

- 서울시는 최근 방문판매업체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힘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20.5.31. 기준) 152만 2,550명이 해당되며, 1인당 5매씩 총 765만개의 마스크가 지원됨
  - \* 최근 더워진 날씨로 덴탈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가 해외수입으로 미리 확보해둔 덴탈마스크를 지원함. 시는 수입 마스크의 검증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능시험을 거쳤으며 분진포집효율(입자 차단 성능)이 KF기준 60~70% 수준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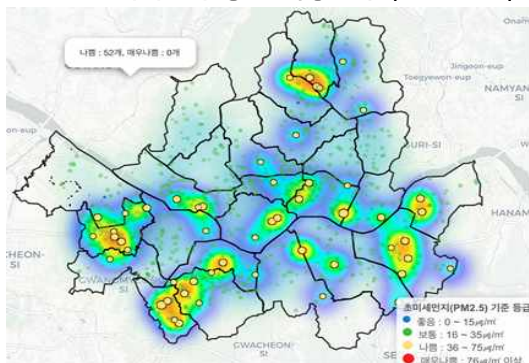


- 마스크는 7월 1일까지 각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 통반장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전달할 예정임
- 한편 시는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계층 중심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요양시설복지관(필터교체형 마스크 41만7천개), 의무경찰사회복지요원(덴탈 마스크 10만개), 화물운수 노동자(보건용 마스크 18만개), 의료기관(보건용 마스크 6만개),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보건용 마스크 2만개), 콜센터 근로자(보건용 마스크 2만개)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했음
- 서울시는 “최근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마스크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각종 행사와 모임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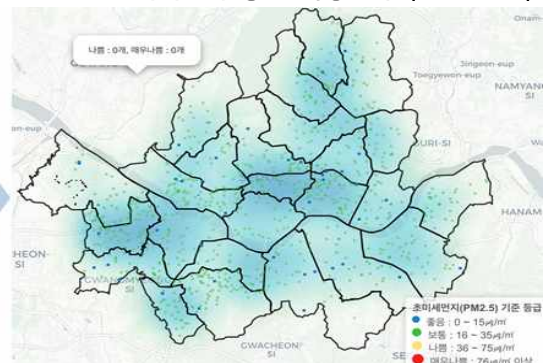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 발생 이후 도시현상' 850개 IoT센서-교통데이터 융합분석

- 시 전역 850개소에 설치된 S-DoT 데이터와 교통데이터를 이용해 도시 곳곳의 지역별 대기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됨
  - \*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경제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공장, 자동차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줄어들어 지구 곳곳의 대기환경이 개선되었으며, 2020년 1~3월 서울시 대기질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점을 IoT 도시데이터 센서(S-DoT, Smart Seoul Data of Things)를 통해 확인됨
  - \* S-DoT(Smart Seoul Data of Things)는 다양한 도시현상을 확인하여 데이터기반 스마트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IoT 도시데이터 센서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10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 자체제작 복합센서임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년 3월, 도심지역 교통량은 전년 동월 대비 84.23%로 크게 감소하였고, '20년 1월 52개소 S-DoT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측정됐던 현상 역시 모두 사라짐
  - \* '20년 3월 서울시 전체 교통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1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도심지역 교통량은 84.23%로 감소하였음.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20년 1월)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 인근에 설치된 S-DoT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주로 측정되던 현상 역시 교통체증이 사라진 3월에는 모두 '보통' 등급으로 개선되었음

S-DoT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년 1월)



S-DoT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년 3월)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의 확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교통량과 교통체증이 줄어들면서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됨
- 대기오염 측정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도시 곳곳의 대기환경을 S-DoT 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촘촘히 살펴본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 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대기질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서울시 각 자치구 별로 설치된 25개소 대기오염 측정망의 2020년 1월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등급이었지만, 같은 기간 도시 곳곳 S-DoT에서 측정된 농도는 850개소 중 52개소(청담대교 북단, 화곡사거리, 이태원역 인근 지역 등)가 '나쁨' 등급이었음

S-DoT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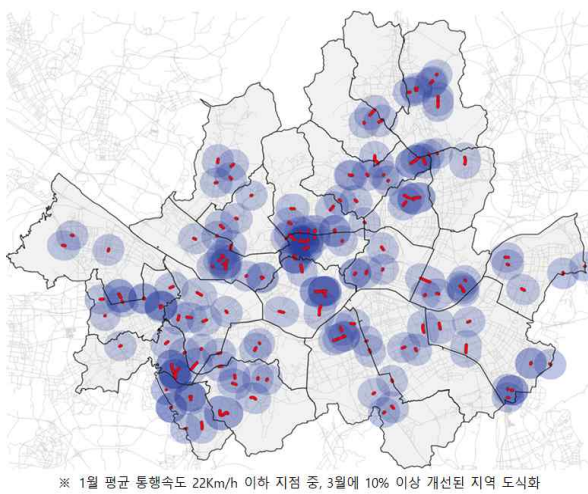
등급	(단위 : 개소)		
	1월	2월	3월
좋음	7	29	25
보통	791	820	825
나쁨	52	1	0

S-DoT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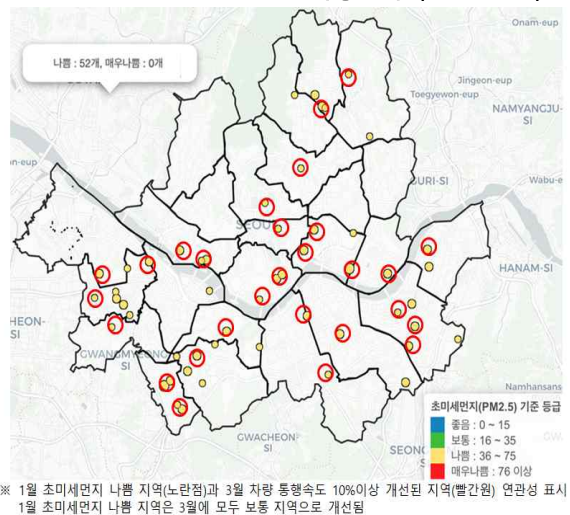
등급	(단위 : 개소)		
	1월	2월	3월
좋음	30	56	42
보통	818	794	808
나쁨	2	0	0

- \* '나쁨' 등급으로 측정된 52개 장소의 특징을 유동인구 데이터와 서울시 145개 지점에서 수집되는 교통데이터(TOPIS - 교통량, 차량 통행속도)를 융합하여 분석한 결과, 유독 차량통행속도 22Km/h 이하의 교통체증을 나타내는 구간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S-DoT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로 '나쁨' 등급이 측정되었음

TOPIS 교통정체구간 ('20년 1월)



S-DoT 초미세먼지 나쁨 측정지역 ('20년 1월)



- \*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등급이었고, S-DoT 또한 '보통' 등급으로 측정되었음
- \* 1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등급으로 측정된 52개 장소가 '보통' 등급으로 개선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량, 차량 통행속도 데이터와 융합 분석한 결과, 교통량은 2019년 3월 대비 90.1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특히 도심지역은 84.23%로 감소), 차량통행속도는 2020년 1월 대비 3월엔 10%p 이상 증가되었음
- \*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교통량 감소와 더불어 교통체증이 줄어들면서 주변 지역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됨

서울시 3월 교통량 비교 (2019 vs 2020)

구분	(단위 : 대)					
	도심	시계	교량	간선도로	도시고속도로	합계
2019년 3월 교통량	21,269	51,095	40,149	63,825	29,757	206,094
2020년 3월 교통량	17,915	47,149	35,619	57,285	27,901	185,868
변화비교(2020/2019)	84.23%	92.28%	88.72%	89.75%	93.76%	90.19%

- \* 또한,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S-DoT에서는 낮 시간대(공사시간)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가 저녁시간 이후로 낮아지는 현상이 관측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S-DoT를 통해 수집된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하루 중 출근 시간대(7~10시)가 다른 시간대 대비 20% 가량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현상이 확인되었고, 낮 시간대(14~16시)와 밤 시간대(23~2시)는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음
- \* S-DoT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센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2등급)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배출원의 주변 영향 인지, 미세먼지 지도제작 등 미세먼지 농도의 단계적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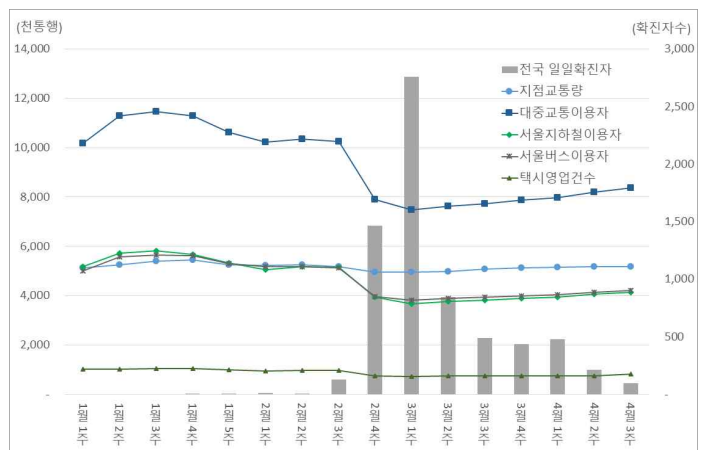
-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확인과 데이터기반 도시정책 수립을 목표로 2019년 도시 곳곳 850개소에 S-DoT을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시 전역에 설치된 IoT센서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분석하는 'IoT 도시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202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 S-DoT은 10종(미세먼자초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의 데이터를 2분마다 수집하고 있음. 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2,500개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임
  - \* 'IoT 도시데이터 플랫폼'에 지금까지 누적된('18.12~'20.5) 데이터는 총 2억 7,245만 건임. 10종의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 가능한 S-DoT 등 약 1만여 개 IoT 센서를 통해 하루 평균 129만 건의 데이터가 꾸준히 수집되고 있음
  - \* 수집된 데이터는 민간학이 공유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서울시는 공공뿐 아니라 일반 시민, 기업, 연구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깃허브(Github)'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도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도시 곳곳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IoT 센서는 도시를 촘촘히 확인하는 최적의 수단이자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며, "서울시 곳곳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IoT센서 데이터와 민·관·학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라며 계획을 밝힘

● 서울기술연구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 32% 감소, 공유교통 약 24% 증가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서울 시내 대중교통 이용은 약 32% 감소한 반면 공유교통은 약 2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1~4월 서울 시내교통 통행 변화추이를 분석한 '코로나19로 인한 통행 변화,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서울 교통정책방향' 연구 결과를 25일(목) 발표함
  - \*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서울 시내 교통수단별 통행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서울 도시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도로교통 소폭(8.4%) 감소, 대중교통 중 지하철(35.1%) 감소 두드러져]

- 우선 서울 시내 통행은 4월까지 도로교통, 대중교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2월 4주~3월 1주 동안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음
- 도로교통량은 2월 4주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3월 1주에는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20년 1월과 비교해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서울 시내 77개 교통량 조사지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일은 전년 동월 기준 약 5,415천대/일 → 4,959천대/일로 감소했으며 도로 위계별로는 평일 도심부 도로와 한강교량의 교통량 감소율이 전년 대비 각각 -14.4%, -12.1%로 가장 많이 감소해 시 외곽보다 도심의 통행 감소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서울 도시교통 이용자수 추이(1월~4월)

- 도로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 시내 전체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26.4km/h로 전년도 동월 (24.8km/h) 대비 약 6.5% 증가하였음
  - \* 올해 2월 4주 도심부 도로 통행속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3.9% 증가했으며, 특히 업무지구가 집중된 중구·종로·구용산·구서초·구강남구 등의 퇴근시간대 속도 증가율이 두드러져 업무와 통근통행 패턴의 변화가 도로 통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함
- 도로교통량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수는 각각 35.1%, 27.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로교통량과 마찬가지로 전국 확진자가 급증한 2월 4주~3월 1주 감소율이 가장 컸음
  - \* 지하철은 도심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1호선(-44.6%) > 4호선(-42.5%) > 3호선(-42.2%) > 9호선(-41.6%) 순으로 이용자 감소가 눈에 띄었으며, 가장 감소인원이 많은 역사는 2호선 강남역(99천명/일 감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역사는 2호선 한양대역(-70.5% 감소)으로 나타났음
  - \* 버스의 경우,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환버스의 이용자 감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54.2%), 마을버스(-40.6%) > 지선버스(-37.6%) > 광역버스(-37.5%) > 간선버스(-35.1%) > 심야버스(-22.6%) 순으로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름이 23.3%, 나눔카 29.5% 증가… 단거리 대체통행수단 가능성 ↑]

- 반면 따름이, 나눔카 등 공유교통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3.3%, 29.5% 증가한 추세를 나타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코로나 발생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시 따름이의 경우 '15년 정식 운영 시행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20년 1~4월까지의 따름이 대여건수는 5,247천 건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약 57% 증가하였고 2월4주 대여건수 증가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 코로나 유행보다는 날씨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 온라인 개학·개강 등으로 통학통행이 감소된 점, 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방식으로 인해 10~30대가 주 이용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따름이 이용은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됨
  - \* 또 다른 교통수단인 나눔카 역시 따름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 발생기간중 특별히 감소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13년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있던 나눔카는 코로나 19 감염이 절정에 달했던 3월1주~4월1주에도 전년 동월 대비 125~131%까지 이용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역시 20~30대가 전체 가입자수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나눔카는 자가차량 미보유 통행자에게 있어 대중교통의 선택대안으로 인식된 것으로 예상됨

## [강화된 교통수요 분산정책과 철저한 방역, 중장기정책 :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공유교통을 위한 도로구조 개편방안 필요]

-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봄
-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대중교통 인프라 속에서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이 절실한 동시에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 짧은 시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우선 대중교통 혼잡도 관리수준을 기존 혼잡도 150%에서 100~130%로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시 실제 혼잡도가 이를 넘지 않도록 재택,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기업체의 비대면 업무방식 도입을 의무화하여 시공간적으로 통행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유교통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서비스, 버스 자율주행 차량 도입 등 비대면식 언택트 교통 플랫폼의 조기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중장기 정책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 위생까지 고려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방안과, 금번 새롭게 가능성을 확인한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구조 개편방안을 제안하였음
  - \* 현재 지하철의 혼잡도 기준이 혼잡도 100%일 경우 0.33㎡/명이며 실제 증차기준인 혼잡도 150%를 기준으로 할 때 0.22㎡/명이 적용됨. 코로나 감염 방지는 물론 약 20여 년 간 변화된 서울시민 체격 변화 고려시 개인 위생거리를 고려한 새로운 혼잡도 기준 정립을 제안하였음
  - \* 또한 도로구조의 개편을 통해 보행공간과 함께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전용차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인프라 조성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되 이번에 새롭게 인식된 공유교통의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며 “높아진 위생수준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변화된 교통 전략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힘

## ● 서울시-건보노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방역물품 기부 협약

-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조합 추모사업회는 오는 25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장에서「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함
- 건보노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면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긴급대책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지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에서 구매한 1억5천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노조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사망조합원 유족 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건보노조는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지역 공공의료시설 보건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방역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임
-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황병래 건보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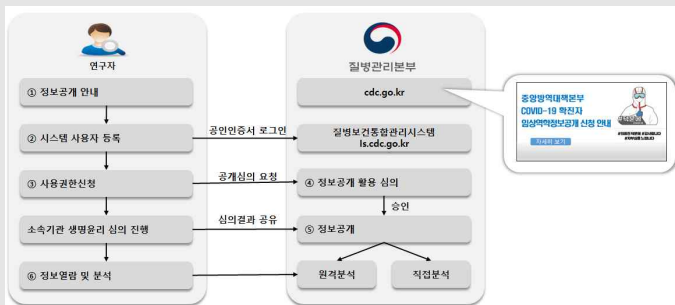
- 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예정임
- 한편 올해 초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출시 4개월 만에 금년 목표액인 2천억원 전액 완판되었으며,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발행한 500억 원도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됨
  -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일선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힘

● 근거기반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 4.30일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자 중 격리해제자 대상
-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 제작 됨
  - \* 임상역학정보 내용 :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임
  - \* 1차 공개 신청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6.26.(금)부터
  - \*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이용(원격 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25채널(서울, 충북 오송/추후 안내 예정))
  - \* 순차적으로 확대 공개(7월~) :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정보(추가 기저질환정보, 의약품 사용내역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신청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절차



- ① (신청안내) 질병관리본부(cdc.go.kr) 홈페이지 배너
  - 정보 공개 신청 안내(공개심의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1차 공개 예정 자료의 항목 및 변수명 등(데이터스키마)
- ②~③ (정보공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회원 가입 및 권한 신청(코로나19 임상역학정보 활용 신청 시스템)
  - 권한 승인 후 코로나19정보공개 신청 시스템을 이용, '코로나19 정보 공개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자료 활용 시작 전 연구자 해당 기관 IRB 심의: 해당 내용(공개된 데이터스키마)을 기초로 연구자 해당 기관 IRB 심의
- ④ (정보공개 활용 심의)「코로나 19 환자정보활용위원회」심의
- ⑤~⑥ (정보 공개 및 열람·분석)
  - 원격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분석 25채널(충북 오송 및 서울 용산)
    - \* 통계분석 프로그램 지원(SAS, R 등)
    - \* 프린트 스크린, 외부 저장장비 및 외부 메일 사용 금지
    - \* 분석결과는 연구자 메일로 관리자 직접 송부

공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개요

○ 주요내용: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 정보 등 7개 항목

- 1.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2. 신체 지수, 3.초기 검진 소견, 4.입원시 임상 소견, 5.동반질환 및 과거력, 6.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7.일반 혈액 검사 결과

항목(분류)	세부 변수
1. 확진자 기초자료	연령대, 성별, 사망/격리해제 여부, 신고일부터 사망/격리해제일까지의 기간, 임신 여부(임신 주수)
2. 신체지수	키, 몸무게
3. 초기 검진 소견	수축기/이완기 혈압, 심박수, 체온
4. 입원시 임상 소견	발열(History of fever, $\geq 37.5^{\circ}\text{C}$ ), 기침(Cough), 객담(Sputum production), 인후염(Sore throat), 콧물(Runny nose/Rhinorrhea), 근육통(Muscle aches/Myalgia), 피로/권태(Fatigue/Malaise),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Dyspnea), 두통(Headache), 의식장애(Altered consciousness/ confusion), 구토/오심(Vomiting/Nausea), 설사(Diarrhea) 여부
5. 동반질환 및 과거력	당뇨, 고혈압, 심부전, 만성 심장 질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암, 만성 간질환, 류마티스/자가면역질환, 치매 등
6. 사용병상 및 임상중등도	사용병상(중환자실, 일반병실), 임상 중등도(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산소 치료 불필요, 비관 산소 치료, 산소 마스크, 비침습 인공호흡기, 침습 인공호흡기, 다기관 손상/에크모, 사망)
7. 일반혈액 검사	Hgb(hemoglobin), Hct(hematocrit), Lymphocyte, PLT(platelets), WBC(whole blood c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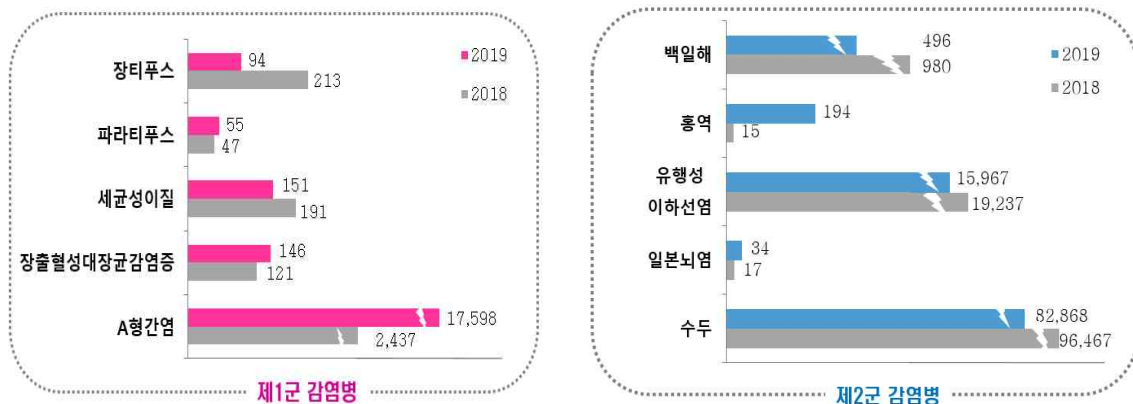
● 첫 한국형 치과감염관리 지침 개발

-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힘
- 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는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되었음
  - \*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음
  - \*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 및 절차, 환자들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하여 치과 종사자에게 적합한 감염관리 지침이 되도록 노력함
-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향후 보건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규모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치과병원 인증 평가의 감염관리 분야 개선을 통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국내 감염병 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지속 증가 추세

-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2019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밝힘
-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0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59종 중 41종의 감염병이 신고되었고, 18종은 신고 건이 없었음
- 2019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59,496명(인구 10만 명당 308명)으로 2018년 170,499명(인구 10만 명당 329명) 대비 6.5% 감소하였음
  - \* 신고 건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A형간염, 홍역, 레지오넬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뎅기열 등이며, 장티푸스,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성홍열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2019년 감염병 군별 주요 감염병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제1군감염병은 전년 대비 499.3% 증가함('18년 3,011명 → '19년 18,045명)
  - \* 콜레라는 인도에서 유입된 1건이 신고('18년 2명 → '19년 1명)되었음
  - \*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은 국외유입 사례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55.9%('18년 213명 → '19년 94명), 20.9%('18년 191명 → '19년 151명) 감소하였고, 국외유입 사례의 비율은 장티푸스 46.8%(44명), 세균성이질 70.2%(106명)였음
  - \* A형간염은 오염된 조개젓 섭취로 인하여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하였고('18년 2,437명 → '19년 17,598명), 연령별로는 20~40대가 86.6%(15,244명)였으며, 사망 사례도 10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18년 2명 → '19년 10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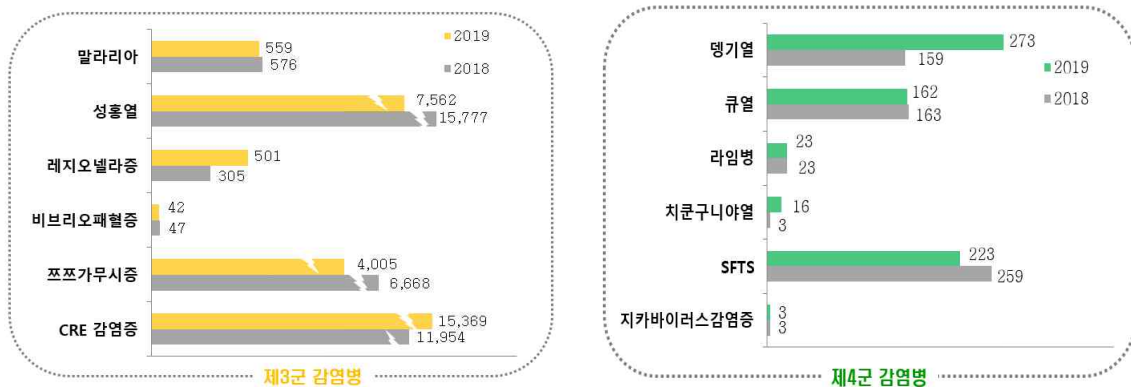
제1군 및 제2군감염병 신고건수 비교(2018년, 2019년)



- 제2군감염병은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음('18년 117,811명 → '19년 100,513명)

- \* 홍역은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외유입 사례 증가와 다수의 집단 발생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18년 15명 → '19년 194명)하였고, 총 194명의 환자 중 국외유입 86명(베트남 47명, 필리핀 16명, 태국 8명 등), 국외유입 연관 104명, 감염원 확인 불가 사례 4명으로 확인되었음
  - \* 백일해와 수두는 전년 대비 각각 49.4%('18년 980명 → '19년 496명), 14.1%('18년 96,467명 → '19년 82,868명) 감소하였고, 수두는 집단생활을 하는 0~12세(89%, 73,765명)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 \* 유행성이하선염은 전년 대비 17% 감소('18년 19,237명 → '19년 15,967명)하였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중이 증가('14년 25% → '19년 68%)하였음
  - \* 일본뇌염은 전년 대비 2배 발생('18년 17명 → '19년 34명)하였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88.2%(3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제3군감염병은 전년 대비 18.0% 감소하였음('18년 49,064명 → '19년 40,229명)
- \* 말라리아는 2007년 이후로 감소추세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0% 감소('18년 576명 → '19년 559명)하였음
  - \* 성홍열은 전년 대비 52.1% 감소('18년 15,777명 → '19년 7,562명)하였고, 연령별로는 3~6세가 69.4%(5,246명)를 차지하였음
  - \* 레지오넬라증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전년 대비 64.3% 증가('18년 305명 → '19년 501명)하였고, 50세 이상이 91.6%(459명)를 차지하였음
  - \* 프프가무시증은 2009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의사환자 신고기준이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39.9% 감소('18년 6,668명 → '19년 4,005명)하였음 ※ 프프가무시증 의사환자 신고기준에서 의심환자(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제외('19.4.30.)
  - \* C형간염은 전수감시체계로 전환('17.6.3.)된 이후, 2018년 10,811명, 2019년 9,810명이 신고 되었음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은 전수감시체계로 전환('17.6.3.)된 이후, 신고건수가 증가('18년 11,954명 → '19년 15,369명)하고 있음
  - \* 결핵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9% 감소('18년 26,433명 → '19년 23,821명)하여 최근 10년 내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제3군 및 제4군감염병 신고건수 비교(2018년, 2019년)



- 제4군감염병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음('18년 613명 → '19년 709명)
  - \* 뎅기열은 전년 대비 71.7% 증가('18년 159명 → '19년 273명)하였고, 모두 국외 유입 사례로 주로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여행객에서 신고되었음
  - \* 규열은 전년('18년 163명)과 비슷한 수준인 162명으로 충북(30명), 전남(23명), 충남(20명), 경기(19명) 순으로 신고가 많았음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 정점(272명)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고, 2019년에 전년 대비 13.9% 감소('18년 259명 → '19년 223명)하였음
  - \* 보툴리눔독소증은 식품 매개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보고(2003년 3명, 2004년 4명, 2014년 1명)되다가 2019년에는 영아에서 보툴리눔독소증 1건이 발생하였음
  - \* 치쿤구니야열은 16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18년 3명 → '19년 16명)하였으며, 모두 국외유입 사례였음
-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600명 내외로 신고되고 있었으나, 2019년에 755명이 신고되어 전년(597명) 대비 26.5% 증가하였음
- 2019년에 신고 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36%, 273명), 세균성이질(14%, 106명), 홍역(11%, 86명), 말라리아(10%, 74명), 장티푸스(6%, 44명) 등 순임
-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전체의 약 86%(650명)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우간다, 나이지리아 등)이 약 9%(67명)를 차지하였음

2019년 국외유입 감염병 유입국가 현황

유입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외 대륙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기타			
신고수 (%)	177 (23%)	149 (20%)	58 (8%)	55 (7%)	37 (5%)	33 (4%)	24 (3%)	23 (3%)	94 (12%)	67 (9%)	19 (3%)	19 (3%)
주요 유입 감염병	덴기열 세균성0질 홍역	덴기열 홍역 파티푸스 장출혈성대장 균감염증	덴기열 홍역 차쿤냐열 유비저 자카바이러스 감염증	덴기열 세균성0질 A형간염 콜레라	덴기열 세균성0질 장티푸스	덴기열 세균성0질 파티푸스	덴기열 A형간염	덴기열 말라리아	A형간염 C형간염 차쿤냐열	말라리아 A형간염 세균성0질	C형간염 라임병 홍역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는 2019년 402명으로 전년('18년 383명) 대비 5% 증가 하였음
- 2019년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카바페뎀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03명), 폐렴구균(75명), 중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41명), 레지오넬라증(21명), 비브리오패혈증(14명), A형간염(10명) 등임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함
- 아울러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8월 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 개요(6.25. 0시 기준, 282명)

- 2.19일 첫 사망 사례 이후 6.25일 0시까지 총 282명의 사망자 발생
  - 전국 확진환자 총 12,563명 대비 치명률 2.24%

□ 사망자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남자 151명, 여자 131명
- (연령별) 평균 77.6세(35세~98세)로 65세 이상 86.9%(245명)
- (지역별) 대구 189명(67.0%), 경북 54명(19.1%), 경기 22명(7.8%), 서울 5명, 부산 3명, 강원 3명, 인천 2명, 울산 1명, 대전 1명
- (치명률) (성별) 남자 2.83%, 여자 1.82%; (연령별) 30대 0.14%, 40대 0.18%, 50대 0.67%, 60대 2.53%, 70대 9.81%, 80대 이상 25.23%
- (기저질환) 있음 276명, 없음 5명, 조사중 1명
  - 기저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 76.2%,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7.3%, 치매 등 정신질환 44.5%, 만성 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2.4% 등(중복 가능)
  - 기저질환 없음: 60대/여성 1명, 70대/남성 2명, 80대/남성 2명으로 감염병신고서와 의무기록 등 현재 가용한 자료 상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 (추정감염경로) 시설 및 병원 154명(54.6%), 신천지 관련 31명(11.0%), 확진자 접촉 19명(6.7%), 지역집단발생 6명(2.1%), 해외유입관련 1명(0.4%), 조사중 71명(25.2%)

- (사망 장소) 입원실 262명(92.9%), 응급실 17명(6.0%), 자택 3명(1.1%)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6.25. 0시 기준)		282	100.0%	치명률(확진자 12,563명 중) 2.24%
성별	남	151	53.5%	치명률(확진자 5,360명 중) 2.82%
	여	131	46.5%	치명률(확진자 7,203명 중) 1.82%
연령별	평균 77.6세(최소 35세~최대 98세), 65세 이상 245명(86.9%)			
	30대 (30-39세)	2	0.7%	치명률(확진자 1,453명 중) 0.14%
	40대 (40-49세)	3	1.1%	치명률(확진자 1,646명 중) 0.18%
	50대 (50-59세)	15	5.3%	치명률(확진자 2,260명 중) 0.66%
	60대 (60-69세)	41	14.5%	치명률(확진자 1,627명 중) 2.52%
	70대 (70-79세)	82	29.1%	치명률(확진자 838명 중) 9.79%
	80대 이상 (80세 이상)	139	49.3%	치명률(확진자 551명 중) 25.23%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6.25. 0시 기준)	282	100.0%	치명률(확진자 12,563명 중) 2.24%	
기저질환 (중복 가능)	기저질환 있음 276명(97.9%), 없음 5명(1.8%)			
	순환기계 질환	215	76.2%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134	47.3%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125	44.5%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63	22.4%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46	16.4%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40	14.2%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20	7.1%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12	4.3%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13	4.6%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5	1.8%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감염경로	시설 및 병원	154	54.6%
- 청도대남병원		9	3.2%	
- 요양병원		74	26.2%	
- 기타 의료기관		36	12.8%	
- 요양원		23	8.2%	
- 기타 사회복지시설*		12	4.3%	
신천지 관련		31	11.0%	
확진자 접촉		19	6.7%	
지역집단발생		6	2.1%	
해외유입관련		1	0.4%	
조사 중		71	25.2%	
사망장소	입원실	262	92.9%	
	응급실	17	6.0%	
	자택	3	1.1%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 김기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아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의 쉼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 한국에서 공무원, 출산 여성, 구직자 등은 상병으로 업무 혹은 구직이 불가능할 때 일종의 상병수당이 부여됨.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권리가 보장되나,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킴
-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유급병가는 건강보험과 연계된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 혜택의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또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 기간, 수급 기간, 수급 수준 등 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01. 들어가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각 국가는 저마다 다른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음
  - 노동자 고용보호제도가 미흡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일자리 1960만 개가 사라졌고, 실업률도 5월 현재 13.3%로 높아졌음
  - 반면, 유럽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대규모 실업을 막는 고용 안정 정책을 펴고 있음. 독일은 노동자의 단축 근로를 유도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식으로 실업률을 5%대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OECD, 2020)
- 코로나19발 경제·사회적 위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주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상병수당<sup>1)</sup>임.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활용됨
  - 스웨덴은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휴가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 4일 이내의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병원 진단서 제출 의무를 유예함(OECD, 2020)
  - 덴마크는 3-6월 중에 상병수당 수급 기간이 끝난 휴직자에게도 6월 말까지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함. 하나는 노동자의 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임
  - 일례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성 전염병이 퍼졌을 때 미국과 독일의 확산 정도가 매우 달랐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병수당 유무였다는 해석이 있음(Scheil-adlung & Sandner, 2010)
  - 미국에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백만 명이 감염됨.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는 것임. 그 차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막대함
- 한국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 한국의 경우 이른바 'K방역'의 성과가 크게 부각되는 동안 상병수당의 부재는 드러나지 못했음.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자들은 아파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sup>2)</sup>
  - 물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sup>3)</sup>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에 한정해 유급병가를 제공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음
- 이 글에서는 한국에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상황을 국내외의 제도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함. 그리고 상병수당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함

1) 이 글에서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라는 말을 종종 섞어서 사용함. 관련 연구에서도 상병급여, 유급상병휴직, 유급휴직, 무급병가 등의 표현이 다소 뒤섞여 사용된 바 있음. 여기서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가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휴가 혹은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급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급병가'는 업무 외 상병으로 상병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휴직 혹은 휴가로 쉬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함. 즉, 전자는 현금성 급여를, 후자는 기간을 의미함. 용어의 정밀한 정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2) 최용락(2020) 참고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음. 또 41조의2(사업주의 협조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

## 02. 공적 재원을 쓰는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OECD 4개 회원국 비교<sup>4)</sup>

- 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뿐임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그나마 직간접적으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한국이 유일한 예외임
  - 미국은 '무급' 병가를 보장하는 한편,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를 가함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으나,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는 보장함. 즉, 유급병가는 없지만 무급병가는 보장된다는 것임
  - 1993년 마련된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서는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이틀 경우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미국의 노동자들은 업무 외 상병이 있어도 해고되지 않고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음(US Department of Labor, 2020a)
  - 「가족 및 의료휴가법」이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대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직계가족이 상병으로 이틀 경우에도 노동자 본인이 상병으로 이틀 것과 동등하게 쉴 수 있음.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한국의 관련 제도에서도 중요한 참고 지점이 됨
  -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미국은 지난 3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노동자들은 휴직 기간 동안 하루 최대 511달러 혹은 전체 휴직 기간을 통틀어 최대 5110달러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단, 휴직의 사유가 일반 상병이 아닌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많이 달려 있다는 한계가 있음(US Department of Labor, 2020b)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유급병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5개 주(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하와이) 및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시장애보험(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을 시행하고 있음(Glynn, 2015). 노동자가 일시적인 상병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 최대 52주 동안 기존 임금의 50~60%를 받을 수 있음
- 스위스에서는 국가가 직접 유급병가를 지원하지 않음. 대신 기업이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함
  - 스위스 민법에 따라 노동자는 자신의 과실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질병, 상해, 공적인 업무 등)로 인해 회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받아야 함
  -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저 기준이 마련돼 있음. 이를테면, 고용 지속 기간이 4~12개월이 경우에는 3주, 고용 지속 기간이 5~9년이면 13주를 받음

공적 재원에 근거한 상병수당이 없는 OECD 4개국의 상병수당 관련 제도

	규제 법안, 감독 기관	재원	적용 대상	자격 기준	급여 수준	급여 기간
이스라엘	유급병가법, 노동사회부	기업 혹은 기업이 가입한 기금	임금노동자 (일용직, 시간제 포함)	없음	최소 기준: 첫날 무급, 2, 3일째 임금의 50%, 4일 이후 100%	최소 1.5일/1개월 근무(연 18일) 발생
스위스	민법	기업	임금노동자	3개월 이상 고용관계	최소 임금의 80%	고용계약 첫해에는 최소 3주
미국	가족의료휴가법, 노동부	없음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지난 1년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	무급	12주
한국	근로기준법상 규정 없음, 건강보험법 50조 규정은 있음	X	X	X	X	X

자료: 김수진, 김기태. (2019). 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한국사회정책, 26(1), p. 22 표 2 일부 수정

- 다만, 상병에 관한 민간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 중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짐. 이때, 노동자가 받는 보험금이 휴직 이전 월급의 5분의 4에 못 미칠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사용자가 채워 줘야 함. 참고로, 스위스 노동자 가운데 3분의 2는 개인적인 상병보험에 가입해 있음(OECD, 2006, p. 162)
- 스위스에 노동자를 위한 공적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재원이 국가가 되는 민간 기업이 되는 유급병가로 휴직 이전 월급의 5분의 4를 보장받는다든 점에서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김수진, 김기태(2019)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갱신한 것임

- 이스라엘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가 기업 복지 차원에서 마련됨. 국가는 기업 단위 유급병가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유급병가법」을 통해 규제를 가함(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은 규정돼 있음.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할 때마다 1.5일의 유급병가 기간이 부여됨
  - 유급병가의 첫날은 급여가 없음. 둘째 날, 셋째 날은 휴직 이전 임금의 절반이, 넷째 날부터는 임금 전액이 지급됨. 이와 같은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은 법이 정하는 최소 수준임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보험을 제공하는 후생복지기금에 가입했을 경우, 위와 같은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음. 다만 후생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에 근거한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세 나라를 살펴보았음. 세 나라는 최소 수준으로 무급병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상병을 겪은 뒤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거나(미국), 노동자가 기업 복지를 통해 유급병가를 받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있음(스위스, 이스라엘). 한국에는 관련 제도의 공백이 있음

### 03. 한국의 상병수당 관련 제도

- 한국에서는 유급병가뿐 아니라 무급병가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정부가 제시하는 2019년 표준취업규칙에서도 병가에 대해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덧붙임
  -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옆 ‘작성 시 착안 사항’에서 “필수적 사항은 아니”라고 적시함
- 한국에서 유급병가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1) 업무 외 상병을 앓고 있는 2) 민간 기업의 3) 노동자 4) 당사자를 제외한 많은 유형은 업무 외 상병으로 휴가 혹은 휴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문장에서 부여된 번호에 따라 유형별로 살펴보겠음
  - 1-1) 가장 먼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보험은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뒤,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상병을 앓을 때 요양급여와 함께 상병수당인 휴업급여를 지급함. 1일 지급액은 급여의 70% 수준임
  - 1-2)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어려운 출산 전후 여성이라면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 전후 여성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등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 가운데 처음 60일 동안 사용자로부터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음
    - 일정한 규모 이하의 ‘우선지원대상기업’들, 이를테면 제조업 기준으로는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의 급여를 모두 받음
    -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여성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고용노동부, n.d.)로,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급병가와 일부 유사한 성격이 있음
- 2-1) 노동자가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국가공무원법」 71조 및 72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유급휴직을 쓸 수 있음
  - 7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연간 최대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보수는 전액을 지급함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71조 1항)라고 명기돼 있음. 상병으로 인해 아픈 공무원의 유급휴직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상병수당의 권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장함
  - 상병수당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0%를,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함
- 3) 노동자가 아니라 구직자라면 상병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병급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임
  -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하자면, 상병급여제도의 대상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아니라, 구직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상병으로 구직 활동을 못 하는 실직자임
  - 상병급여의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노동자’로 규정됨. 지급 일수는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인 40세 노동자는 210일까지임. 상병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함
  - 이와 같은 상병급여는 ‘아파서 실직한 집단은 배제하고 ‘실직한 뒤 아픈’ 집단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남김
- 4) 아픈 사람이 노동자 당사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라면 노동자에게 휴직의 권리가 주어짐
  - 2014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1년에 최대 90일까지 휴직이 보장됨
  - 제22조의2에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됨

-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라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연간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2020년 기준 1일 8만 4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는 상병수당 부재라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채우려는 시도로써 선구적인 의미가 있음. 다만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음(이수민, 2019)

#### 04. 상병수당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도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 재원 조달, 전달체계, 수급 이전 대기 일수, 보장 방식, 보장 수준, 제도의 대상, 보장 기간 결정 방식, 보장 기간, 직장에서의 유급병가 제공 여부 및 기간 등
    -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아래와 같은 정책적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병수당의 효과 및 소요 재원이 달라질 것임
- 상병수당 도입 시 제도적 선택 사항 및 해당 해외 사례들**

<b>재원 조달</b>	조세 방식(덴마크, 뉴질랜드), 사회보험(독일, 스웨덴, 터키)
<b>사회보험 방식일 경우 보험료율</b>	직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 전액 부담(이탈리아, 스웨덴), 노동자-고용주 공동 부담(핀란드, 그리스 등) 등
<b>전달체계</b>	건강보험(독일, 프랑스 등), 연금(포르투갈, 영국 등), 고용보험(대만, 캐나다 등)
<b>대기 일수</b>	대기일 없이 즉시(폴란드)~1개월(벨기에)
<b>보장 방식</b>	정액(호주, 덴마크 등) 혹은 정률(독일, 스웨덴 등)
<b>정률 방식의 보장 수준</b>	50%(대만)~100%(룩셈부르크)
<b>정액 방식의 보장 수준</b>	최소 35만 원/월(아이슬란드)~ 최대 290만 원/월(덴마크)
<b>제도의 대상 1</b>	직장 가입자만(일본)~18세 이상 인구(아이슬란드)
<b>제도의 대상 2</b>	본인만(영국)~피부양자까지(아일랜드)
<b>유급병가 보장 기간</b>	70일(체코)~3년(독일)

자료: 임승지, 김나영, 이정면, 조정완, 김용빈, 김윤희. (2019).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I: 기초연구. 보고서 내용 재구성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추정한 연구들**

	재정 소요 추정 방식	제도 설계	소요 재정
최인덕, 김진수 (2007)	입원 총건수, 평균부양률, 연평균 입원 일수 등 고려해서 산출	대기 기간 3일, 급여 기간 최대 6개월, 1일 최저임금 수준 지급	8055억~9209억 원 <sup>5)</sup>
		대기 기간 3일, 급여 기간 최대 6개월, 임금 대비 50 혹은 60% 수준 지급	1조 1309억~1조 3571억 원
손민성 외 (2019)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 및 국제청 자료 분석	대기 기간 15일, 급여 기간 최대 180일 (이전소득 60% 지급 시에는 최저생계비와 평균임금을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설정)	이전소득 60% 수준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3211억~3718억 원
			이전소득 60% 수준 지급, 소득 제한 없이 대상자 선정 4520억~5235억 원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지급, 소득 60%,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5753억~6663억 원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지급, 소득 제한 없이 대상자 선정 7275억~8425억 원
임승지 외 (2019)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DB, 국제청 자료	15세 이상, 이전소득 50% 지급, 급여 기간 최대 360일, 직장 근로자 평균 소득의 30%와 100%로 하한 및 상한 설정	대기 7일 8180억 원
			대기 3일 1조 1304억 원
			대기 3일, 피부양자로 3세 이하 자녀 포함 1조 5387억 원

자료: 1) 최인덕, 김진수. (2007).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연구-제도설계와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221-247  
 2) 손민성, 김연용, 장정민, 정혜주. (2019).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5(2), 1-28  
 3) 임승지, 김나영, 이정면, 조정완, 김용빈, 김윤희. (2019).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기초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5) 최인덕, 김진수(2007)의 추정이 2005년 자료에 근거한 점을 고려해 2005~2018년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을 반영해서 2018년 기준 추정액을 다시 산출하면 1일 최저임금 지급 기준으로는 추산액이 2조 6581억 원~3조 390억 원, 임금 대비 50~60% 기준으로는 3조 7320억 원~4조 4784억 원으로 다소 증가함

-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소요 재정에 대한 과거 연구들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추정한 과거 연구들은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1조 5387억 원으로 추정함<sup>6)</sup>. 대기 기간, 급여 기간, 보장 수준 등에 따라 같은 연구 인에서도 추정액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1조 5387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임
  -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정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상병수당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변화가 필요함. 첫 번째는 노동자의 쉼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며, 두 번째는 병가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임. 이러한 변화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첫 번째, 병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권리는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임<sup>7)</sup>
  - 첫째, 노동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휴가 혹은 휴직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 둘째, 병가를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아야 함. 병가 기간 중에 해고당해서도 안 됨
  - 셋째, 노동자가 병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할 때는 병가 이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넷째, 위의 복직 권리 유지 기간이 상병수당의 수급 기간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이를테면 상병수당 수급 기간은 180일이라도 업무 복귀의 권리는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음
  - 다섯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기까지가 노동자의 '쉼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분임. 유급병가 도입과 함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한국에서 노동자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임시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 때문에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임
  - 또, 유급병가가 도입되더라도 노동자가 상병을 사유로 유급병가를 받는 도중 해고된다면 장기적인 소득원인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임
- 두 번째, 노동자가 쉬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상병수당의 도입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상병수당은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함. 고용보험,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 등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음. 그 가운데서도 건강보험과 함께 관리 및 운영되는 안을 먼저 검토함. 이유는 세 가지
  - 첫째, 건강보험이 인구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음. 즉, 직장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비정형 노동자의 상당수를 포괄할 수 있음
  - 둘째, 상병수당의 성격상 건강보험 및 의료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함.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진단서 발급 등의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를 통해 제도적인 연계가 가능함
  - 셋째,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음
  -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단일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그 속에서 상병수당제도가 관리될 것임
- 상병수당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사회보험 혜택의 역진적 성격을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상병수당 초기 모델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재원 가운데 노동자의 기여가 50%를 넘어서는 안 될 것임. 이는 ILO(1952)가 설정한 최소 기준임. 또한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따르다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상병수당의 대기 일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상병수당이 자리를 잡으면 저소득층 혹은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해 대기 일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급병가 보장 기간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할당하는 스위스나 이스라엘 방식은 지양해야 함. 이는 유급병가 혜택에서 직종이나 직위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 유급병가 기간은 근속 일수가 아니라 의료상의 필요에 근거해 결정해야 함
  - 상병수당은 정률 보장 방식을 따르되 제도 초기에는 소득의 70% 이하 수준으로 낮춰 운용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험이 소득의 70% 수준임을 고려해야 함. 다만, 상병수당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뒤서 계층 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상한액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도 정착 초기에는 노동자 본인의 업무 외 상병에 한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나, 한부모 및 조손 가족에 한해서는 자녀 혹은 손자녀의 상병에 대해서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대상 상병수당 지급 기간, 대기 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함. 독일은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1년에 10일 혹은 모든 자녀를 합해 1년 25일까지 유급병가가 가능함(김기태, 이승윤, 2018)
-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와 공적 상병수당의 연계도 필요함. 이는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아니지만, 기업이 노동자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근거가 될 것임
  -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서는 민간 기업의 재원으로 휴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전국 사업장의 유급병가 관련 취업규칙 및 지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6) 임승지 외(2019)의 세 번째 추정액(1조 5387억 원)에서 상병수당을 소득의 66.7% 수준으로 높이면 연간 비용은 1조 7718억 원으로 나타남

7) 이 부분의 정책 제언은 김수진, 김기태 (2019)에서 제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첨가한 것임

- 상병수당의 수급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OECD 회원국들은 일부 예외(체코 70일, 캐나다 15주 등)를 제외하고는 최소 수급 기간을 180일로 설정했음<sup>8)</sup>
  -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난 시점인 점을 고려해 병가 기간을 장기적으로는 18개월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함
  -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이 경우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할 것임
- 일부 서구 국가에서 관찰되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는 공적 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상병수당의 자격 심사를 맡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제도의 신뢰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임. 스웨덴에는 지역 사회보장사무소 전체 직원 가운데 상병수당 담당자가 가장 많음
- 한국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임. 1) 해외 상병수당제도 운영 경험에 대한 나열식 평가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 및 평가, 2) 국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 (노동시장, 소득분배, 삶의 질, 기업 경영 등), 3) 상병수당제도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장애연금, 구직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와의 관계 설정, 4) 제도의 사각지대 및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제도 마련, 5) 국내 기업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급병가,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6) 상병수당 도입이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 7) 제도 도입 시 정책 설계 및 단기·중장기 발전 방향 등

8) 임승지 외(2019), p. 143 표 4-38 참고

## [참고문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2020)
- 고용노동부. (n.d).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안내. <https://www.ei.go.kr/ei/e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에서 2020. 6. 8. 인출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6905호 (2020)
- 김수진, 김기태. (2019). 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한국사회정책, 26(1), 3-33
- 김기태, 이승윤. (2018). 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사회복지정책, 45(1), 148-1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 손민성, 김연용, 장정민, 정혜주. (2019).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5(2), 1-28
- 이수민. (2019). '서울형 유급병가'는 그림의 떡?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5918&ref=A>에서 2020. 6. 9. 인출
- 임승지, 김나영, 이정면, 조정완, 김용빈, 김윤희. (2019).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I: 기초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최용락. (2020. 3. 10.).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레시안. <https://news.v.daum.net/v/20200310233753462?f=p>에서 2020. 6. 9. 인출
- 최인덕, 김진수. (2007).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연구-제도설계와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3(2), 221-247
- Glynn, S. J. (2015). State Paid Leave Administration.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https://cdn.americanprogress.org/wp-content/uploads/2015/09/30062044/StatePaidLeavereport1.pdf>에서 2020. 6. 9. 인출
- ILO. (1952).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247](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247)에서 2020. 6. 11. 인출
- Israel Ministry of Justice. (2014). The Sick Pay Law. [https://www.nevo.co.il/law\\_html/law01/074\\_001.htm](https://www.nevo.co.il/law_html/law01/074_001.htm)에서 2020. 6. 5. 인출
- OECD. (2006).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Vol. 1): Norway, Poland and Switzerlan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0).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http://www.oecd.org/coronavirus/en/>에서 2020. 6. 10. 인출
- Scheil-Adlung, X., & Sandner, L. (2010). Paid sick leave: Incidence, patterns and expenditure in times of crises,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ESS Paper No. 27. Geneva, ILO. <http://www.ilo.org/secsoc/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에서 2020. 6. 9. 인출
- US Department of Labor. (2020a). <https://www.dol.gov/general/topic/benefits-leave/fmla>에서 2020. 6. 9. 인출
- US Department of Labor. (2020b).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questions>에서 2020. 6. 9. 인출

일자	국내 발생(명)	정부	서울시
'20.01.03.	-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 우한시 발 항공편 입국자 검역 강화 - 중국 보건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우한 방문 또는 체류자 발열, 호흡기증상 시 1339 신고 당부	
'20.01.08.	-	· 국내 조사대상 첫 유증상자 발생 - 중국 국적 36세 여성 1명, 유증상자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 접촉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시작(29명)	
'20.01.11.	-	· 첫 유증상자 PCR 검사 결과 음성 - 유증상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
'20.01.13.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석·검사법 개발 착수	
'20.01.16.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 유증상자 신속한 사례분류,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절차(3판)' 배포('20.1.17.) - 각 시·도 대책반 구성,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 가동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CR 검사 이관, 지역별 신속검사 가능하도록 계획	
<b>stage 1_중국 유입,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b>			
'20.01.20.	확진:1(+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b>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b> - 35세 여성(중국국적) 인천공항 검역과정 발열 등 유증상	· 서울시 확진자 최초발생 ※ 공식자료 기반 후향적 확진일자 재추정
'20.01.23.	확진:1(-) 확진:1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로 상향	
'20.01.24.	확진:2(+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 확인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근무자(55세, 한국인 남성), 김포공항 검역과정 유증상 확인 · WHO 긴급위원회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아니야"	· 서울시 '신종 코로나 방역대책 반 가동' 설연휴 24시간 대응
'20.01.26.	확진:3(+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한국인(54세 남성), 1.20. 귀국 · 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 지정, 사례정의 확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사례정의 확대로 격리 및 감시대상자 큰 폭 증가	-
'20.01.27.	확진:4(+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후 귀국, 55세 남자 한국인 · 보건복지부, 감염병 <b>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b> · 보건복지부, 「 <b>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b> 」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
'20.01.28.	확진:4(-) ※미발표	·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추가 확대(1.28. 현재 288개 운영) - 1339 상담센터 상담 인력(27명→170명) 추가 확보 - 감염병관리병상 추가 확보 계획 수립(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 병원, 161 병실) - 민간의료기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 하도록 기술과 자료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수위 '보통→높음'으로 조정	· 보건소(25개), 시립병원(4개) 선별진료소 운영 · 격리병상 71개 상시 가동 준비 · 중국동포 밀집지역 임시 신고·지정 센터 지정 · 예방 등 시민 집중 홍보 안내 강화
'20.01.30.	확진:6(+2) 확진: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환자 2명 확인, <b>첫 2차 감염 사례 발생</b> - 우한 방문 후 귀국(32세 남자 한국인), 세 번째 확진자 접촉자(56세 남자 한국인)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등 범부처 총력 대응 · 민간 협력으로 진단 빠른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구축·검증·평가 완료 - real time RT-PCR, 1회 검사로 확진, 6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1.31.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의료기관 DUR, ITS를 통한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 중국 우한시 입국자 208명 전 수 조사 진행 · 관망 위기관리TF 체계 구성 ·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매일 유튜브 생방송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이송지 원반 확대 운영
'20.01.31.	확진:11(+5) ※미발표	· <b>우한교민 368명 1차 입국</b> , 유증상 18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발표, 접촉자 자기격리 및 심층조사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기준"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서 이동형 X-ray 장비 구매 188억원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확산 사건 수사 의뢰 · WHO 현지시각 1.30. " <b>국제보건위기상황</b> " 선포	· 선별진료소 58개소 확대 - 시립병원 4개소 추가 - 서울의료원 응급실 유증상 전용응급실로 전환 - 이동 선별진료소 7개 설치 지원 · 역학조사관 4→11명 확대 · 검사기능 강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1.	확진: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관계부처 합동 확대 개편</li> <li>- 중국 유학생, 여행자, 근로자 등 관련 방역 관리방안 범부처적 안전 논의</li> <li>· <b>우한교민 333명 2차 입국</b>, 유증상자 7명, 국립의료원 이송</li> <li>·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 완료</li> </ul>	
	※미발표		
'20.02.02.	확진: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선별진료소 288개→532개로 대폭 확대</li> <li>· 1339 상담인력 (1.31.)38명→126명(2.1.)→188(2.4.) 계획</li> <li>· 우한입국 교민 총 701명 검체 채취 검사, 1차 입국자 1명 확진</li> <li>-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56명 입소</li> <li>-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종료 후 한 차례 더 진단검사 시행</li> </ul>	
	※미발표		
'20.02.03.	확진: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차관→장관)주재로 격상</li> <li>· <b>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2.4.0시부터)</b></li> <li>·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li> <li>·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설치, 특별입국절차 진행</li> <li>- 특별입국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거주지, 실연력처 확인 후 입국 허용</li> <li>·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폐지,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li> <li>· 중국 유입 추정 9명, 일본 확진자 접촉 1명, 국내 2차 감염 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li> <li>- 기금 자금 5,000억원 지원</li> <li>- 금리 0.5%p인하 등</li> <li>- 관광객 집중지역 방역소독</li> <li>· <b>대외협력기금 2억원 지원</b></li> <li>- 우한교민 격리 주변 지역 의약품 지원</li> </ul>
	※미발표		
'20.02.04.	확진: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li> <li>-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기 진단위해 2.7.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li> <li>· 1339, 129, 공단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포함 총 596명 상담 배치</li> <li>· 우한지역 입국자 명단 서울시 송부, 소재 및 위치 파악 전수조사 협업</li> <li>·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배포</li> <li>- 중국 전 지역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 14일간 업무 배제, 등원 중단 권고</li> <li>-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li> <li>· 16번째 환자, 태국 여행 후 확진(태국 정부 확진자 관련 자료 공유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버스, 택시 감염 예방 본격 돌입</li> <li>- 대중교통 대대적 방역</li> <li>· DDP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li> <li>- 방역 매주 실시</li> <li>- 열화상 카메라, 세정제 등 배치</li> </ul>
	※미발표		
'20.02.05.	확진:19(+3) 완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번째 환자, 확진자 중 처음 퇴원</li> <li>·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바이러스 분리 성공</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 BetaCoV/Korea/KCDC03/2020</li> <li>- 유전정보 공개,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li> <li>· 국립보건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착수</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 마련</li> <li>· 국민 정보 제공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홈페이지 개설</li>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ncov.mohw.go.kr</li> <li>-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팩트 체크, 대응지침, 홍보자료 등 신속 제공</li> <li>·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일본 직원 사칭에 대한 수사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업소 802곳 집중점검, 확산 차단</li> <li>- 3개 시장 75명 투입 선제적 점검</li> <li>- 야생동물 등 취급여부 점검</li> <li>- 1개 시장 방역·소독 실시</li> </ul>
	확진:7		
'20.02.06.	확진:23(+4) 완치: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대응 논의</li> <li>·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급안정화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li> <li>-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도매업자 출하·판매시 정부 신고 의무 부여</li> <li>· 정부, 민간후원 연계, 마스크 15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후원</li> <li>·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유증상자 4단계 고강도 검역체계 가동</li> <li>- 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 확장형 검역 시스템 최초 가동</li>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대응절차 5판 개정), 검사기관 확대</li> <li>· 첫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131개 대학로 소극장, 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li> <li>·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이동 동선 지도 서비스 제공 준비</li> <li>· 확산 방지 위한 개선행안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li> <li>- 7개 건의 5개 반영, 2개 추진중</li> </ul>
	확진:10		
'20.02.07.	확진:24(+1)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 검사 대상 확대, 의사환자 검사비 지원</li> <li>-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되는자</li> <li>- 확진자·의사환자로서 진단받은 경우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li> <li>· 선별진료소 556개소로 확대, 1일 검사 가능 건수 3천여건 정도</li> <li>·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하여 검사대상 확대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각시설 2.8.부터 운영</li> <li>- 자가격리자 중 독립생활 어려운자 대상</li> <li>- 서울시 인재개발원 활용</li> </ul>
	※미발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8.	확진:24(-)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17개 시도와 확산 방지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 논의</li> </ul> </li> <li>·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위해 법률 근거 관계부처 협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li> <li>-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0,000원 지급</li> <li>- 유급휴가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급</li> </ul> </li> <li>·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표준 소독 수행 지침, 각 부처와 지자체 배포</li> <li>· 국내 초기 방역 신속 조치로 다수 경증, 전파 속도 메르스 비해 빠른 편</li> </ul>	
	※미발표		
'20.02.09.	확진:27(+3) 완치: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입국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가진단 앱' 사용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0.~11. 시범운영, 2.12. 이후 시행</li> </ul> </li> <li>· 지자체 총력 동원 태세, 보건소 방역활동 집중 체계 구축</li> <li>· 환자 조기발견 위한 진단검사 물량 대폭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말까지, 1일 만 건의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확충</li> </ul> </li> <li>· 다수 환자 발생 대비 병상·인력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1차 국가지정 198 병상 활용→2차 공공병원 및 군병원, 일반 종합병원 활용</li> <li>- (인력)10개 즉각대응팀→30개,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 개선</li> <li>- (치료)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중앙임상TF", 표준적 치료방법 권고안 수립</li> </ul> </li> </ul>	
	※미발표		
'20.02.10.	확진:27(-) 완치: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 국내 크루즈선 입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336명 중 70명 양성(2.9. 기준)</li> </ul> </li> <li>· 11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 2회 연속 음성 확인, 퇴원</li> </ul>	· 자기격리자 8명, 서울시 인제 개발원 입소
'20.02.11.	확진:28(+1) 완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국 외 홍콩·마카오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b> 밝힘</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중국 외 환자 발생 6세 지역, 여행 최소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중국 후베이성 철수 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 여행차제(2단계)</li> </ul> </li> <li>· 중국 외 감염 확인 국가 여행이력 정보 의료기관, 약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DUR 통해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신종코로나 8개 언어로 상담 안내</li> <li>· 서울시, 공항버스 김호은행 승인</li> </ul>
	※미발표		
'20.02.12.	확진:28(-) 완치: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한교민 147명 3차 입국, 유증상자 5명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일간 임시 생활시설 국방어학원에 입소</li> </ul> </li> <li>·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권고 지침 마련·시행</li> <li>·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 마카오), 자가진단 앱 설치</li> <li>·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b>"COVID-19"</b> 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 코로나, VI:바이러스, D: 질환, 19: 2019 의미</li> </ul> </li> <li>· 3번째, 8번째, 17번째 환자 증상 호전 및 2회 검사 음성, 퇴원</li> <li>· 국내 분리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양, 진단·치료·백신 개발 적극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매체(검체) 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동선 6개소 긴급점검</li> <li>- 향후, 확진자 동선 내 다중 이용시설 조사 확대</li> </ul> </li> </ul>
	확진:10 완치:2		
'20.02.13.	확진:28(-) 완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지자체 중심의 자기격리 관리 강화, 격리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일 15개 시·도 17개소 766실 → 2.12일 16개 시·도 19개소 864실</li> </ul> </li> <li>· 진단 시약 생산 확대, 검사기관 확충, 1일 5천명 수준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민간기관 46개</li> </ul> </li> <li>· 중앙임상TF, 코로나19 임상연구 기반 진료권고안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서울형 긴급복지) 지원</li> <li>· 피해 회복능가 지원 캠페인</li> </ul>
	※미발표		
'20.02.15.	확진:28(-) 완치: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한교민 1차 입국자 366명(확진자 2명 제외)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 전 증상 발생 대처요령, 건강관리, 단기숙소 및 일자 등 교육</li> <li>-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 분산하여 이동 예정</li> </ul> </li> <li>· 2.17.부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접수</li> <li>·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1.29.부터 심리지원 실시</li> <li>- 국가·영남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유선 상담, 고위험군 선별 치료 연계</li> </ul> </li> <li>· 7번째, 22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 관공시장 조기 회복 중 합대책 발표</li> <li>· 2.14.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 광업계 간담회 개최</li> </ul>
	※미발표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확진자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유입사례(57.1%), 국내 감염사례(35.7%), 전파 경로 조사중(7.1%)</li> <li>- 임상 증상 경미 또는 비특이적, 발열, 인후통 호소가 각 32.1%로 가장 많음</li> <li>- 입원 후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64.3%</li> </ul> </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소견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 환자 조기발견, 사회 감시체계 구축</li> <li>·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보호 조치 강화</li> <li>· 지자체 자기격리자 업무 전담관리, 접촉자 격리 시설 23개소, 872실 확대</li> <li>·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li> <li>· 중국 입국 유학생 7만여 명 14일 자기격리 등 보호·관리 방안 논의</li> <li>· 고용노동부, 사업장 방역 및 어려움 겪는 사업장 고용안정 적극 지원</li> </ul>	
	※미발표		
'20.02.17.	확진:30(-) 완치: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병원 대상 중국 등 여행력 있는 종사자·간병인 실태조사 -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2.17.~2.18.) 여행이력, 업무배제, 폐렴환자 여부 등 점검</li> <li>·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증 병원체 감시체계 코로나19 검사 추가 실시, 참여 기관 확대</li> <li>·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긴급 연구과제 공모 시작</li> <li>·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대학 체계적 관리 지침 배포</li> <li>·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상호협력 다짐 -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한지원, 이송방안 협의</li> <li>- 코로나19 양국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li> <li>· 28번째 환자 완치하여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에 긴급헌혈 나서</li> <li>·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총 3,208명 확산예방 총력 - 관공속박업소 1,403개 전수조사</li> <li>- 취약계층 수시 모니터링</li> <li>- 취약계층 마스크, 세정제 전달, 감염예방 교육 실시</li> <li>· 방역조사 안전 '클린존' 마크</li> </ul>
	확진:12 완치:3		
<b>stage 2 대구·경북 중심 지역사회 전파 확인</b>			
'20.02.18.	확진:31(+1) 완치: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1번째 환자 발생</b>(59년생, 대구), 외국 방문 이력 없음</li> <li>· 12번째, 14번째 환자 증상 호전으로 격리해제, 퇴원</li> <li>·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구입비 65억 6200만원 지원 - 어린이집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가동 - 안심클린시장 운영, 피해 기업 지원 등</li> </ul>
	※미발표		
'20.02.19.	확진:51(+20) 완치: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20명, 18명 <b>대구·경북</b>, 15명 31번째 확진자(<b>신천지</b>) 연관 - 선별진료소 거침없이 3차 의료시설 직행, 대구·경북 지역 내 다수 응급시설 폐쇄</li> <li>- 당일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 수 증폭 시작</li> <li>·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어려움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 '15 메르스때도 시행한바 있으며, 청구확인만 거쳐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li> <li>· <b>일본 크루즈선 7명 이송</b>,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생활 시작 - 우리국민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총 7명</li> <li>- 김포공항 검역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격리 생활 시작</li> <li>·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협조 요청</li> <li>· 6번째, 10번째, 16번째, 18번째 환자 완치되어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확진자 첫 발생</b></li> <li>·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공영차고지 방역소독 - 서울시 관리 29개 공영차고지 내 주차장 주1회 소독</li> <li>- 천만 시민과 운전자 감염 예방</li> </ul>
	확진:13 완치:5		
'20.02.20.	확진:104(+53) 완치:16(-) 사망: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사망자(<b>청도 대남병원</b> 관련) 발생, 신규 확진자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li> <li>· 정부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9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 등 현지 파견 - 현재 선별진료소 8개 추가(14→22개소),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예정</li> <li>· <b>지역사회 전파 확인</b>, 진단기관 46개→77개 추가 확대</li> <li>· 서울지역 확진자, 선별진료소 세차례 방문했으나 검사 거부</li> <li>· 제주 지역 대구 휴가다녀온 군인 확진 판정</li> <li>·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6판), 0시부터 적용 - 의료진 환자 의사 해외여행 경력 관계없이 의심될 경우 적극 검사 시행</li> <li>·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감염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 구체적 기준 등 심의·의결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li> </ul>
	※미발표		
'20.02.21.	확진:204(+100) 완치:17(+1) 사망: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최초 확진자 발생</li> <li>·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 노력 - 현재 음압 9개 병원 50병실 확보, 향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병상 확보</li> <li>·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예정 - 검사수행 민간 의료기관 4개소 추가 지정,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li> <li>· 청도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 실시</li> <li>· <b>정부, 「법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b>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li> <li>·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li> <li>· 대구지역 전체 학교, 3월 1주 개학연기 협의 완료</li> <li>·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은평성모병원 관련 서울시 확진자 최초 발생</b></li> <li>·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코로나19 격리자 8명, 21일 퇴소</li> <li>· 서울시, 의심증상 시민까지 확대하여 지역감염 차단 노력</li> <li>·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방역관리 총력</li> <li>· 중국입국 유학생 픽업·임시거주공간·모니터링 전방위 지원</li> </ul>
	확진:19 완치:6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2.	확진:433(+229) 완치:18(+1) 사망: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약 9,336명) 모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36명 중 1,261명(13.5%) 유증상 응답</li> <li>- 2.7. 1차, 2.14. 2차 발병 추정, 종교 모임 내 지속 전파 시사</li> </ul> </li> <li>·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환자 전수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256명 중 111명 확진(사망자 2명 포함, 의료진 9명, 환자 102명) 확인</li> </ul> </li> </ul>	
'20.02.23.	확진:602(+169) 완치:18(-) 사망:6(+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 대비, <b>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 통해 적용</li> <li>- 해외 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정책,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 전략 추진</li> </ul> </li> <li>· <b>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격상</b></li> <li>·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역 최소 2주간 자율 외출 자제, 이동 제한, 증상자 신속 검사</li> <li>- 빠른 치료 위한 전담병원 병상·인력 확보 계획</li> </ul> </li> <li>· 지역별 코로나19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환자 음압병상, 경증환자 전담병원 등 병상·인력 확보 계획</li> </ul> </li> <li>· 경주시 4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상 감염자 중 최초 사망 발생</li> <li>· 서울 은평성모병원 사례 중심 조사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병원 내 2명의 확진자 발생</li> </ul> </li> <li>· 복지부 장관,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 개최</li> </ul>	
'20.02.24.	확진:833(+231) 완치:22(+4) 사망:8(+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한층 전원 확진판정(113명)</li> <li>· 서울 은평성모병원 간병인 근무자 확진 판정</li> <li>· 대구, 경북지역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 적극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4.09시 기준, 대구 지역 환자 446명, 경북지역 환자 186명</li> <li>-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의료인 봉사자 모집</li> </ul> </li> <li>· <b>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개학 연기(3.1.→3.9.)</b></li> <li>·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7대 선제적 대응책 가동</b></li> <li>· 코로나19 피해 자하도수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li> <li>·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총 1,700개 참여자 모집</li> <li>· 코로나19관련 서울시 인턴판리위원회</li> <li>·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li> </ul>
'20.02.25.	심 각 확진:977(+144) 완치:22(-) 사망:11(+3) 확진:33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 지역 병상·인력,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물량 지속 확충</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 협조 받기로 합의</li> <li>·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조기 지급 특례, 인력·시설 신고 유예,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li> </ul> </li> <li>·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지정</li> </ul> </li> <li>·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여행 이력, 업무 배제, 입원 환자 폐렴 증상 여부 등</li> </ul> </li> <li>·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지역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배포</li> <li>· 코로나19 총력 위한 공공 2부제 일시 중단</li> <li>· 1회용품 규제 제외 적용, 지자체별 탄력적 운용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은평성모병원대책본부' 구성</b>(총 40명, 전원 검사 및 병원 내 집중영역 등 감염 차단 조치)</li> <li>· <b>코로나19 관련 중구계 지도자 간담회</b></li> <li>· <b>신천지예수교 263개소 점검</b></li> <li>· <b>188개 폐쇄 방역 집합금지 명령</b></li> <li>· <b>확인불가 66개소 합동점검</b></li> <li>· <b>제보 등을 통한 주·적 현장점검</b></li> <li>· <b>폐쇄시설 집합종교활동 적발 시 법적 조치</b></li> <li>· <b>집합금지 위반 범투본 고발조치</b></li> </ul>
'20.02.26.	확진:1,261(+284) 완치:24(+2) 사망:12(+1) 확진:51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 3.1.까지 전담병원 외 인근 지역병상 포함 총 1,600개 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 대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 논의</li> </ul> </li> <li>· 대구 의료인 봉사자 현 205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li> </ul> </li> <li>· 신천지 약 21만 2000명 전체 신도 명단 확보, 지자체와 전달</li> <li>·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및 시행</li> <li>· 1차 '국민안심병원' 91개 의료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 환자 병원 방문·입원 모든 진료 과정,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 병원</li> <li>-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 신청</li> </ul> </li> <li>· 코로나19 밀접접촉 방지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li> <li>·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2.27.~3.8.)</li> <li>·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li> <li>· 경기도 고양시, 최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에 탄 채로 검사 받는 것으로, 10분 만에 검체 채취 완료</li> </ul> </li> <li>·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성모병원에 이어 <b>서울자활 병원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b></li> <li>·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심내 집회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장소 서울역, 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li> </ul> </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7.	확진:1,766(+505) 완치:26(+2) 사망: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의미있는 변이 발견 못해”</li> <li>·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 중등도에 따른 효율적 의료자원 운영 필요</li> <li>· 경북지역 음압병상 26개, 전남 총 811병상 확보 계획</li> <li>· 대남병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li> <li>·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 시행</li> <li>· 2.27. 기준 총 127개 ‘국민안심병원’ 지정</li> <li>· 코로나 19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li> <li>· 국방부,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동참</li> <li>· 외교부, 우리 국민 입국 제한 또는 여행 제한 조치 외교력 적극 투입 대응</li> <li>·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돌봄 공백 대응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대비 공화문세 종대로 집회전략 철거</li> <li>·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한 예산 긴급지원</li> </ul>
	확진:59 완치:9		
'20.02.28.	확진:2,337(+571) 완치:27(+1) 사망: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관 협력 백신·치료 개발 추진</li> <li>·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 모범사례 표준운영모형 마련</li> <li>· 신천지 전체 국내 신도 194,781명 중 53.7% 확인, 유증상 1.4%</li> <li>·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19 확진자 60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li> <li>· 코로나19 긴급 대응 위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li> <li>· 2.28. 기준 총 174개 ‘국민안심병원’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집단발생 확진 증가</b></li> <li>· 서울시 신천지 28,317명 전수 조사, 유증상 217명, 고위험군 3,545명</li> <li>·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li> <li>· 서울시와 일부 민간병원, 음압 병상 부족사태 대응</li> <li>·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공공사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li> <li>· 서울 지하철 총력다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li> <li>· SNS 코로나19 응원 캠페인</li> </ul>
	확진:65 완치:9		
'20.02.29.	확진:3,150(+813) 완치:30(+3) 사망: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893개 병상 사용중, 3.5.까지 1,000여개 병상 확보 예정</li> <li>- 검사 인력: 공중보건의 165명, 간호인력 10명 지원/군 운전인력 61명 지원</li> <li>- 전남병원 인력: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li> <li>· 경북지역 전담병원 지정, 환자 소개로 950병상 확보</li> <li>- 검사 인력 의사 9명,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 지원</li> <li>· 신천지 전수 조사 88.1% 완료, 1.9%(3,381명) 유증상</li> </ul>	-
	※미발표		
'20.03.01.	확진:3,736(+586) 완치:30(-) 사망: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중 대구 2,569명, 경북 514명, 경기 84명, 서울 82명 등</li> <li>· 중앙방역대책본부, <b>사회적 거리두기</b> 실천 당부</li> <li>· 건강취약계층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li> <li>-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li> <li>· 국민안심병원 214개 지정</li> </ul>	-
	※미발표		
'20.03.02.	확진:4,212(+476) 완치:31(+1) 사망: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등 밝힘</li> <li>-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강화, ▲신속대응위한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 ▲주요 감염병 예방·상시 관리 강화, ▲코로나19 사후 평가 및 과제 지속 발굴 등</li> <li>· 대구·경북 경증환자 위한 <b>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b>(대구1 센터 개소)</li> <li>· 대구·경북 등 진료·방역 종사 의료인의 보호장구 지속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 진료소’ 4개소 운영</li> <li>· ‘보건소 선별진료소’ 50개로 확대</li> <li>· 박원순 시장, ‘<b>사회적 거리두기</b>’ 적극 동참 제안</li> <li>· 은평성모병원, 서울재활병원 지속 조치</li> </ul>
	확진:92 완치:13		
'20.03.03.	확진:4,812(+600) 완치:34(+3) 사망: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49.6% 완료, 양성판정률 62%</li> <li>· 코로나19 대구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경 '신천지신도→일반시민'</li> <li>· 대구1 생활치료소 경증 확진자(138명) 입소 시작</li> <li>· 환자 중증도 따라 분류하여 병상 배정, 입원치료 병상 지속 확보</li> <li>· 중대본 1차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개최(2.17.구성)</li> <li>· 대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모집</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036명, 사망자 52명 증가, 이란 총 확진자 2,336명, 사망자 77명 등 <b>해외 확진자 증가 추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 긴급돌봄 지원</li> <li>· 취약계층 마스크 20만개 지원</li> </ul>
	확진:98 완치:15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04.	확진:5,328(+516) 입차:41(+7) 사망: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li> <li>·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 102명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중자 33명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전원, 29명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 33명 대남병원에 남아 코로나19 치료</li> </ul> </li> <li>·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첫코로나19 완치, 정신질환자 진료지침 확정</li> <li>·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254개 지정</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502명(+446명) 3월 15일까지 학교 폐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 확진자 첫 발생</li> <li>·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li> <li>· 코로나19 2차 격리시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추가 지정</li> <li>· 대구 장애인 시설 확진자 5명 시립병원 입원 지원</li> </ul>
	확진:99 입차:26		
'20.03.05.	확진:5,766(+438) 입차:88(+47) 사망: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의료복지시설 푸른요양원 47명 집단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 2명 확진 포함 총 49명 확진자 발생</li> </ul> </li> <li>· 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관련 확진자 첫 발생</li> <l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경북 경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신천지 신도 확진자 중 절반가량 거주(135명), 지역 내 2차 감염 및 집단감염 사례 나타나고 있음</li> </ul> </li> <li>· 대구·경북 3개 생활치료센터 584명 경증환자 입소</li> <li>· 공중보건의 742명 조기입용, 대구·경북 470명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스트레스·불안' 심리상담</li> </ul>
	확진:105 입차:26		
'20.03.06.	심각 확진:6,284(+518) 입차:108(+20) 사망: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한마음아파트 46명 확진자 발생, 코호트 격리</li> <li>· 치료역량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100여개 기관 중심 음압병상 확충 추진</li> <li>· 대구·경북 6개 생활치료센터 756명 경증환자 입소</li> <li>·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등과 함께 격리자, 가족, 의료인 등 전방위 심리지원</li> </ul> </li> <li>· 국민안심병원 290개 지정</li> <li>· (해외)전 세계 감염자 10만명 돌파, 중국(80.6%), 한국(6.5%), 이란(4.7%), 이탈리아(3.8%) 순</li> <li>· (해외)이탈리아 일 확진자 796명, 이란 1,234명 증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지속 증가 추세</li> </ul>	-
	확진:106 입차:26		
'20.03.07.	확진:6,767(+438) 입차:118(+10) 사망: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생활시설 예방적 보호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3.1.) 경북(3.5.) 생활 시설 코호트 격리조치 시행</li> <li>- 전국 요양병원 추가 전수조사 시행(3.12.까지)</li> <li>-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감염병 예방지침 시행</li> </ul> </li> <li>· 대구·경북·천안 8개 생활치료센터 1,110명 경증 환자 입소</li> <li>· 국민안심병원 303개 지정</li> <li>·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격리 등 돌봄 필요한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실시</li> </ul>	-
	확진:112 입차:26		
'20.03.08.	확진:7,134(+367) 입차:130(+12) 사망:50(+6)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충남·충북 지역 10개 생활치료센터 개소, 1,180 입소</li> <li>·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883명(사망자 233명), 롬바르디아 및 북부 14개 주 4월 3일까지 봉쇄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멈춤' 확대</li> </ul>
stage 3_국내 수도권 중심 취약집단 집단감염 증가 / 해외 확진자 급증, 중국 외 국가 유입 확산세			
'20.03.09.	확진:7,382(+248) 입차:166(+36) 사망: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증가(서울 35.1%, 경북 28.1%, 대구 17.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지역 방문 속임, 격리 상태이나 외부 활동 하는 등의 사례 지속 발생 영향</li> </ul> </li> <li>· 대구·경북 지역 확산세 둔화, 천안시 운동시설, 경로당, 노래방, 병원 등 집단발생 증가</li> <li>· 대구·경북지역 치료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개소 등 조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치료센터 총10개소, 1,663명 경증환자 입소</li> </ul> </li> <li>· 코로나19 관련 <b>마스크 5부제</b> 시작</li> <li>· 이탈리아, 이란, 일본 급증세로 이란 교민 귀국 지원 결정</li> <li>·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시작</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7,375명, 사망자 366명으로 높은 치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li> <li>· 자치구 역학조사 강화, 시 차원 '즉각대응반' 지원 강화</li> <li>· 신천지 법인 현장 실태조사</li> <li>· 시청 등 자립근무(SVPN 확대) 기반 구축</li> </ul>
	심각 확진:130 입차:29		
'20.03.10.	확진:7,513(+131) 입차:247(+81) 사망: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본격화</li> <li>·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 2,071명 경증환자 입소</li> <li>·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돌봄 조치, 요양병원 지속 현장 점검</li> <li>· (해외)전 세계 109개국 확진자 11만4천여명, 치명률 3.52%(4,029명)</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9천명대, 한국보다 확진자 많아짐. 스페인 확진자 급증으로 1,650명, 사망자 35명</li> <li>· (해외)WHO 전세계 국가 4가지 유형화(미발생국/발생국/집단감염 발생국/지역사회감염 발생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콜센터 긴급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 구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직원 및 가족 등 집단 확진</li> </ul> </li> <li>·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li> <li>· 「재난 긴급생활지원」 정부 건의</li> <li>· 약국 마스크 판매 일손 지원</li> </ul>
	확진:156 입차:30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1.	확진:7,755(+242) 완치:288(+41) 사망: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구로 콜센터, 대구 콜센터 등 확진자 지속 발생</li> <li>·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마련</li> <li>·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li> <li>· 국민안심병원 312개소 지정 및 이행상황 점검</li> <li>· 생활치료센터 13곳, 2,358명 경증환자 입소</li> <li>· 코로나19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li> <li>· (해외)미국(1,075명) 및 스페인(2,115명) <b>확진자 대량 발생</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콜센터관련 65명, 해외접촉 17명, 은평성모관련 14명 등</li> <li>· 취약계층 마스크 1만장 지원</li> </ul>
	확진:205 완치:37		
'20.03.12.	확진:7,869(+114) 완치:333(+45) 사망: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WHO 질병 경계 수위 최고단계인 팬데믹 선언</b></li> <li>·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li> <li>· <b>특별입국절차 대상 5개 국가 확대, 총 11개 국가 실시</b>                      - (현)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추가)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li> <li>· 14개 생활치료센터 2,470명 경증환자 입소</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12,462명, 사망자 827명, 전국 봉쇄령</li> <li>· (해외)미국 영국 제외 전 유럽 여행 30일간 금지, <b>유럽 각국의 방역 대응방식 급변, 국가별 확진자수 폭증</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년 긴급지원 사업 추진</b>                      - 알바 끊긴 청년 월50만원 청년수당 제공 등</li> <li>· 시민에 온라인 무료 공연 제공</li> </ul>
	확진:219 완치:38		
'20.03.13.	확진:7,979(+110) 완치:510(+177) 사망: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약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li> <li>·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전수 진단 검사 계획 발표</li> <li>·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 보조금 290억 원 지급</li> <li>· 금융당국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대문구 교회·PC방 집단감염 확인</b></li> <li>·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지원로봇 도입</li> <li>·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li> <li>· 서울시 쪽방촌 전 세대에 긴급 구호품 지원</li> <li>· 25개 자치구 모든 임산부에 마스크 총29만매 지급</li> <li>·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li> </ul>
	확진:231 완치:40		
'20.03.14.	확진:8,086(+107) 완치:714(+204) 사망: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li> <li>·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li> <li>·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현황 점검                      - 대구·경북의 생활비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현황 등</li> <li>· (해외)프랑스 16일부터 프랑스 내 모든 교육기관 휴교령</li> <li>· (해외)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감염질환 인해 '09년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li> </ul>	
	확진:244 완치:44		
'20.03.15.	확진:8,162(+76) 완치:834(+120) 사망:7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1. 이후 23일만에 확진자 수 100명 이하로 내려감</li> </ul>	
'20.03.16.	확진:8,236(+74) 완치:1,137(+303) 사망: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일일 확진자 4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 보고</b></li> <li>· 격리해제율 8.8%, 치명률 0.91%, 약 80.7% 집단발생과 연관</li> <li>·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li> <l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발표                      - 건강보험지원 강화, 코로나 치료 필수비용 신속지원, 의료기관 용자 지원 등</li> <li>· 생활치료센터 16개, 2,620명 경증환자 입소</li> <li>· <b>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b>                      - (현)11개 국가→(확대)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전체</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만4천여명, 스페인 8,744명, 전세계 치명률 4.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시민 71.4% 찬성</li> <li>·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제공</li> <li>·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li> </ul>
	확진:254 완치:52		
'20.03.17.	확진:8,320(+84) 완치:1,401(+264) 사망: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43명' vs '대구·경북 37명' 확진자 발생 역전, 수도권 방역 강화</li> <li>· <b>전국 유·초·중·고 4월 5일까지 2주 개학 연장</b></li> <li>· <b>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b>                      - (현)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 (확대)모든 내·외국인 입국자</li> <l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마스크 1만5천여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치료시설 1,800병상 확보</li> <li>· 서울시, 복지일선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6만8천매 지원</li> <li>· 집단감염 높은 사업장 시민제보 불이익 노동자 구제 등</li> <li>· 신천지교 서울내 2개 지파 분부 종합행정조사</li> </ul>
	확진:267 완치:55		

심각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8.	확진:8,413(+93) 완치:1,540(+139) 사망: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 확진, 집단감염 발생</li> <li>· <b>코로나19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394억원, 감염병 대응 대폭 증액</b></li> <li>· <b>보건복지부 추경 3조6675억 원 확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민생경제 지원 등에 투입</b></li> <li>· 한국-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li> <li>· 정부 코로나19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li> <li>· (해외)세계 총 감염자 20만명 돌파, 중국 40.4%, 이탈리아 15.7%, 이란 8%, 독일 5.1%, 대한민국 4.2% 순</li> <li>· (해외)이탈리아 25일만에 누적 확진자 3만 넘어, 2,503명 사망</li> <li>· (해외)국가별 경기부양책, 국민 지원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접촉자 중심 확진 증가</li> <li>· <b>서울시 전국 최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b></li> </ul>
	확진:270 완치:55		
'20.03.19.	확진:8,565(+152) 완치:1,947(+407) 사망: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만에 확진자 100명대 진입, 대구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의한 증가</li> <li>· 총 확진자 8,565명, 격리해제 1,947명, 사망자 91명, 치명률 1.06%</li> <li>·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li> <li>· 이란 재외국민 귀국 지원, 방역 및 의료지원 대책 논의</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3만5천여명, 이란 1만8천여명, 프랑스·미국 9천여명</li> <li>· (해외)보건의료체계별(공공vs민간주도) 감염병위기 대응 역량 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 117.7만 가구 재난 긴급 지원</b></li> <li>· 다산콜센터 공공콜센터 최초 원격 재택근무시스템</li> </ul>
	확진:282 완치:58		
'20.03.20.	확진:8,652(+87) 완치:2,233(+286) 사망: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대실요양병원(64명), 경북 서요양병원 관련(30명) 등 다수 집단감염 발생</li> <li>·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li> <li>·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li> <li>· (해외)총 사망자수 10,000명 이상, 이탈리아 34%, 중국 32.5%, 이란 12.8%, 스페인 8.3%, 프랑스 3.7%...잠정 치명률 4.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 진료센터' 9개소 지정, 유증상 중증환자 즉각 진료</li> </ul>
	확진:300 완치:64		
'20.03.21.	확진:8,799(+147) 완치:2,612(+379) 사망: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교민 귀국(80명), 유증상자 2명, KOICA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시작</li> <li>·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li> </ul>	
	확진:324 완치:64		
'20.03.22.	확진:8,897(+98) 완치:2,909(+297) 사망:1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럽발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재입입 막기 위한 조치 강화</b></li> <li>- 음성이어도 14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통해 사후관리 진행</li> <li>· 복지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li> <li>·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li> <li>· (해외)총 확진자 4일만에 20만~30만 돌파, 중국(27%), 이탈리아(17.8%), 스페인(8.4%), 독일(7.8%), 미국(7.5%) 순, 한국(2.9%)은 8번째</li> <li>·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3,578명, 사망자 4,825명, 잠정 치명률 9.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강행 의사 밝힌 2,209개 교회 현장 점검, 예배 중지 요청 및 7대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 점검</li> </ul>
	확진:324 완치:64		
'20.03.23.	확진:8,961(+64) 완치:3,166(+257) 사망: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진자 64명 중 해외유입 14건(21.9%), 유럽, 미주 유입 사례 지속 발생</li> <li>· 중대본 정례브리핑 비대면 방식 전환,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li> <li>· 유럽발 입국자 유증상 152명 격리시설, 무증상 1,290명 임시생활시설 입소</li> <li>· (해외)전 세계 확진자 전일대비 10.66% 증가, 치명률 4.49%</li> <li>· (해외)이탈리아 등 코로나19 진단 키트 요청 및 한국 대응법 공유 요청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종교집회 및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점검 및 중단 권고</li> </ul>
	확진:330 완치:64		
'20.03.24.	확진:9,037(+76) 완치:3,507(+341) 사망: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진자 76명 중 해외유입 22건(28.9%), 유럽 18건, 미주 4건 등</li> <li>· 중대본, 지자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실시</li> <li>· (해외)중국 신규확진자 78명 중 74명 해외 역유입, 역유입 대책마련 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유입 지속 증가, 미국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li> <li>· 서울시,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li> </ul>
	확진:336 완치:72		
'20.03.25.	확진:9,137(+100) 완치:3,730(+223) 사망: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51건(51.0%), 유럽 29건, 미주 18건, 아시아 4건 등</li> <li>· 3.27.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방안 발표</li> <li>· 저소득층 230만 명 이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쿠폰 지원</li> <li>· 전국 835만명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지정, 월 건강보험료 50% 3개월 간 지원</li> <li>· 코로나19로 운영 어려운 의료기관 위해 총 4,000억원 규모 융자 추진</li> <li>· (해외)미국 2개월만에 확진자 5만명 넘어 새로운 전염지 오명, 10대 사망자도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확진자 발생</b></li> <li>· <b>서울시 8619억원 추경 시의회 본회의 통과</b></li> <li>· <b>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긴급 수혈 "열혈의 약속"</b></li> <li>- 신공공급 확대 및 절차 혁신</li> </ul>
	확진:348 완치:7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26.	확진:9,241(+104) 완치:4,144(+414) 사망: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104명중 해외유입관련 39건(유럽25, 미주11, 아시아 3)</li> <li>· 검역강화 위해 인천공항 옥외 워킹스로 진료소 설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강화</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li> <li>· 개학연장 지속적인 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생활방역 전환 가능</li> <li>· 지자체단체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 속속 발표</li> <li>· (해외)이탈리아 일 사망 743명, 총 7,503명 사망, 치명률 1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구로콜센터 확진자 160명(콜센터 건물 97명, 접촉자 63명), 수도권 내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li>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 신청, 총117만7천가구에 온라인 5부제, 찾아가는 접수 등으로 신속 지원 계획</li> <li>· 서울시, 신천지 법원하가 취소</li> </ul>
	확진:361 완치:81		
'20.03.27.	확진:9,332(+91) 완치:4,528(+384) 사망: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 제이미주병원 62명 집단감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대실요양병원과 동일 건물, 26일 1명 확진 후 직원 72명, 환자 286명 전수조사 결과 61명 추가 확진 판정 받음</li> </ul> </li> <li>·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 87명 공항내 진단검사 후 임시대기시설 대기, 무증상 1,207명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생시 즉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ul> </li> <li>· <b>정부, 만 7세 미만 자를 둔 200만 가구 아동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b></li> <li>· 학원, 종교시설 등 휴원 지속 권고 및 사회적거리두기 이행 상황 점검</li> <li>· 보건복지부, WHO에 한국 방역 대응 현황과 경험 공유</li> <li>· 정부, 코로나19 연구 자료(심평원 청구료 및 연구 성과 등) 국제 공개 방안 마련</li> <li>· (해외)총 확진자 50만명 돌파, 중국 16.2%, 이탈리아 14.86%, 미국 14.8% 등</li> </ul>	
	확진:376 완치:88		
'20.03.28.	확진:9,478(+146) 완치:4,811(+283) 사망:1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누적 완치자가 확진 격리자 넘어서는 2차 골든 크로스 나타남</b></li> <li>· 대구소재 6개 병원 총85명(제이미주 74, 기타 11)확진됨, 대구시 요양병원 두차례 재검, 대구소재 정신병원 전수조사 결정</li> <li>·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li> <li>·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li> <li>· (해외)총 확진자 60만명 돌파, 미국 17.4%, 이탈리아 14.4%, 중국 13.5% 등</li> <li>· (해외)미국 확진자 총 104,463명, 사망자 1,702명, 확진자 10만명 돌파한 첫 번째 나라, 뉴욕 주 44,876명으로 절반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7명 확진자 확인, 접촉자 조사중(교회 4명, 가족 등 접촉자 3명)</li> </ul>
	확진:391 완치:93		
'20.03.29.	확진:9,583(+105) 완치:5,033(+222) 사망:1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41건(39%), 누적 412건(유럽 235, 미주109 등)</li> <li>· 보건복지부, 전국 약 200만 가구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li> <li>· (해외)이탈리아 총확진자 92,472명 사망자 10,023명 최초 사망자 1만명 넘음</li> <li>· (해외)미국 확진자 12만명 넘음, 사망자 이틀만에 두배 증가, 2천명 돌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세계 45개 주요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공동대응 화상회의' 서울의 노하우 공유</li> </ul>
	확진:413 완치:93		
'20.03.30.	확진:9,661(+78) 완치:5,228(+195) 사망:1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전원 14일 원칙적 격리 실시</li> <li>· 심평원 세계 확산 대응 돕기위해 국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공개</li> <li>· (해외)전 세계 확진자 60만 넘은지 이틀만에 70만명 넘어, 미국(18.7%)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5인 미만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관광업 100억원 지원 등</li> </ul>
	확진:434 완치:92		
'20.03.31.	확진:9,786(+125) 완치:5,408(+180) 사망:1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부, 최초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4.9.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b></li> <li>·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연장,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li> <li>·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li> <li>· 이탈리아 교민(530명)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 도착 예정(4.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로 매출감소로 이종고 겪는 임차인지원 위한, '착한 임대인' 선정등 다양한 지원 발표</li> </ul>
	확진:454 완치:107		
'20.04.01.	확진:9,887(+101) 완치:5,567(+159) 사망:1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1.0시부터 모든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격리</b></li> <li>·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연장, 아동 긴급보육 이용률 등 점검</li> <li>·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li> <li>·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92.3%</li> <li>· (해외)유럽 코로나19 이탈리아 주춤, 프랑스·스페인서 기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2일만에 첫 지급 완료</li> <li>· 치매돌봄 등 비대면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제공</li> <li>· 청년 상인이 만든 도시락 취약계층 전달</li> <li>·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li> </ul>
	확진:478 완치:117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02.	확진:9,976(+89) 완치:5,828(+261) 사망:1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발생 약 83.3%는 집단발생 연관성 확인, 기타 조사·분류 중 사례 10.7%, 해외유입 사례가 6.0%</li> <li>· 국내 코로나19 사망 대구 117명, 경북 41명, 경기 6명, 부산 3명, 울산 1명, 강원 1명으로 대구·경북에 집중(93.5%)</li> <li>· 경기도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최근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li> <li>·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직계 가족 총 309명 4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li> <li>·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 투자, 10년간 2천151억원 지원</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인식, 서울시 대처 긍정평가 80.5%</li> <li>· 종합운동장 대규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해외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li>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14만2369명, 25명 지급 완료</li> <li>· 서울시, 교육청-지하구 협력하여 노트북 5만2천여대 지원</li> <li>· 사회적경제기업에 총150억원 규모 '코로나19 특별용자 지원'</li> </ul>
	확진:494 완치:127		
'20.04.03.	확진:10,062(+86) 완치:6,021(+193) 사망: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확진자수 1만명 초과, 첫확진자 발생(1.20.) 이후 74일만</li> <li>· 대구 지역사회전파 시작 이래로(2.18.) 45일만에 일일 확진자 10명 미만</li> <li>· 경북 경산시 60대 개인 내과 의사 사망, 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 발생</li> <li>· 정부, <b>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 마련</b>,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li> <li>·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준비완료, 4.13.부터 지급</li> <li>·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여의도 윤종로 버스노선 임시 우회, '벚꽃축제 보다 잠시 멈춤'</li> <li>·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li> <li>· 서울시, 코로나19 '시 모니터링 콜시스템' 도입</li> </ul>
	확진:513 완치:131		
'20.04.04.	확진:10,156(+94) 완치:6,325(+304) 사망:1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잠정 완치율 62.27%(50% 돌파 일주일 만), 잠정 치사율 1.72%</li> <li>· <b>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19.까지)</b></li> <li>- 목표: 일 확진자 수 50명 수준,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사례 5% 이하로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li> <li>·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특별수송</li> </ul>
	확진:533 완치:144		
'20.04.05.	확진:10,237(+81) 완치:6,463(+138) 사망:1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코로나19 상황가운데 의료인력 안전한 환경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 마련·시행</li> <li>· 해외입국자 GIS 통합상황판 통해 다중 감시체계 구축,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li> <li>- 감염병예방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4.5 시행) 부과</li> </ul>	
	확진:558 완치:145		
'20.04.06.	확진:10,284(+47) 완치:6,598(+135) 사망: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치 후 재확진 사례 51건, 현재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판단</li> <li>·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호소, 국민 피로도 급증</li> <li>·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li> <li>· (해외)일 확진자 10만명 초과, 전세계 확진자 130만명, 미국 확진자 33만명, 사망 9,500여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총50억 긴급지원</li> </ul>
	확진:563 완치:151		
'20.04.07.	확진:10,331(+47) 완치:6,694(+96) 사망: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강행하던 서울시 유흥업소 확진자 발생</li> <li>· 자가격리자 4만6천명, 75명 관련법 위반 사법처리 진행 중</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li> <li>· WHO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조 발제 요청</li> <li>· WHO 국가별 치명률 격차, 전염 확산 수준, 국가 내 주요 감염군, 의료 인프라, 검사 진행 수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첫 사망자 발생</b>, 폐암 투병 구로 콜센터 가족</li> <li>·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li> </ul>
	확진:571 완치:164 사망:2		
'20.04.08.	확진:10,384(+53) 완치:6,776(+82) 사망: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술집(J바), 서래마을 술집(L바) 각각 1명, 3명 확진자 발생</li> <li>· 일본, 동선 거짓진술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li> <li>· 보건복지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방역 대응 경험 공유</li> <li>· 고위험집단 방역강화,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li> <li>·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li> <li>· (해외)미국, 코로나 확진자 40만542명(치명률 약 3.2%)...최대 발생지 뉴욕 사망자수 9.11 테러 넘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강도 '잠시 멈춤' 지속 당부</b></li> <li>· 서울시장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생업소 118명 전원 자가격리, 전수조사</li> </ul>
	확진:581 완치:169 사망:2		
'20.04.09.	확진:10,423(+39) 완치:6,973(+197) 사망:2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 51일만에 최저 수준, 그러나 재확진 사례 증가</li> <li>· <b>국내 사망 204명(4.9.0시 기준)평균연령 77.4세, 203명이 기저질환자</b></li> <li>· 국내 최초 온라인 개학(고3, 중3)</li> <li>· 일본, 유전자 변이 추적 지속,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 발견되지 않아</li> <li>· 단기 대량 검사 위한 "취합검사법" 프로토콜 제작, 집단 감염 선별 유용</li> <li>· 코로나19 대응 손실입은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 개산급 지급</li> <li>· (해외)전세계 확진자수 1,50만명 돌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항문미달무허가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li> <li>· 소형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10만여개 비치</li> </ul>
	확진:592 완치:174 사망: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0.	확진:10,450(+27) 완치:7,117(+144) 사망:208(+4) --- 확진:597 완치:18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li> <li>· 스페인 교민 4월 11일, 13일 두 차례 특별 항공편으로 인천 도착 예정</li> <li>· <b>보건복지부, 3~5월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지역 하위 40%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30~50%)</b></li> <li>· 매칭서비스 통해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용 허가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 노선 우회·주말 한번 더</li> <li>· 서울시, 시내버스 100% 방역...“에어컨 세척으로 코로나19 안심”</li> </ul>
'20.04.11.	확진:10,480(+30) 완치:7,243(+126) 사망:211(+3) --- 확진:600 완치:19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 방안 논의</li> <li>·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 마련</li> <li>· 단거리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의무적 14일 격리(4.1.0시 이후), 현재 81.7% 입소</li> </ul>	
'20.04.12.	확진:10,512(+32) 완치:7,368(+125) 사망:214(+3) --- 확진:602 완치:20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확진자 나흘째 30명 안팎, 완치율 70% 넘어. 그러나 해외 유입, 재확진(111명) 사례 늘어나</li> <li>·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마련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 원칙</li> <li>· 4.13.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4월 신규확진자 중 57%가 20~30대, 나와 취약자들 위해 '잠시 멈춤' 당부</li> </ul>
'20.04.13.	확진:10,537(+25) 완치:7,447(+79) 사망:217(+3) --- 확진:610 완치:214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재확진 현재 116명(4.13.0시), 누적 확진 중 약 1.1%(대구경북 다수)</li> <li>· SNS '사회적 거리두기' 키워드 정보량 최근 5일 사이 약 60% 감소</li> <li>· 금주 후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평가,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여부 논의</li> <li>· <b>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2차례 위반 60대, 구속영장 첫사례</b></li> <li>·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약 230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알바 잃은 892명 청년수당(2개월 1인당 50만원) 조기지급</li> <li>·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규모 인력 투입 보증처리속도↑</li> <li>· 서울시 코로나 블루 방지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li> </ul>
'20.04.14.	확진:10,564(+27) 완치:7,534(+87) 사망:222(+5) --- 확진:613 완치:22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재확진 124명(4.14.0시), 방역당국 바이러스 변이 관계 조사</li> <li>· 美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li> <li>·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 마련</li> <li>· 일본 4.14.(화)부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 공모</li> <li>· <b>WHO 코로나19 특사, 마스크 착용 보편적 일상 될 것...1850년 콜레라 후 적응했던 혁명과 같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3월 감소했던 통행량 4월 증가추세,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li> <li>· 서울시, 주민참여형 마스크 생산단체에 MB필터 74만장 지원</li> <li>· 집에서 박물관 체험...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온라인 VR서비스</li> </ul>
'20.04.15.	확진:10,591(+27) 완치:7,616(+82) 사망:225(+3) ---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확진자 27명 중 11명 수도권, 재확진 지속 증가(133명)</li> <li>·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발열체크, 손세정제 사용, 투표 대기 1m 거리두기, 투표 시 비닐장갑 착용 등 방역 철저</li> <li>· WHO 기준 한국 코로나 위험 '3단계'로 내려와...‘총선 휴일’ 생활방역 전환 고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서울시장, 이란 테헤란 시장 코로나19 대처협력 방안 화상통화</li> <li>· 서울시, 긴급경영안정자금·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상권살리기 노력</li> </ul>
'20.04.16.	확진:10,613(+22) 완치:7,757(+141) 사망:229(+7) --- 확진:619 완치:250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재확진 141명</b>, 검사 오류, 죽은 바이러스 '조각' 가능성 두고 조사</li> <li>· <b>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b>, 고액자산가 제외, '20.3월 기준 건보료 소득하위 70% 해당자</li> <li>·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생활방역 전환 가능성, 준비사항 등 논의</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 국내 임상1·2상 진행 예정</li> <li>· 질병, 코로나19 환자 혈액 및 배설물(노, 분변)을 통한 전파가능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55만 돌파</b>, 1인가구(36.2%), 40대(22.6%) 신청률 가장 높아</li> <li>· 코로나19 마음 돌보는 온라인 캠페인 및 의료진 헌신 감사와 존경 블루라이트 캠페인 전개</li> </ul>
'20.04.17.	확진:10,635(+22) 완치:7,829(+72) 사망:230(+1) --- 확진:621 완치:26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역소 신규 확진자 11명(신규 확진자 중 50% 이상), 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 수칙 철저한 준수 필요</li> <li>·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제 개발「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li> <li>· 국민연금, 위기대응 TF가동 등 코로나19 대응</li> <li>· 생활방역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아프면 쉬다', '손씻기', '2회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 지침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 97% 생활방역 전환 필요, 그러나 63.6% 아직 이르지, 통제 가능 대응체계 갖춰야</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8.	확진:10,653(+18) 완치:7,937(+108) 사망:2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확진자 163명, 대구 41.1%, 재발까지 13.5일 소요, 무증상 52.6% 등, 2차 전파 여부 단정 못해</li> <li>· 논산 훈련소 2명 확진자 발생(전날 포함 3명, 모두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 우려</li> <li>· 4.1.~12. 해외입국자 일평균 3,611명, 20~30대 40%, 해외유학생 등 입국 지속</li> <li>· 4.11. 1차 입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중 12명 유증상, 1명 양성 판정</li> </ul>	
	※미발표		
'20.04.19.	확진:10,661(+8) 완치:8,042(+105) 사망:2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 국민 36.7% 동의, 63.3% 반대</li> <li>· <b>중대본, 5월 5일 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불확실한 감염경로, 세계적 대유행 등 위험요인 존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보산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등</li> <li>- 일상 복귀 아닌,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li> </ul> </li> <li>·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li> <li>· 보건복지부,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제로 비결 알려달라, 남미 45개국 지하철 운영 협회 요청으로 화상회의 진행</li> </ul>
	확진:624 완치:288 사망:2		
'20.04.20.	확진:10,674(+13) 완치:8,114(+72) 사망:23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유입 확진자 1,006명(4.20.0시), 20~30대 비율 높고, 지역 사회 감염 유도 확진자 6.1% 157명 확진자 발생</li> <li>· 보건복지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li> <li>· 코로나19 예방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 마련,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좌석 간격은 1.5m 이상</li> <li>·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 온라인 개학</li> <li>· 교육부 5월 고3부터 단계적 등교 개학여부 다음 주 확정, 오늘 초1~3 온라인 개학, 접속장에 최대 고비</li> <li>· 전 세계 확진자수 2,335,433명(치명률 7.02%), 전일대비 3.24% 증가 (영국 5.12%, 미국 3.19%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박원순 시장, 글로벌 리더들과 '코로나19 화상 세미나' 서울시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 소개</b></li> <li>· 서울시, '코로나19 운영난' 어린이집 고용유지 위한 인건비 75억, 방역물품 63억 긴급지원</li> <li>· 서울시 모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근로자 2개월 최대 100만원까지</li> </ul>
	확진:624 완치:304 사망:2		
'20.04.21.	확진:10,683(+9) 완치:8,213(+99) 사망:2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b>, 후속 조치 원활한 추진위한 추진 체계 구축, 법령 개정 등 추진</li> <li>· 공공 실외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b>제한적 개방 계획</b></li> <li>· 교육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논의, 초·중·고 등교 시기방법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여부 연계해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 원</li> <li>·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2,834개 임대시설료 6개월간 50% 감면</li> <li>· 코로나19 기간 동안 3만여 노인에 맞춤형봉사서비스 제공</li> </ul>
	확진:626 완치:315 사망:2		
'20.04.22.	확진:10,694(+11) 완치:8,277(+64) 사망:2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경보 두달째 '심각', 정부 '하향 검토 안해'</li> <li>· 중화항체 형성 된 완치자 중 48% 코로나19 양성 반응, 바이러스 체내 잔류 기간 차이 등 추가 연구 진행 예정</li> <li>· <b>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2회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b></li> <li>·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국제사회 협력 요청 체계적 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감염취약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비접촉식 체온계 6만5천개 지원</li> <li>· 의료인 한신에 감사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 참여 잇따라</li> </ul>
	확진:628 완치:322 사망:2		
'20.04.23.	확진:10,702(+8) 완치:8,411(+134) 사망:2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사망자 240명(4.23.0시), 치명률 2.24%, 대각경북 90.9%, 65세 이상 85.8%</li> <li>· <b>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 6개 병원(7,500병상) 시·도·위 최소 유지 감축조정</b></li> <li>·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합시다) 4.16시작 8일째 진행 중 각처 감사존경 이어져</li> <li>·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강화, 감염병병원체 관리 안전성 확보,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70만원×2개월 현금지급</li> </ul>
	확진:628 완치:342 사망:2		
'20.04.24.	확진:10,708(+6) 완치:8,501(+90) 사망: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제·백신개발 동향 점검,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li> </ul> </li> <li>·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초안) 공개</li> <li>·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상황 점검</li> <li>· <b>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안심밴드 4.27.부터 착용 관리 예정</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li> <li>·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15%이상 고리 대출→1.5% 저금리 전환</li> <li>· 서울교통공사, 사랑의 헌혈·농산물 기부로 코로나19 극복 동참</li> </ul>
	확진:628 완치:362 사망: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25.	확진:10,718(+10) 완치:8,635(+134) 사망:240(-)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예술 통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제공 계획</li> <li>· 4.11. 1차 귀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4.26. 임시생활시설 퇴소 - 4.13. 2차 입국 스페인 귀국 국민 43명, 4.28. 자가격리 조치 해제 예정</li> </ul>	
'20.04.26.	확진:10,728(+10) 완치:8,717(+82) 사망:242(+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코로나19 정부 대책 실효성 향상 위해 '<b>코로나19 정책 대응 패키지 홍보 강화 계획 마련</b> 논의</li> <li>· 사회복지시설 방역관리 이행 사항 점검 - 1단계 시설 전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2단계 지자체 중 10% 선정 현장점검 실시, 3단계 보건복지부 일부 시설 지자체와 합동점검 5.1.까지 완료</li> </ul>	
'20.04.27.	확진:10,738(+10) 완치:8,764(+47) 사망:243(+1) 확진:629 완치:39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관련 부처별 방역지침 마련, 공공 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 마련</li> <li>·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중 확진자 발생 기관 대상 주2회 주기적 재검 실시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제1회 WEA 컨퍼런스:팬데믹과 동아시아」 주제 발표</li> <li>· 서울시민, 감염병 대유행 직후 '실업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 인식(서울서베이)</li> </ul>
'20.04.28.	확진:10,752(+14) 완치:8,854(+90) 사망:244(+1) 확진:633 완치:427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발생 100일</b>, 중국 유입→신천지, 대구·경북 중심 지역 사회 전파→수도권 집단감염→해외유입 확산</li> <li>· <b>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1차 회의 개최</b>                      -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계획안 및 「K-방역」주제별 웹세미나(webinar) 시행계획안에 대해 협의하였음</li> <li>· 안심밴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등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li> <li>· 국민안심병원 시행(2.24.)이후 현재 상급종합병원 29개 포함, 총347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 월말까지 사용 연장(4.26. 현재 144만 가구 신청)</li> <li>·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 급지원 15억 추가 투입</li> <li>· 장애인활동지원사 3만명 방역물품지원</li> </ul>
'20.04.29.	확진:10,761(+9) 완치:8,922(+68) 사망:246(+2) 확진:633 완치:437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확진 277명(4.28.기준) <b>바이러스 재활성화 불가능</b>, 완치 후 민 감도 높은 PCR 검사시 잔재 검출 확률 높아</li> <li>· 확진자 5% 소아·청소년, 신천지 관련 41.6%, 성인보다 증상 경미, 사망하거나 중증 진행한 환자 없었음</li> <li>· <b>연휴기간(4.30.~5.5.) 지자체별 코로나19 대비 특별방역대책 마련</b></li> <li>· 대구·경북 16개 생활치료센터 4.30. 운영 종료(총3,037명 환자 완치)</li> <li>·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긴급사용승인 총 4개, 복지부 등 취득 온라인 설명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b>코로나19 대응 최신 지침 앱으로 확인, 전국 최초 모바일 서비스</b></li> <li>·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날 행사 전면 취소</li> </ul>
'20.04.30.	확진:10,765(+4) 완치:9,059(+137) 사망:247(+1) 확진:633 완치:45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4명 모두 해외유입, <b>국내 발생 최초 0명 기록</b></li> <li>·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활발히 진행</li> <li>· 황금연휴 기간 관광지 및 인근지역 방역수칙 점검 강화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경제부담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기금 금리 대폭 인하</li> </ul>
'20.05.01.	확진:10,774(+9) 완치:9,072(+13) 사망:248(+1) 확진:634 완치:45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부분적 운영 재개 계획 발표</li> <li>· 체류 자격 상실한 약39만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관리 방안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5일 프루야 구 개막 앞두고 경기장 방역 직접 챙겨</li> <li>· 코로나19 지친 시민 응원 위한 '산속영화관;자동차 극장', 온라인 전시 오픈</li> </ul>
'20.05.02.	확진:10,780(+6) 완치:9,123(+51) 사망:250(+2) 확진:635 완치:46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수도권 일부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 서울 구로구, 은평구,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 전체 요양 병원 6,544명. 코로나19 검체취합검사 방법 활용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li> <li>· 선별진료소 발생 초기 257개소(1.27.), 최대 639개소(3.20.)확 대, 운영 축소해 현재 638개소(5.1.)운영 중                      - 코로나19 발생 양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등 다양화 운영                      - 향후 운영성과 평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 계획 중</li> </ul>	
'20.05.03.	확진:10,793(+13) 완치:9,183(+60) 사망:250(-) 확진:637 완치:47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발표</b>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신규 확진자 감소, 집단발생 감소, 방역망 내 관리 비용 안정화                      - 운영중단 공공시설 위험도 고려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 운영 재개                      - 생활속 거리두기 개인, 집단 방역 기본 수칙 및 보조수칙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제2회 추경 통해 <b>총2조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b></li> <li>· 5월 어린이날 공원 내 모든 행사 전면 취소</li> <li>· 생계위기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 원 현금지급</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5.04.	확진:10,801(+8) 완치:9,217(+34) 사망:2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주관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함께 “K-방역 제1차 웹세미나” 개최</li> <li>· 국민대상 생활방역 의견수렴, “아프면 3~4일 쉬는게 제일 어려워”</li> <li>· 중대본 건강보험 선지급제도 5월에서 6월까지, 1개월 연장 추가 지원</li> <li>·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전화상담·처방 운영 개선 등</li> </ul> </li> </ul>	
	확진:637 완치:481 사망:2		
'20.05.05.	확진:10,804(+3) 완치:9,283(+66) 사망:25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 감축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3.)9개병원 500여개 병상,(4.28.)8개병원 1,200여개 병상 감축</li> <li>- 5월 6일 7개 전담병원 지정해제 등 총 1,725병상 감축 계획</li> </ul> </li> </ul>	
	확진:637 완치:489 사망:2		
'20.05.06.	확진:10,806(+2) 완치:9,333(+50) 사망:2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치료제 분야 14개사(社)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 지원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개발 현황, 기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리 중임</li> <li>-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5월 6일(수)과 7일(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방역협조 요청 천주교, 기독교계 대표와 만남</li> <li>· <b>서울형 생활속 거리두기 발표</b></li> <li>· <b>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 방문 2백만부 돌파</b></li> <li>·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li> </ul>
	확진:637 완치:494 사망:2		
'20.05.07.	확진:10,810(+4) 완치:9,419(+86) 사망:2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용인 66번 확진자 발생</b>, 연휴동안 <b>이태원 클럽 5개 업소 방문</b> 및 수원, 성남, 강원도 등 방문, 전 지역 추가확산 우려</li> <li>· 생활속 거리두기 국민 참여 위한 홍보 적극 진행,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계획</li> <li>·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관하여 정책과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 정보 전 세계 알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콜롬비아 부통령에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li> <li>· 시립 은평병원, 코로나19 극복위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행동지침’ 안내</li> </ul>
	확진:637 완치:508 사망:2		
'20.05.08.	확진:10,822(+12) 완치:9,484(+65)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15명 이상 추가, 총 19명</li> <li>· 중대본 이태원 클럽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상황 공유 위한 긴급회의 소집</li> <li>· <b>클럽 등 유흥시설 한달간 행정명령 시행(5.8.20시부터)</b></li> <li>·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li> <li>· 코로나19 상사감시체계 강화 위한 SARI, ARI 감시대상 의료기관 확대 운영</li> <li>·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 본격 가동</li> <li>· 식문화 개선, 외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 계획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관했던 63개 문화시설 단계별 운영 재개</li> <li>·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 국 최초 현금지원 시작</li> <li>· <b>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 긴급점검</b></li> </ul>
	※미발표		
'20.05.09.	확진:10,840(+18) 완치:9,568(+84)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확진자, 검사 수요 다시 급증</li> <li>·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실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중심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 점검</li> </ul> </li> <li>·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b>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발표</b></li> <li>· 용인66번 확진자 관련 동선 조사, 1,500여명 대상 유선 출입여부 및 동선 확인 등</li> </ul>
	※미발표		
'20.05.10.	확진:10,874(+34) 완치:9,610(+42)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시 확진자 관련, 지자체별 유흥시설 합동점검 실시, 접촉자·방문자 신속 진단검사 추진 중, 주말 비상 선별검사체계 지속 유지</li> <li>· 중대본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발표</li> <li>· 5.13.~5.29.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 현황 현장 점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 코로나19 경각심 30~40대 가장 높아, 76.5% 서울시 대응 신뢰, 당면과제 1순위 경제 회복</li> </ul>
	확진:669 완치:541 사망:2		
'20.05.11.	확진:10,909(+35) 완치:9,632(+22)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86명(5.11.0시), 수도권 79명, 남성 78명, 20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아</li> <li>·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으로 등교수업 일정 조정, 고3 등교수업 당초 5.13.에서 5.20.로 1주 연기 등</li> <li>· 중대본, 코로나19 지역사회 취약집단 시설 강화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단검사 적용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익명 검사도 불사</b>, 유사유흥업소 방역수칙 단속 강화</li> <li>· 서울시, 대중교통 6월 중 혼잡도 회복 예상, ‘생활 속 거리두기’방안 발표 “승객 분산·혼잡시 마스크 필수”</li> </ul>
	확진:690 완치:547 사망:2		

심각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5.12.	확진:10,936(+27) 완치:9,670(+38) 사망:2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102명(5.12.0시), 첫 환자 보고 9시간 만에 100명 넘어(클럽 방문자 73명, 그 외 29명)</li> <li>·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 일4,000~5,000건 수준 진단 검사 1만 2000건 이상으로 증가(5.11일 4,604건 → 5.12일 12,398건)</li> <li>· 중대본 ARI, SARI 등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 코로나19 감염 추가, 대상 의료기관 확대 환자 발생 감시</li> <li>· 보건복지부 '20년 상반기 '적극 행정통한 코로나19 방역', '국민 건강 보호', '신속한 경제지원' 등 행정 우수사례 발표</li> <li>·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 180만7715가구 신청, 서울 40여만 가구, 경기 47만여 가구 등 수도권이 48.1%</li> <li>· (해외)중국 다시 두 자릿수 확진자 증가 비상, 무증상 슈퍼전파자, 우한에서도 다시 집단감염 사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개소, 300~400명 진출...익명조사 실시 후 검사건수 2배가량 증가</li> <li>· 서울시 기지국 접촉자 10,905명, 카드이용자 494명 명단 확보, 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li> <li>· 박원순 시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토론회 기조 연설 통해 '표준도시 서울' 만들기 5대 비전 제시</li> </ul>
	확진:703 완치:554 사망:2		
'20.05.13.	확진:10,962(+26) 완치:9,695(+25) 사망:2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집단감염 119명(5.13.19시), 서울 확진자 69명, 대다수 확진자 2~30대로 활동반경 넓고 접촉자 많아</li> <li>· 이태원 클럽·주점 9곳 방문자 전수조사, 신용카드 내역 조회, 기지국 접촉자 파악 등 방문자 신속 추적 노력</li> <li>·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5월 13일 제2차 웹세미나 개최(5.4. 1차 웹세미나 73개국 903명 시청)</li> <li>· 코로나19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손실보상' 신속 지급, '용자지원 확대', '건강 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 추진 결정</li> <li>· 외교부 코로나19 모범 대응 등 국제사회 신뢰 바탕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3번째 사망자 발생, 82세 남성 3월 완치 후 급성호관중후군으로 숨져</li> <li>· 서울시 익명검사 실시 후 보건소 검사수요 6~10배 폭증(12일 8,343건)</li> <li>· 서울시 '무증상 전파' 확산 차단 위해 '선제 검사 위원회' 설치, 풀링 검사 등 해법 찾아갈 계획</li> </ul>
	확진:708 완치:558 사망:3		
'20.05.14.	확진:10,991(+29) 완치:9,762(+67) 사망:2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신규 확진 29명(5.14.0시)중 26명 국내발생, 3차 전파 추정 사례보고, 4차, 5차 등 'N차 감염' 연쇄감염 가속 우려</li> <li>· 15개 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11개 시도 감염검사 시행, 9개 시도 대인접촉 금지 등 확산 방지 지속 조치</li> <li>· 학부모 불안감 커져, 교육부 이번 주중 방역 당국 분석 지켜보며 다음 주 초 등교 추가 연기 여부 발표</li> <li>·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발표, 방역·예방, 검사 진단, 치료 등 3단계 산업 육성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4번째 사망자 발생, 61세 남성 3월 완치 후, 세균성 폐렴으로 숨져</li> <li>· 서울시 익명검사 도입 후 검사건수 8배 증가, 누적 검사수 2만4082건, 박원순표 '익명검사' 전국 확대</li> <li>· 서울시 15일부터 학원 1212곳 방역지침 준수 점검</li> </ul>
	확진:714 완치:564 사망:4		
'20.05.15.	확진:11,018(+27) 완치:9,821(+59) 사망: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보건장관, 코로나19 대응 보건 협력강화 방안 논의</li> <li>· 제7차 건강심,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 적극,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li> <li>·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상황 점검</li> <li>·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극복 위한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 극복 희망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li> </ul>
	확진:725 완치:569 사망:4		
'20.05.16.	확진:11,037(+19) 완치:9,851(+30) 사망:262(+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5.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총 36,926명(국내 발생 5,096명, 해외 입국 31,830명),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ICT 활용 관리 방안 지속 운영</li> <li>· 생활속 거리두기 지속 홍보 및 29,607개소 방역수칙 준수 점검</li> </ul>	
'20.05.17.	확진:11,050(+13) 완치:9,888(+37) 사망: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2주간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했지만, 통제력은 체계가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로 유지되고 있어" - 신규 확진자 1일 평균 18.4명, 치료중 환자 1,000명 이하 감소 등</li> <li>· 지자체 경찰, 수위처 합동 전국 유흥시설 8,925개소 심야 특별점검 실시(5.16.) - 6,768개 유흥시설 영업 중지, 위반사실 13건 발견 행정지도 실시</li> <li>· 5.18.부터 약 8주간, 군입대 장병, 입영 전 코로나19 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 1,000명, 이태원 집단감염 '적극검사 명령 적절했다 75%', '익명검사 도움됐다 95.2%'</li> </ul>
	※미발표		
'20.05.18.	확진:11,065(+15) 완치:9,904(+16) 사망:26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자 35,707명(5.17.18시), 무단이탈 사례 현재까지 총408건</li> <li>· 문 대통령 WHO 최고 의결기관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코로나 백신·치료제 인류 공공재...공평한 보급을"</li> <li>· 재양성 확인 사례 447건 분석, 재감염 사례없어, 감시 중단 결정</li> <li>· 해외입국자 집결하는 광명역 '종합정보센터' 설치, 수송정보 파악, 제공</li> <li>· 생활속 거리두기 지속 홍보·보완, 공공시설 단계적 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 검사 독려, 선별 진료 보장, 위험시설 단속 등 확산 방지 총력</li> <li>·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70만원x2개월 현금지급</li> <li>· 서울시, 모든 장애인 38만 명에 1인 5매씩 마스크 지원</li> </ul>
	확진:736 완치:579 사망:4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5.19.	확진:11,078(+13) 완치:9,938(+34) 사망: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 강남병원 방사선사 코로나19 확진 '병원 폐쇄', <b>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 확진</b>, 병원발 집단감염 우려</li> <li>· 정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 기준 시설 위험도 평가에 따른 방역 수칙 차등 적용,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li> <li>· 코로나19 79일간 5차례 연기 끝에...20일 고3 첫 등교</li> <li>· 교육부, 코로나19 의심 증상 모든 학생 선별진료소 무료 전수조사, 등교 후 증상자 별도관리 후 선별진료소 이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 준비, 서울시민의회 3천명 시민과 100일 토론</li> <li>· <b>서울시, 민생경제 살리기 6차 특단의 조치, 4대 제조업 3천만 원 긴급지원</b></li> </ul>
	확진:750 완치:587 사망:4		
'20.05.20.	확진:11,110(+32) 완치:10,066(+128) 사망: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환자 196명, 클럽 방문 95명, 접촉자 101명 중 3차 전파자 25명, 4차 전파자 4명</li> <li>· 삼성서울병원 검사 1,207명 중 641명 '음성'...555명 결과 대기, 접촉자 124명 자가격리, 1083명 능동감시중</li> <li>·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근간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li> <li>· 고3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 발생, 인천·안성 75개 학교 귀가조치 또는 등교 중지, 추후 등교 여부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삼성서울병원 합동상황반 운영(5.18.~)</b>, 본관3층 수술장 폐쇄 및 긴급방역,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li> <li>·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b>'감염병 대응 세계 표준 도시'</b>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획기적 강화</li> </ul>
	확진:753 완치:592 사망:4		
'20.05.21.	확진:11,122(+12) 완치:10,135(+69) 사망:2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발 코로나 15일 만에 200명 넘어, 무증상 감염자 등으로 인한 n차 감염 지속예상, 추적 어려워</li> <li>· 고3 등교 첫날 전국 출석률 95.2%, 결석 2만여명, 다음주 예정대로 초중고 등교개학 실시 할 것</li> <li>· 방대본 코로나19 전파 규모 확인 위한 인구면역도 조사 실시, 항체 형성률 높지 않을 것(뉴욕 21.2%, 스페인 5% 등)</li> <li>· 지방재정법 등 개정안 통과, 칸막이로 적립만했던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6조원 '코로나19' 활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마감, 233만 가구 신청, 유통, 요식 등 '생계형 소비'에 79%쓰여</li> <li>· 서울시, 도심권 종로구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2024년 개소</li> </ul>
	확진:756 완치:596 사망:4		
'20.05.22.	확진:11,142(+20) 완치:10,162(+27) 사망: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시설(유흥·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9개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이행방안 논의</li> <li>-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기준 시설 위험도 평가, 각 시설을 고·중·저위험시설로 구분</li> <li>·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상 30개 추가, 상시 중앙감염병병원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569개 <b>코인노래 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b></li> </ul>
	확진:759 완치:599 사망:4		
'20.05.24.	확진:11,190(+25) 완치:10,213(+19) 사망:2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간(5.10.~23.)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산발적 전파 지속</li> <li>- 일평균 확진자수 23.2명, 집단발생 5건, 감염경로 불명 비율 6.8%,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미만</li> <li>- 통제수준 하에 있으나 산발적 전파 지속 되고 있어, 지역확산 차단에 총력</li> <li>· <b>역학조사 출입자 명부 정확성 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삼각 및 경계 한시 운영)</b></li> <li>·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중증고위험군 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사업 진행</li> <li>- 지출비용보전형: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출 한 시설과 장비비 지원</li> <li>- 병동형: 병상 확보 위해 음압병상 확충 의료기관에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li> <li>·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 지속 점검, 자가격리자 지속 관리</li> </ul>	
	확진:775 완치:607 사망:4		
'20.05.25.	확진:11,206(+16) 완치:10,226(+13) 사망:2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간 위험도 평가, 신규확진자 늘었지만,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하지 않을 것, 대응 가능 범위 판단</li> <li>· 교육부, 감염 우려 높은 지역 등교 인원 2/3 넘지 않도록 강력 권고</li> <li>· <b>교통분야 방역 강화</b>,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버스와 택시는 26일, 비행기는 27일부터</li> <li>·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3차 추경 및 '21년 예산 대규모 편성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주말동안 유흥시설 808개소 점검 및 단속</li> </ul>
	확진:776 완치:607 사망:4		
'20.05.26.	확진:11,225(+19) 완치:10,275(+49) 사망:2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인천·경기도 등 이태원 클럽 관련 추가 확진자 방역 상황 지속 관리</li> <li>· 이태원발 56차 감염사례 무더기 발생, <b>쿠방 물류센터 감염자 등 산발적 전파 지속</b></li> <li>·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두 건 신고 돼, 방역당국 정밀조사 진행</li> <li>· 정부, 코로나19 대응 K-방역 기술 수출 위한 TF 구성, 본격 가동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및 재창업 컨설팅 돕는 <b>'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대폭 확대</b>, 전년 대비 약 40% 급증</li> </ul>
	확진:792 완치:614 사망:4		
'20.05.27.	확진:11,265(+40) 완치:10,295(+20) 사망: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사용 기준' 등 현장에 맞게 추가개정</li> <li>· 오식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굴, 우수 음식점 100개소 선정 등 각지역 전파 예방</li> <li>·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중남미 등 세계 대상 '제3차 K-방역 웹세미나' 개최</li> <li>· 교육부, 2차 개혁(5.27.) 총 20,902개 기관 중 561개(2.7%) 등교수업일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13개구 즉각대응반 파견, 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li> <li>· 이태원 클럽 관련, 강서구 (미술학원·유치원), 삼성서울병원 관련 집중 대응</li> <li>· 고위험시설 현장점검 지속 실시</li> </ul>
	확진:807 완치:618 사망:4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5.28.	확진:11,344(+79) 원차:10,340(+45) 사망: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천 구방 관련 확진자 82명(5.28. 11시)</b>, 근무자 및 방문객 4156명 전수조사</li> <li>· 서울 중구 콜센터 8명 누적 확진, 동일 층 직원 등 110명 자기격리 및 검사</li> <li>· <b>정부 2주간(-6.14.) 수도권 지역 방역 집중 강화, 공공시설 운영 전면 중단</b></li> <li>· 부차발 코로나19 확산 속 838개교 등교 중지 수도권 등교수업 여부 긴급대책 논의</li> <li>·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지침 개정·발간...임상 촉진하는 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무증상→집단감염 선제적 차단" 학교 기숙사 입소자, <b>일반인 선제검사 공개모집</b> 등 추진 계획</li> <li>· 박원순 시장 스탠포드대 화상 미팅 요청 응답, KS 방역 공유</li> </ul>
	확진:828 원차:621 사망:4		
'20.05.29.	확진:11,402(+58) 원차:10,363(+23) 사망: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17개 의료기관 대상, 음압병실 83개 확충</li> <li>· 6.1.까지 유통기업 물류센터 32개소 점검(관계부처-지자체)</li> <li>·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금 지급(66개 병원, 1,308억원)</li> <li>· 6.1.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휴원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70만원x2개월) 접수 사흘만에 23만명 넘어</li> </ul>
	확진:846 원차:623 사망:4		
'20.05.31.	확진:11,468(+27) 원차:10,405(+7) 사망:2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간 방역 및 위험도 평가, 일평균 신규확진자 18.4→28.9명, 집단발생 1→12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증가(7.4%)</li> <li>·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 대상 전방위적 방역 점검 실시</li> <li>· 노동자 밀집도 높은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사업장 1,750개소 방역관리 강화</li> <li>·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 고위험시설 선정, 방역수칙 마련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관내 기숙사 입소 학생 6,207명·영어유치원 종사자 595명 대상으로 코로나19 <b>선제검사 본격 추진</b></li> </ul>
	확진:861 원차:627 사망:4		
'20.06.01.	확진:11,503(+35) 원차:10,422(+17) 사망:2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 개장 대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침 배포</li> <li>· 자기격리 총 37,812명(5.31.), 해외 입국 격리자 28,924명, 국내 발생 8,88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개학에 따른 유증상 학생교직원 8,950명 검사, 7명 확진(미취학 2명, 초 2명, 중 2명, 고 1명)</li> </ul>
	확진:863 원차:627 사망:4		
'20.06.02.	확진:11,541(+38) 원차:10,446(+24) 사망:2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38명 중 수도권서 36명, 서울·경기·인천 위험시설 점검</li> <li>· <b>인천 개척교회 확진자 24명</b> 중 17명(71%) 무증상 종교모임 등 연쇄 전파 지속</li> <li>· 전자출입명부 17개 시설 대상 사범사업(6.1.~6.7.), 6.10.부터 고위험시설 본격 도입</li> <li>·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 2020' 3일차(6.3.) 세계 도시 방역책임자들과 대응 논의</li> <li>·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함내래 서울 나눔 캠페인』 시작</li> </ul>
	확진:878 원차:638 사망:4		
'20.06.03.	확진:11,590(+49) 원차:10,467(+21) 사망:2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경정 예산(안) 1조542억 원 편성</li> <li>·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임상시험 1,000억원 이상 긴급 지원</li> <l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마련·배포</li> <li>·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최대 3천만원 제조업체 '긴급수출자금' 5일 접수 시작</li> <li>·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 '서울유스호스텔'에 개소</li> </ul>
	확진:896 원차:639 사망:4		
'20.06.04.	확진:11,629(+39) 원차:10,499(+32) 사망: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 리치웨이</b>, 총 10명 확진자 나와, 현재 총 199명 검사 진행중</li> <li>·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진단검사 거부자 신고 절차, 정보공개 기준 등 마련, (2)고위험병원체 취급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함</li> </ul> </li> <li>·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환자 분류, 병상배정, 중증환자 이송 등 협력체계 구축</li> </ul> </li> <li>· 일본 '청' 승격에도 인력(907명→746명), 예산(8171억원→6689억원)감소, 전문성 등 확보 후속작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선제적 검사 1일차, 4개 고 1,275명 검사 완료</li> <li>· 박원순 시장 '총, 균, 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 대담</li> <li>· 영세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9,073개소 64억원</li> </ul>
	확진:916 원차:644 사망:4		
'20.06.05.	확진:11,668(+39) 원차:10,506(+7) 사망: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치웨이 무더기 확진, 누적 확진 29명(6.5.12시), 대부분이 60~70대</li> <li>·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 총 73명(6.5.0시), 소모임 연기 또는 비대면 진행 당부</li> <li>· 수도권 코로나19 재생산지수 1.9로 상승, '깜깜이' 환자 비율 9.7%(6.5.)</li> <li>·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li> <li>· 기재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후 일평균 집행액 62.4% 증가(일8억7천만원)</li> <li>· 통기성 높은 비말차단 마스크 개시, 성능은 KF55와 KF80 사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CAC 글로벌 서밋 2020' 5일간 대장정, 도시간 협업체 설립, 서울선언문 등 성과와 과제 정리</li> <li>·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6.5.부터 신청, 예산 200억원</li> </ul>
	확진:929 원차:645 사망:4		
'20.06.07.	확진:11,776(+57) 원차:10,552(+21) 사망: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간 방역 및 위험도 평가, 일평균 신규확진자 23.2→39.6명, 집단발생 5→19건, 감염환자 비율 증가(8.7%)</li> <li>· 방문·다단계 판매업 집중 점검(6.8.~6.19.)</li> </ul>	
	※미발표		
'20.06.08.	확진:11,814(+38) 원차:10,563(+11) 사망: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 38명 중 수도권 33명, 클럽, 물류센터, 교회, 방판업체, 탁구장 집단발생</li> <li>· 중대본, 물리적 거리 1m 유지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 약82% 감소, 마스크 착용시 85% 이상 줄일 수 있어</li> <li>·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검체채취 키트 비축 관리, 35만개 별도 확보, 비상상황 대비할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민선7기 무증상자 코로나19 무료 검사</b> 주 최대 1,000명</li> <li>·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3회 추경(안) 2조 2330원 편성</li> <li>·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2탄, 총 50억원 투입</li> </ul>
	확진:997 원차:651 사망:4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6.09.	확진:11,852(+38) 원차:10,589(+26) 사망:2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신규확진자 349명 중 303명 <b>수도권 발생(6.9.0시)</b>, <b>연세감염 지속시 대유행 우려</b></li> <li>· 방역 방해 수칙 위반 시 신속 수사, 엄정한 처리, 구상권 청구 등 강도높은 대응</li> <li>·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일(3.2.~) 총29개소, 4,915명 입소, 3,955명 원치 성과</li> <li>· 감염병 확산 추이한 식문화개선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마스크 쓰기'</li> <li>· 코로나19 'K-방역 정책 및 기술 전 세계 공유'한 제5차 웨비나 개최(6.10.)</li> <li>· (해외)WHO 코로나19 일 13만6000건 확진 75% 아메리카, 남아시아·약화중</li> <li>· (해외)뉴질랜드세계 최초 종식 선언,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가 방역 성공 요인</li> <li>· (해외)UC버클리 연구진, 코로나19 억제 정책 효과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없었다면 한국 10명 중 7명 감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5천명에 <b>'청년월세 지원'</b>, 월 20만원 최장 10개월</li> <li>· '50+프리랜서 비대면 역량 강화 프로젝트' 진행(200만 원 활동비 지원, 교육 등)</li> </ul>
	확진:1,019 원차:664 사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전국 고위험시설 도입</b></li> <li>· 확진자 동선 정보 내 방문 업소 정보삭제(14일 지난 동선정보)</li> <li>· 복지부, 영국, 미국, 일본 등 12개 보건 장관급 화상원탁회의,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공유</li> <li>· 정부, 코로나19로 2개월 연속 수출 20% 이상 감소, 어려움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위한 2000억원 추가 투입</li> <li>· '2020년 특별 여행주간' 일정 연기 및 기간 축소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자치구 선별진료소 '글로벌월' 지원...의료진·검사자 동선·공간분리</li> <li>·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유망 <b>스타트업 지원, 3대 육성 전략에 1,750억 원 투자</b></li> </ul>
'20.06.10.	확진:11,902(+50) 원차:10,611(+22) 사망:2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단기기 개발 위해 업계 등에 코로나19 양성 검체 1천700건 분양</li> <li>· 정부, K방역 모델 세계 표준화 로드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3T(Test-Trace-Treat) 체계화</li> </ul> </li> <li>· 교육부, 고3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코로나19 피해사항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폐쇄 여부, 등교중지 기간, 온라인 학습 기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35만건 심사완료, 15일부터 방문접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소상공인 140만명(2개월) 지원</li> </ul> </li> </ul>
	확진:1,029 원차:666 사망:4		
'20.06.11.	확진:11,947(+45) 원차:10,654(+43) 사망:276(-) 확진:1,048 원차:675 사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치웨이 관련 23명 추가 확진, 총 1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78, 경기 39, 인천 18 등, 65세 이상 44.6%, 수도권 집단발생 8건</li> </ul> </li> <li>· <b>중대본 수도권 방역 강화, 신규확진 한자리수 쉼때까지 무기한 연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방역강화에도 이동량 전주 대비 96%수준으로 변화 없어</li> </ul> </li> <li>· 복지부 코로나19 보건·방역 분야 예산 상반기 집행 8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화 대비 예산 전용, 추가편성 등 적극 대응</li> </ul> </li> <li>· 교육부, 수도권 유·초·중·고 '교내 밀집도 최소화' 지침 연장</li> <li>· 코로나19 연말까지 치료제 개발 목표, 완치자 혈액 확보 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35만건 심사완료, 15일부터 방문접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소상공인 140만명(2개월) 지원</li> </ul> </li> </ul>
	확진:1,073 원차:680 사망:4		
'20.06.12.	확진:12,003(+56) 원차:10,669(+15) 사망:2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618명 중 <b>깜깜이 환자 63명(10.2%)</b>, 지역집단발생 438명, 이중 90% 수도권 발생</li> <li>· 리치웨이 누적 확진자 169명, 사업장 및 종교·요양·운동시설 연세감염 지속</li> <li>· 주간 방역 및 위험도 평가, 일평균 신규확진자 28.9→43.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발생 16→10건, 감염경로 불명 7.4→9.2%,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li> </ul> </li> <li>· 양성→음성, 위양성(가짜 양성) 사례 잇따라 발생, 검사체계 신뢰성 조사 착수</li> <li>·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 당·정·청 국립보건연구원 청 소속기관 존치 결정</li> <li>· 2월말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후 현재까지 36만6천건(5.31.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봉 데이케어센터 누적 확진자 14명</li> <li>· 서울시 전체 주야간보호시설 휴관 및 가족돌봄 권고</li> </ul>
	확진:1,120 원차:689 사망:4		
'20.06.15.	확진:12,121(+37) 원차:10,730(+12) 사망:2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치웨이 누적 확진자 172명(서울 92, 경기 52, 인천 21 등), 쿠팡 물류센터 152명(경기 67, 인천 61, 서울 21)</li> <li>· 식약처 공적마스크(KF마스크) 구매수량 주당 1인 3매→10매로 확대, 의무공급량 60%→50% 낮춰(6.18.부터)</li> <li>·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자원 신속동원 근거 마련, 방역 수칙 위반시 처벌 강화 방안 중심 법 개정 준비</li> <li>· 코로나 어린이 환자 평균 10.38일 입원으로 성인 대비 절반 수준(성인 23~24일), 연령 비례 입원기간 증가</li> <li>· (해외)뉴질랜드 종식선언 후 봉쇄조치 완화 일주일만에 신규확진자 발생, 누적확진자 1506명, 사망자 2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 미이행시 고발, 구상권청구</li> <li>· 대형학원 1100개소 점검완료</li> <li>· 중소학원 700개소 점검중</li> <li>· 금주 일반시민 1000여명 선제적 검사예정</li> </ul>
	확진:1,132 원차:703 사망:4		
'20.06.16.	확진:12,155(+34) 원차:10,760(+30) 사망:2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말 이후 요양원 등 노인 시설 집단발병 최소 6건 마스크 착용 등 관리 미흡</li> <li>· '중환자 92% 5월 이후 발생' 수도권 방역,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보호 시급</li> <li>·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자원 현황 검토, 서울·인천·경기 공동방역체계 협력지침 확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30일간 일평균 30.3명 발생, 격리중 환자 총 906명, 중환자 21명(수도권 병상 47개)</li> </ul> </li> <li>· 과기정통부 2023년까지 감염병 R&amp;D 예산 5600억원 규모로 확대</li> <li>· 행안부 코로나19로 인한 1조3000억원 규모 지방세 납부 연장·징수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산업진흥원, 뉴욕 브루클린에 중소기업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제품 수출 지원</li> </ul>
	확진:1,145 원차:710 사망:5		
'20.06.17.	확진:12,198(+43) 원차:10,774(+14) 사망:27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 280 중 기저질환자 274명, 80대 이상 치명률 25.69%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77.6세, 65세 이상 87.0%, 대구 189명(67.5%), 시설 및 병원관련 사망 55%</li> </ul> </li> <li>· 대전·충청·충남·충북·충도, 충청·수도권으로 전파, 사흘새 누적확진자 25명</li> <li>· 방대본, 치료백신 개발될 경우 고위험군 중심으로 우선순위 정해 접종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3명 코로나 확진(6.15.), 방역조치 완료</li> </ul>
	확진:1,170 원차:718 사망:6		
'20.6.18.	확진:12,257(+59) 원차:10,800(+26) 사망:280(+1) 확진:1,170 원차:718 사망: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 280 중 기저질환자 274명, 80대 이상 치명률 25.69%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77.6세, 65세 이상 87.0%, 대구 189명(67.5%), 시설 및 병원관련 사망 55%</li> </ul> </li> <li>· 대전·충청·충남·충북·충도, 충청·수도권으로 전파, 사흘새 누적확진자 25명</li> <li>· 방대본, 치료백신 개발될 경우 고위험군 중심으로 우선순위 정해 접종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회의 1차 온라인 토론회(6.20.)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 개최</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6.19.	확진:12,306(+49) 완치:10,835(+35) 사망: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신규확진 49명, 수도권(26명)이어 대전(6명)까지 연쇄감염 확대</li> <li>· 방글라데시 입국 후 확진자, 전국에서 하루새 7명 증가</li> <li>· 최근 2주간 일평균 확진자 43.4명, 50대 이상 55% 발생 연령 높아짐</li> <li>· 5월 이후 음식점 집단발생 10건(식당 4, 주점 6), 불필요 모임 자체 필요</li> <li>· 복지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운영 경험 바탕으로 「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매뉴얼」 초안 논의</li> <li>· 전국 물류시설 4,300여개 전수 점검 실시(6.1.~11.)</li> <li>· 전자출입명부 전국 약 6만 개소 도입, 141만건 이용(6.18.기준)</li> <li>·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중부권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li> <li>· 과기정통부 장관 "약물 재창출 방식 활용 치료제 개발은 빠르면 2개월 내, 백신은 내년이나 가능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 등) 5962개 업체 방역 및 집합금지 이행 점검완료</li> <li>·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미룸 (개장여부 7월 중순 결정)</li> <li>·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li> </ul>
'20.06.21.	확진:12,421(+48) 완치:10,868(+12) 사망: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8개 고위험시설 지정(6.2.)</b>이어 <b>4개 시설 추가 선정, 방역수칙 마련</b>                          -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기준                          - ①방판업체,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300인 이상), ④비폐 추가 선정</li> <li>· 해외입국자 2주 격리(자가시설)+진단검사 이어, 사전방역 조치 추가 시행                          - 사전방역조치: 신규 비자 발급 억제,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등</li> <li>·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세 번째 주말 이동량 이전 대비 약 99% 수준, 수도권 주민 생활에 큰 변화 없어</li> </ul>	
'20.06.22.	확진:12,438(+17) 완치:10,881(+13) 사망: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대전 등 최소 6개 방판업체 관련 전국발생 코로나 확진자 254명, 55%(140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li> <li>· 2주간 방역·위험도 평가, 일평균 신규확진 39.6→46.7명, 집단발생 17→12건, 감염환자 비율 증가(10.6%)</li> <li>· 무증상·경증환자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 이송, 확진자도 증상 완화시 생활치료센터 전원토록 지침개정 중</li> <li>· 코로나19 격리위반, 집합금지 위반, 조사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551건, 940명(6.15.기준) 수사·재판</li> <li>· 일본 및 국립보건연구원 뇌졸중, 당뇨환자 및 흡연자 코로나19 취약한 원인 규명, 예방관리 특히 주의해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대확산 우려, <b>일 신규확진자 30명 넘거나, 병상 가동률 70% 달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b></li> <li>·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서울시 교육청 '원격교육'팀 신설, 원격수업은 '일찍 온 미래' 상시 교육 준비</li> </ul>
'20.06.23.	확진:12,484(+46) 완치:10,908(+27) 사망:2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항 입항한 러시아 선박서 16명 무더기 발생, 접촉자 176명 검사 중                          - 입항전 유증상자 있음에도 신고 안해, 검역법 따른 조치 예정...'서류만 보고 통과 전자검역 허점</li> <li>· 5개 시도 49개 학교 등교 수업 일정 조정(6.22.10시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순 시장,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서 2차 대유행 차단 총력, <b>3T 체계 강화, 선제적 검사 총 20만 명 시행 발표</b></li> </ul>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현황자료 기반 작성/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전국 확진자 괄호 내 증감수치는 전날 대비로 작성 됨

\*서울시 확진자 및 완치자 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일 기준 기입(미발표일 미기입), 발표 시간에 따라 당일 최종 확진자 수와 차이 있을 수 있음

#### ● 발생·치료 현황

- [리치웨이발 205명인데...역삼동 방판업체 또 7명 집단감염\(중앙일보\)](#)
- [대전발 코로나 확진자 7명... 대전 누적 환자 100명 넘어서\(세계일보\)](#)
- [러 선박 하역 항운노조원 124명 전원 음성\(조선일보\)](#)
- [대전 코로나 환자 100명 넘었다...방판 타고 열흘만에 50명 감염\(조선일보\)](#)
- [쿠팡 덕평물류센터 밀접 접촉자 180여 명 검사 중...충청권 병상 공동대응\(KBS News\)](#)
- [대전 다단계·요양원 발 확진자 접촉... 5명 코로나 확진\(조선일보\)](#)
- [감천항 러시아 선원 접촉자 152명 음성 판정 나와\(조선일보\)](#)
- [서울 코로나 신규 확진 9명, 7번째 사망자 발생\(헤럴드경제\)](#)

#### ● 정책대응

##### [정치/경제]

- [무주군, "택시 기사님 힘 내세요"\(아시아경제\)](#)
- [코로나 피해 개인 연체채권 캠프가 매입, 매입신청 즉시 추심 중지\(한겨레\)](#)
- [박원순 "北에 방역물품 지원하겠다...원한다면 방문도"\(조선일보\)](#)
- [대구의료인 코로나 수당 논란..."지금 어렵다"는 정부, 왜?\(머니투데이\)](#)

##### [사회/문화]

- ["원격수업 주간 등 온·오프 복합교육과정 도입 필요"\(머니투데이\)](#)
- ["답답해서..." 자가격리 위반한 20대, 1심 벌금 150만원\(머니투데이\)](#)
- [전국 12개 학교 등교 중단... 어제보다 1곳 늘어\(조선일보\)](#)

##### [생활/방역]

- [방역당국 "車 동호회 집단감염, 8일 실내 모임서 감염 추정"\(조선일보\)](#)
- [정부 "프로야구 관중 입장 허용여부 논의중"\(문화일보\)](#)
- [코로나 발생 이전, 국내 감염병 환자 줄고 있었다\(머니투데이\)](#)
- [야외 주차장서 30분만에 전파...'코로나 종식'은 없다\(머니투데이\)](#)
- [용인 상현2동 '코로나19 예방키트' 제작\(헤럴드경제\)](#)

#### ● 사회현안

##### [정치/경제]

- [경총 "코로나 영향 내년까지 지속되면 실업자 27만명 증가"\(아시아경제\)](#)
- [코로나19 다시 번지는데...민주노총 을지로서 10만 명 집회 신고\(서울경제\)](#)
- [국민 10명 중 6명 "대학 등록금 반환, 국고 지원 반대"\(조선일보\)](#)
- [암울한 고용시장... 기업 65.7% "올해 채용 미루거나 축소"\(조선일보\)](#)
- [K-바이오, 코로나 위기 뚫고 글로벌 사업 성과 엑셀 뽐낸다\(조선일보\)](#)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긴급재난지원금, 도움 안 됐다"\(조선일보\)](#)

- [‘코로나 타격’ 지역 언론 100억원 규모 긴급지원\(서울신문\)](#)

## [사회/문화]

- [비접촉 시대 주목받는 생체인식 기술, 얼마나 발전했을까?\(서울신문\)](#)
- [삼육대 손애리 교수 “코로나 정례브리핑·동선 공개가 루머 확산 막았다”\(중앙일보\)](#)
- [조부모 가정 44%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내일신문\)](#)
- [부산시민 10명 중 8명 “부산시 코로나19 대처 잘한다”\(서울경제\)](#)
- [국민 10명 중 9명 “코로나19는 독감이나 감기 수준”\(세계일보\)](#)
- [‘지하철 마스크 난동’ 승객 “왜그랬나” 질문에 “승객 3명이 날 괴롭혀”\(서울경제\)](#)

## [생활/방역]

- [집단감염 러 선원, 무단 하선해 타선원 접촉하고 보안구역 활보\(조선일보\)](#)
- [포항시, 코로나19 포항항 유입차단 비상\(국민일보\)](#)
- [‘러시아산 코로나 치료제’ 구매해보니…해외직구 허점 파고든 불법의약품\(아시아경제\)](#)
- [충남대병원 모든 입원 예정환자 코로나 검사\(세계일보\)](#)

## ● 국제현황

- [佛 코로나 추적앱 유명무실…이용자 2.8% 뿐\(서울경제\)](#)
- [2차 대유행 먹구름...WHO “다음 주 천만 명”\(YTN\)](#)
- [‘코로나 직격탄’ 이주노동자…귀국해도 머물러도 빈손\(머니투데이\)](#)
-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 안돼”...`세계 최대` 뉴욕 마라톤 취소\(매일경제\)](#)
- [아세안 10개국, 내일 화상 정상회의…코로나 공동대응 등 논의\(조선일보\)](#)
- [코로나 2차확산 공포에 美 경제 다시 ‘시계제로’\(조선일보\)](#)
- [코로나 재확산…이르면 주말 세계 확진자 1000만명\(헤럴드경제\)](#)
- [스웨덴 국민마저 ‘집단면역’ 등돌리자…보건청장 “세상이 미쳤다”\(매일경제\)](#)
- [IMF “코로나로 경제충격 가장 적은 나라 한국”\(헤럴드경제\)](#)
- [美 코로나19 신규 확진 3만5900명...“연일 기록적”\(머니투데이\)](#)
- [“미얀마 라카인주 주민 수십만명은 코로나19를 모른다”...왜\(경향신문\)](#)
- [페루의 코로나 환자들, 돈 주고 산소를 삽니다\(조선일보\)](#)

## ● 연구현황

- [뉴지랩 “코로나19 치료제 집에서 간편 복용”... 알약형태 나파모스타트 특허 출원\(아시아경제\)](#)
-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하자”... 국내 제약사들도 뛰어들어\(조선일보\)](#)
- [“고혈압 치료제 코로나19 걸릴 위험 높이지 않아”\(서울신문\)](#)

## ● 오피니언

- [“3차 추경안 부실 많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국민일보\)](#)
-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돼야\(경인일보\)](#)
- [코로나19 지역 확산, 시민의식 높여 극복하자\(충청일보\)](#)
- [수도권 2차 유행에 해외유입 급증... 방역 장기전 대비하길\(세계일보\)](#)

# [붙임1] 고위험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li> <li>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방역관리자 지정</li> <li>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li> <li>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li> <li>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li> <li>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li>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li> </ul>	
단란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방역관리자 지정</li> <li>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방역관리자 지정</li> <li>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li> </ul>
고위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방역관리자 지정</li> <li>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마스크 착용</li> </ul>
실내 스탠딩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방역관리자 지정</li> <li>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li> <li>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li> <li>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마스크 착용</li> </ul>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b>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li>■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li> <li>■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b>유통물류센터</b>	<p>(사업주 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li> </ul> </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li> <li>■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li> <li>■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li> <li>■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li> </ul> </li> </ul>	<p>(근로자 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li> <li>■ 마스크 착용</li> <li>■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li> </ul>
<b>대형학원 (300인 이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li> </ul> </li> <li>■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li> </ul>	<p>(근로자 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li> <li>■ 마스크 착용</li> <li>■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li> </ul>
<b>뷔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li> <li>■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li>■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li> </ul> </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li>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 [붙임2] 서울시 국민안심병원 현황

2020. 6. 17.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2	강남구 강남차병원	외래진료	02-3468-3000
3	3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4	4	강남구 리본한방병원	외래진료	02-546-1358
5	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6	6	강남구 우리들병원	외래진료	02-513-8000
7	7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외래진료	1577-0007
8	8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9	1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10	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11	3	강동구 남기세병원	외래진료	1577-2533
12	4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13	1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14	2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5	1	관악구 심장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6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02-1877-8875
17	1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8	2	광진구 해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9	1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20	2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외래진료	02-2067-1500
21	3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22	1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23	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24	2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25	3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6	1	도봉구 바로선병원	외래진료	1666-5853
27	2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8	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9	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30	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31	4	동대문구 코리아병원	외래진료	02-2281-9999
32	1	동작구 더본병원	외래진료	02-587-2299
33	2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02-870-2114
34	3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35	1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36	2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37	1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38	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9	1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40	2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41	3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42	1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43	2	송파구 서울병원	외래진료	02-405-8501
44	1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45	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46	3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47	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48	2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	외래진료	02-829-9000
49	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50	4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51	5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52	6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53	7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54	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55	1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56	2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57	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58	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59	2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60	3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61	4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62	1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02-2260-7114
63	2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64	1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65	2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66	3	중랑구 서울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76-7000
<b>총합</b>	<b>23개 자치구</b>	<b>66개소</b>	<b>외래 43개소 / 외래 및 입원 23개소</b>	

\* 출처 : 6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6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7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8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39	성동구	성동군자의원*	02-499-7785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0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41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02-1577-0083
7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2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3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4	송파구	경찰병원(야간 및 주말 미운영)*	02-3400-1114
10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5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6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47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48	양천구	홍익병원*	02-2600-0620
14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5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13-5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6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1	영등포구	기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7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8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9	금천구	희명병원*	02-2219-7231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8-9
20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4342-4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2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3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4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59	은평구	기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5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0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02-383-0129
2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1577-3675	61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7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2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63	종로구	서울직업자병원*	02-2002-8650
29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4	종로구	서울지구병원*	02-397-2018
30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5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1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04-7	66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2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67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3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68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4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69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5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기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 검체채취 가능

\* 출처 : 6.1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